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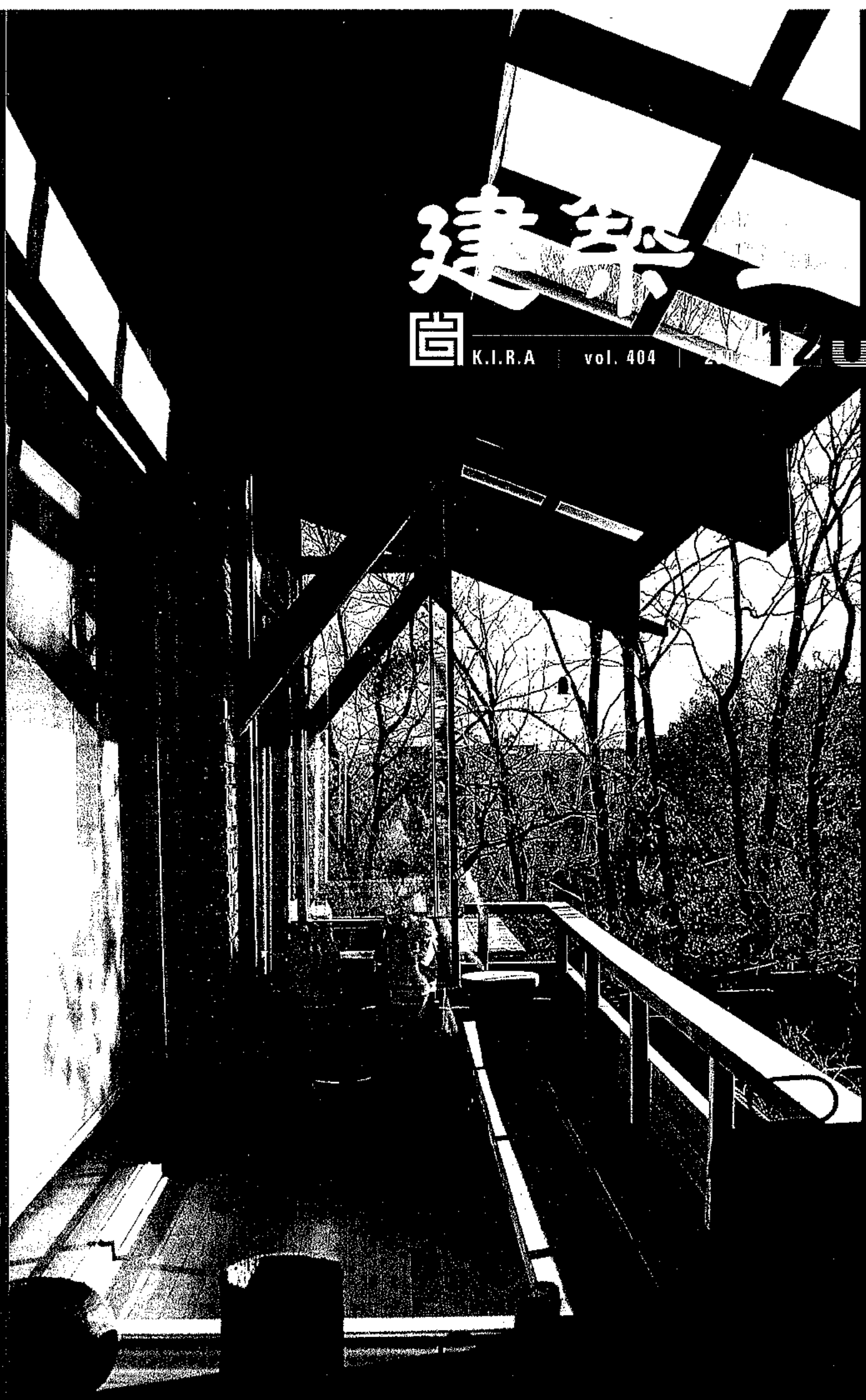
建築



K.I.R.A

vol. 404

12월



큰건물에 강하다

LG시스템에어컨 히센

한 대의 실외기에 접속되는 냉매배관을 단배관으로 직렬구성하여
탁월한 에너지 효율, 편리한 설치 및 설치비용의 절감은 물론
다양한 실내기를 자유롭게 연결하는 효율적 배관구조의 시스템입니다

공간절약과 에너지절약의 효율 냉난방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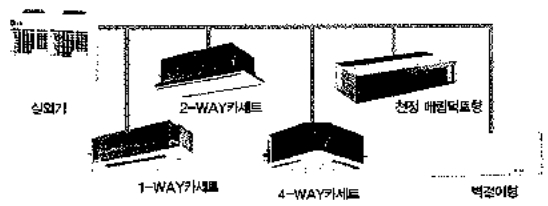
별도의 실내기 설치공간 및 기계실이 필요 없고, 기존 냉난방시스템
대비 최고 40%까지 에너지가 절감됩니다. (IESCO자금 지원대상제품)

빠르고 강력한 인버터 냉난방시스템

강력하고 유연한 인버터 압축기 채용으로 $\pm 0.5^{\circ}\text{C}$ 의 미세 온도제어와
1.5배 빠른 쾌속운전은 물론 영하 15°C 혹한기 난방까지 책임집니다.

자유로운 설계/설치가 가능한 Free Joint 빌딩 멀티

4.5~30Hp의 실외기 용량, 다양한 실내기 기종 및 빌딩에 적합한 냉매배관
시스템(수평 100m/수직 50m)으로 설계가 자유롭고 설치가 간편합니다.



편리하고 다양한 개별/중앙제어 시스템

실내기 개별제어/그룹제어/인터넷 제어/중앙제어/PC제어/
적산전력 분배시스템 등 다양하고 편리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중앙제어 컨트롤러〉



전문가라면 큰 건물에서도
크게 남는 장사를 하셔야죠

시스템에어컨 제품 구입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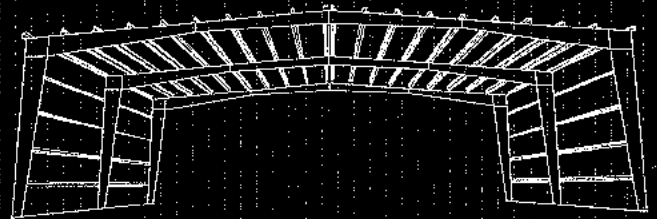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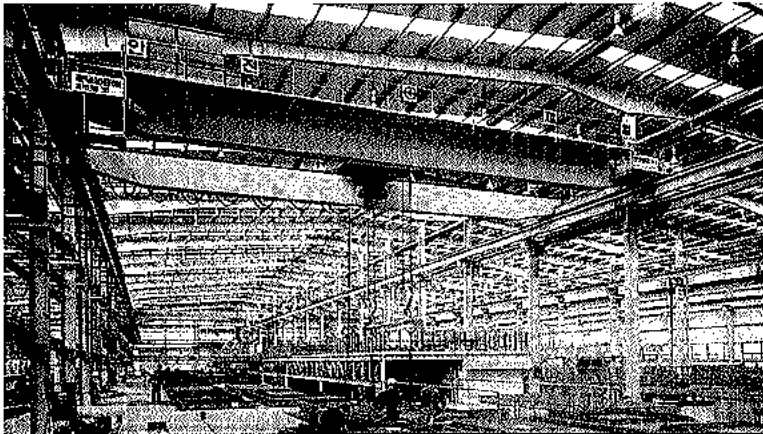
강남 (02)2005-3578 강북 (02)727-4180 경기/강원 (031)217-5091 인천/부천/안산 (032)321-9161 부산 (051)807-3241
경남 (055)238-6402 경북 (053)257-0608 충청 (042)254-4210 호남 (062)610-5840 시스템에어컨MC (02)2005-3054

시스템에어컨 기술 상담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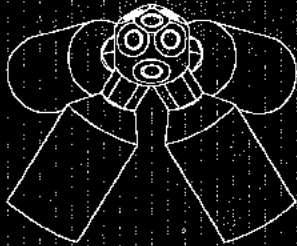
서울 (02)2005-5055~60 ※ 시스템에어컨 홈페이지 (www.systemaircon.com) 상 방문하시면 전문가의 상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한맥의 첨단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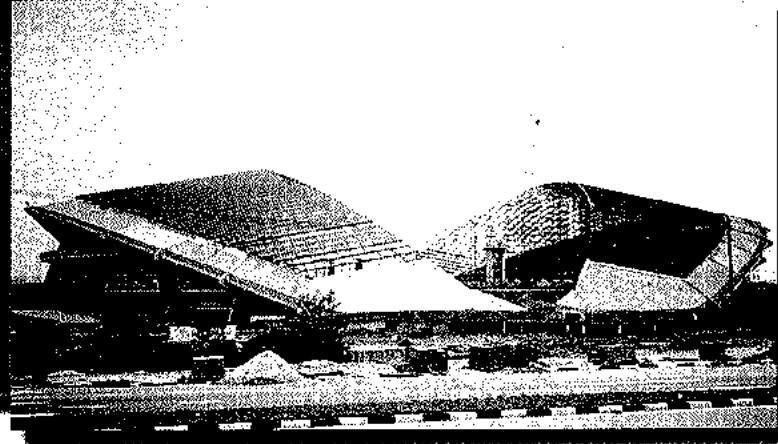
P.E.B & Space Frame



- P.E.B 용도 : 공장, 물류창고 등.
- 주요실적 : 육군정비창 33개공장,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중공업, 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태국비료공장, 중국MOBIL석유, 베트남 HUY-HOANG공장 등 국내외 8000여개소



- Space Frame 용도 : 체육관, 공항, Dome 등.
- 주요실적 : 말레이시아 Shah Alam종합경기장, 인도네시아 Dome, 일본 Ogawa, 미국 Lejeune Center, 대만 타이베이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신정사, 목동빙상경기장 등 국내외 1,000여개소



지난 20여년간 특수철구조물만을 개발하여온 한맥기술진은 Computer Software를 응용하여 3차원 구조역학의 P. E. B(Pre-Engineered Building System)와 Space Frame System을 자체개발, 대규모 무주공간건축을 가능하게 하였고, 기존 철구조물에 비하여 30% 원가절감은 물론 현장조립공법으로 공기단축을 실현하였으며, 연간 7만여톤을 제작·시공할 수 있는 대규모 자동화 생산설비를 갖춘 Asia 최대의 특수철구조물 Maker로 외관이 미려한 혁신적인 철구조물을 세계각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기술영업상담 (02)783-9999

기술제휴 :  **PASCOE BUILDING SYSTEMS, INC.**

FOR MORE THAN **50** YEARS



특수철구조물의 개척자
한맥重工業株式會社
HANMAEK HEAVY IND. CO., LTD.

- 본사·공장 :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 B-1 나-707
TEL: (031)499-0114(대), FAX: (031)498-0511
- 서울사무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81-49(산기빌딩 4층)
TEL: (02)783-9999(대), FAX: (02)785-0030

http : //www.hanmeak.co.kr

정부조달 우수제품 인정
신기술 KT 인정제품

불연 인테리어 건축 내장 마감재

안타민

- 불에 안타면서 불의 확산을 막아줍니다
-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양한 칼라, 패턴으로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 시공이 간편하고 경제성이 있습니다.
- 충격에 강합니다.

소방법, 건축법 에서의 해방!

2002. 4. 1 소방법 개정시행(대통령령)

특수장소 및 다중이용업소의 벽체, 천정에
설치하는 실내장식 마감재는
불연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www.antamine.com / www.seohandeco.co.kr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41-8(남동공단 185B-6L)

TEL: 032-816-1674~7 FAX: 032-814-4155 E-mail: seohan@antamine.com seohandeco@seohandeco.co.kr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중

스카이파크

SKY PARK

미닛로타리식 입체주차장치

PL범용입체상차기
3억 원
현대해상화재

인정번호 대구 제1-15호

인정번호 대구 제1-16호

실용신안등록 제20-019032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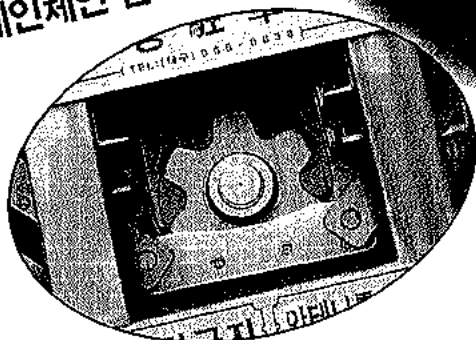
실용신안등록 제20-0246310호

10년이상 쓸 수 있는 주차장치
"자신있습니다"

기술혁신이 품질향상과 가격혁명을!

"세계최초의 주차기폭 4.57M를 실현한
초슬림형"

세계적 특허방식인
메인체인 접속구동의 新대



■ 이 령 게 다 릅 니 다

- 기존에 간판해진 구동부 만큼 가격은 대폭 내렸습니다.
 - 지상자주식(2.3M×2대=4.6M)보다 좁게 폭(4.57M)을 대폭 줄였습니다.
 - 구동부가 간단하여 구동효율이 높아 성능은 향상되고 소음, 진동은 대폭줄였습니다.
 - 정밀가공 및 JIG이용 제작으로 완벽한 성능을 보장합니다.
 - 도면, 사양 등 상세정보는 홈페이지(www.Juchagi.com)에 있습니다.
 - 대한건축사협회 건설자재정보(www.Archidb.com)의 '주차'를 검색하십시오.
- ☎ **자매품** Pit를 파지 않고 2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허품 2단주차기도 있음.
(인정번호 : 대구 제4-25호)

■ 사 양 (뉴 그 랜 저 급 진 입 가 능)

모 델 명	수용대수	주차기 폭 (最小)	주차기 길이 (最小)	소요높이 (最小)
SKY PARK- 5	5 대	4570	6090	6830
SKY PARK- 6	6 대	4570	6090	7720
SKY PARK- 7	7 대	4570	6090	8600
SKY PARK- 8	8 대	4570	6090	9380
SKY PARK- 9	9 대	4570	6090	10390
SKY PARK-10	10 대	4570	6090	11280
SKY PARK-11	11 대	4570	6090	12170
SKY PARK-12	12 대	4570	6090	13060

신제품 지상설치형 턴테이블 - 피트(pit)를 파지 않고 지상높이 70mm!

실용신안등록 제0233726호

명 칭	승강턴테이블(전원형)
구 동 시 속	중·소형 승용차(무게 2000kg 이하)
구 동 방 식	미탈 구동식
구 동 순 회	0.15kW×4P = 3개
장 각 각 도	약 1°/PM
조 작 방 법	PUSH-BUTTON
전 원 전 력	AC 380V/220V·3φ+GN/2
자 체 중 량	약 1000 kg



건축사의 신용, 대출名家의 자존심을 약속합니다!!

보험으로 쌓은 신뢰, 대출로 이어가겠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소중한 희망을 위해
이젠, 보험뿐만 아니라 대출도 삼성생명과 상담해 주세요.

내일을 위한 희망설계 - 삼성생명 대출

신용대출 안내 (무담보 무보증 원칙)

대출자격 / 건축사, 의사, 약사, 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기술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및 교사, 기타 공무원

대출금액 / 1천만원~1억 5천만원

예상금리 / 연 7.0%~13.5%

기 간 / 1년~5년 (수시상환, 연장,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가능)

대출기관 / 삼성생명, 제1금융(은행), 제2금융(보험사, 금고 등)

- 창업자금 특별상담
- 담보대출 : 최저금리, 설정비 면제
- APT 소유자, 구입예정자 : 6.0%~7.0%(10년, 15년, 20년, 30년형)
- APT, 단독주택 등 주거용 전세자금이면 담보설정이 가능하고,
상가, 빌딩 등 임대보증금을 담보(질권설정)로 설정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 아파트 라이트 플러스 대출 : 최저 6.0%
- 스피드 학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경력대금 : 90%까지 대출 가능

삼성생명대출특선!!



최고액 대출

최저의 금리

삼성생명
Seed Bank
Seed Bank

신속한 처리

상담의
공간

삼성생명 정책5부

팀장: 양승영

Tel (02) 545-8853~4

Fax (02) 545-4939

H-P 011-9738-0087



설계자 중심의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 파우더 형식의 소재로 되어 있어 도안과 색상, 패턴의 조정이 쉽습니다.
- 천연소재의 색상 채움을 통해 자연스럽고 변질되지 않는 아름다움을 유지합니다.
- 100년 이상의 수명을 보장하며, 일반시멘트와는 달리 천연 세라믹 소재를 적용,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적 소재입니다.

건축내외장재로서의 탁월한 장점이 있습니다

- 일반시멘트보다 3배 이상 높은 강도를 자랑합니다.
- 원전방수이면서 세라믹과 같은 공기의 투과기능이 있어 단열은 물론, 열팽창률이 적어 섭씨 1,200도 이상의 고온도 견뎌냅니다.
- 조박막 시공과 조합이 가능해 건물의 하중 부담을 줄여줍니다.
- 다양한 쓰임새의 건축자재로 활용범위가 넓습니다.

ZHUAI STONE

어떤 아름다움도 튼튼하게 표현합니다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또한 가장 튼튼한 건물은 모든 건축인들의 꿈입니다.
신소재 건축내외장재 ZHUAI STONE[®]에는 자유로운 조형의 실현은 물론
건축물의 내구성을 더욱 강화하는 등의 첨단 소재과학이 숨쉬고 있습니다. 소재의
제한이 없는 건축 설계와 시공, 이제 ZHUAI STONE[®]으로 도전하십시오!

150-050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1대영빌딩 1121
Tel 02-785-1822 | Fax 02-785-5531

ZHUAI



Autodesk Revit 건축 정보

CUSTOMER



매월 도서관의 외곽을 재설계하는
막바지 작업을 수행하고, 마감시간 내에
새로운 입찰문서를 제출했습니다.
가능하나요? Autodesk Revit 이니까요..

Autodesk Revit 을 사용하면 6천 평방 피트 도서관의 전면을
빠르고 편리하게 3D로 디자인할 수 있으며
수많은 건설 관련 문서들도 한꺼번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에 완벽을 부여하는 놀라운 세상

autodesk

최상의 디자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최초의 파라메트릭 빌딩 디자인 솔루션

Autodesk® Revit®

출시!

작업시간은 최소화! 건축설계는 최상으로!

모든 설계 정보를 건물 데이터 베이스로 작성하여 자동으로 통합, 관리하는 건축 정보 모델링(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의 결정판. Autodesk Revit 빌딩 모델에 담겨있는 모든 정보들은 한 번만 수정하면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파라메트릭 기술 기반으로, 디자인이 더 돋보이는 시각화 작업까지 가능합니다. 이제, Autodesk Revit으로 당신의 디자인 능력을 마음껏 펼쳐십시오.

건축 정보 모델링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건물과 설계, 구성 및 작동의 반복적인 변경을 지원하는 건물 데이터베이스를 작성
- 계획, 설계 스케치 과정에서 코드, 통합 및 프로젝트의 모든 표식에 대한 일괄 기록
- 완벽한 문서 설계 및 문서화로 시간, 인력, 문서 절약

프로젝트 통합관리 시스템

- 모든 데이터와 그래픽, 치수, 차등, 통합, 도면 및 시트를 작성, 실행, 유지
- 강력한 2D 제도 및 파라메트릭 세부 도구를 사용
- 작업 세트를 사용하여 팀 구성원이 함께 공동작업 가능

효과적인 설계를 위한 강력한 변경관리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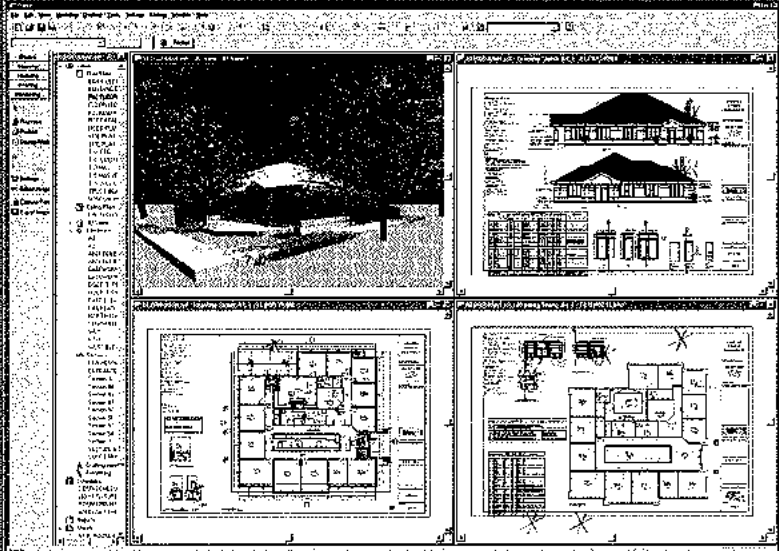
-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시행을 결합하는 데에 특별한 기능 발휘
-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변경 작업 가능

설계 정보의 공유 및 시각화

- DWG, DXF 및 DGN 파일을 지원, 구성원 및 설계 정보 공유
- AutoCAD 소프트웨어와 연동하므로, 두 솔루션을 함께 사용
- 설계 정보의 빠르고 정확한 시각화를 위한 통합 렌더링 기능 제공
- 시각화를 제공하는 통합 AccuRender, 관련 추적 및 realisity
- ArchVizion (real people) 이미지 기반 렌더링

자유로운 디자인 컨셉 반영

- 그래픽 작업만으로 구성요소를 작성할 수 있는 그래픽 파라메트릭 구성요소 편집기
- 다양한 건물 구성요소군, 사용자 지정할 수 있는 개관, 표면, 개입기 및 패턴



Good News

2003년 1월 15일 까지 기존 AutoCAD나 Architectural Desktop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특별한 가격으로 업그레이드를 해드립니다

Architectural Desktop 3.3에서 Revit으로	2,700,000원	1,500,000원
Architectural Desktop 3/2/2에서 Revit으로	2,700,000원	2,400,000원
AutoCAD 2000/2000i에서 Revit으로	3,000,000원	2,700,000원

* 상기 가격에는 1년분의 Subscription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가격은 부가세 별도입니다. * 본 행사에 적용되는 제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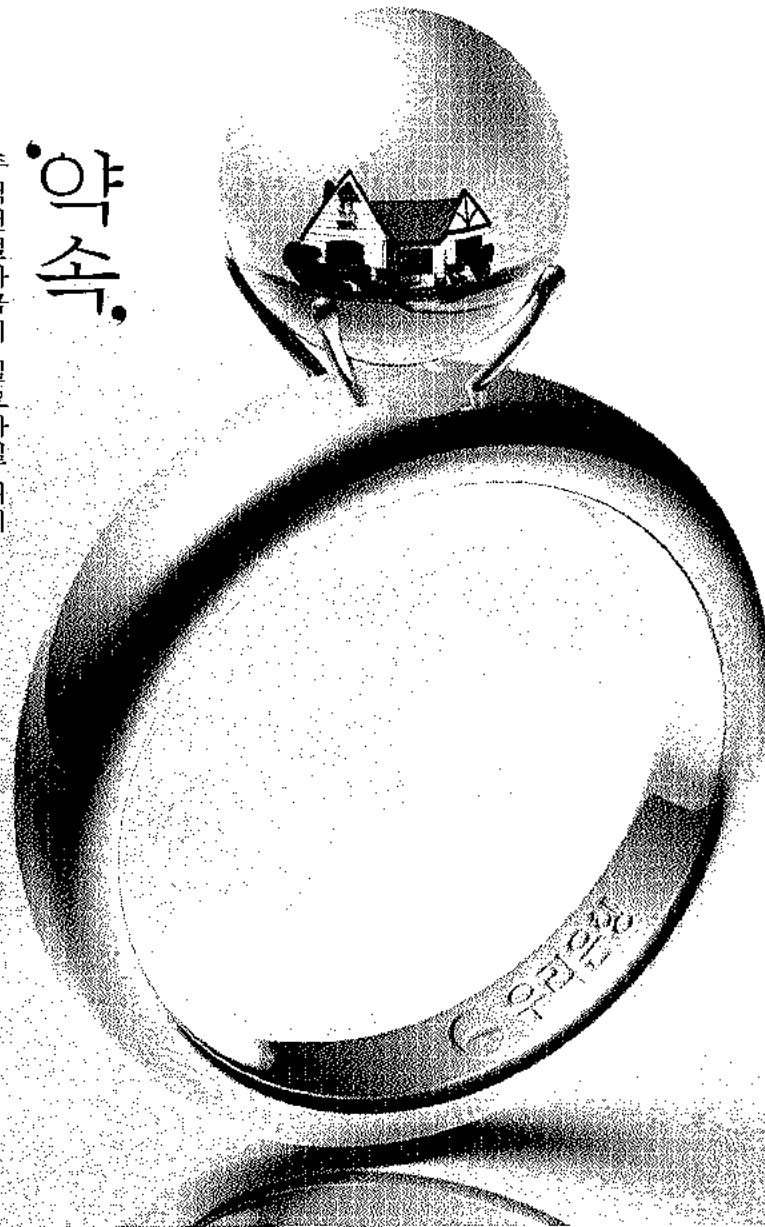
autodesk

* Autodesk Revit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http://www.autodesk.co.kr/Revit>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무료 데모 CD신청서를 작성하시면 Autodesk Revit 4.5 Trial CD를 발송해 드립니다.

(주)오토데스크코리아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6 삼부빌딩 17층
TEL: 02-527-0790 FAX: 02-527-0799 www.autodesk.co.kr

약속,
주택건설자금이 필요하실 때에
우리은행이 힘이 되겠습니다



우리은행,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선정!

주택건설사업자의 꿈 ★, 우리나라 우리은행이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정부로부터 안정성, 전문성을 높게 평가받아 새롭게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으로 선정된 우리은행—
다시 한번 '우리나라 우리은행'임을 널리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주택건설자금대출을 비롯한 주택금융에서도 더욱 앞선 서비스를 펼쳐나갈 우리은행과 함께 하십시오.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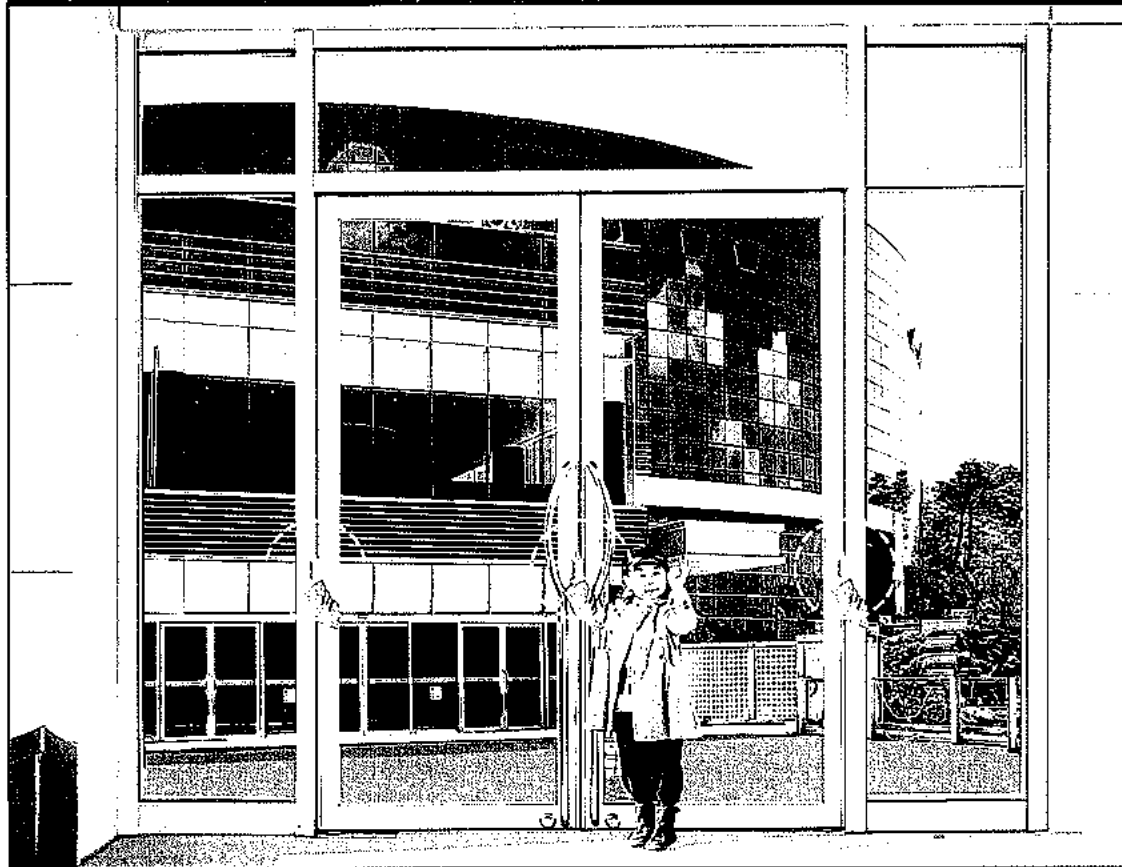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에 대한 대출
-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 주택조합, 고용자에 대한 대출

• 업무취급 예정일 : 2003년 1월 • 안내전화 : 우리은행 국민주택기금팀 02)2126-2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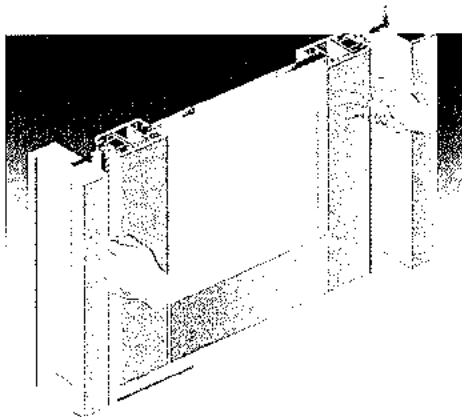
우리나라  우리은행

세이프강화도어

제조물 책임(PL)법에 의해 제작된 안전한 문. 세이프 강화도어! — 정우는 안전한 제품만을 생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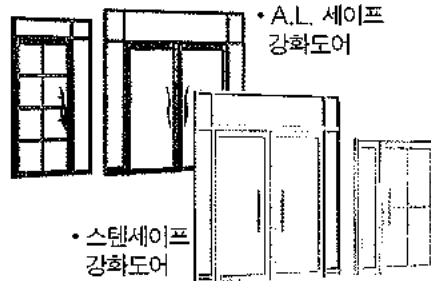


어린이 "손"을 보호하는 도어,
유리 "문" 파손방지 및 에너지 절약, 방음, 방풍이 완벽한 도어!



단면 상세도

사용시에는 방풍, 방음, 단열이 완벽하고 손가락이 끼었을 시에는 이중케이스가 유인하게 작동하여 손가락을 보호하여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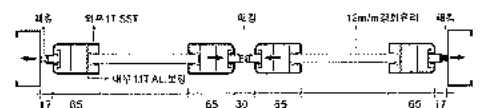


설치 장소

- 학교 • 관공서 • 종교건물 등
- 음식점 • 은행 • 아파트 • 빌딩
- 목욕탕 • 상가건물 • 유치원
- 백화점 • 병원 • 호텔 • 기타

평면 상세도 (슬라이드식제 다운로드 참조)

사용 상태도



어린이 손가락이 끼었을 때 작동 상태도



기존의 일반 강화도어는 안전사고 및 에너지 손실이 많아 단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물가 자료집에서 삭제되었음)
:: 단가표: 한국물가 자료집 416p 참조

어린이 "손" 안전과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는 기업



정 우 산 업

www.safedoor.co.kr

본 사 : 대구광역시 북구 을내동 374번지
전 화 : (053)325-9800/325-9801~2
FAX : (053)325-9802
E-mail: jungwoo9800@hanmail.net

벤 처 기 업 등 록 업 체

건축사

대한건축사협회 발행, 2002년 12월호, 통권404호

차례 2002 12 404호



수유리 녹운당(최찬환 作)

21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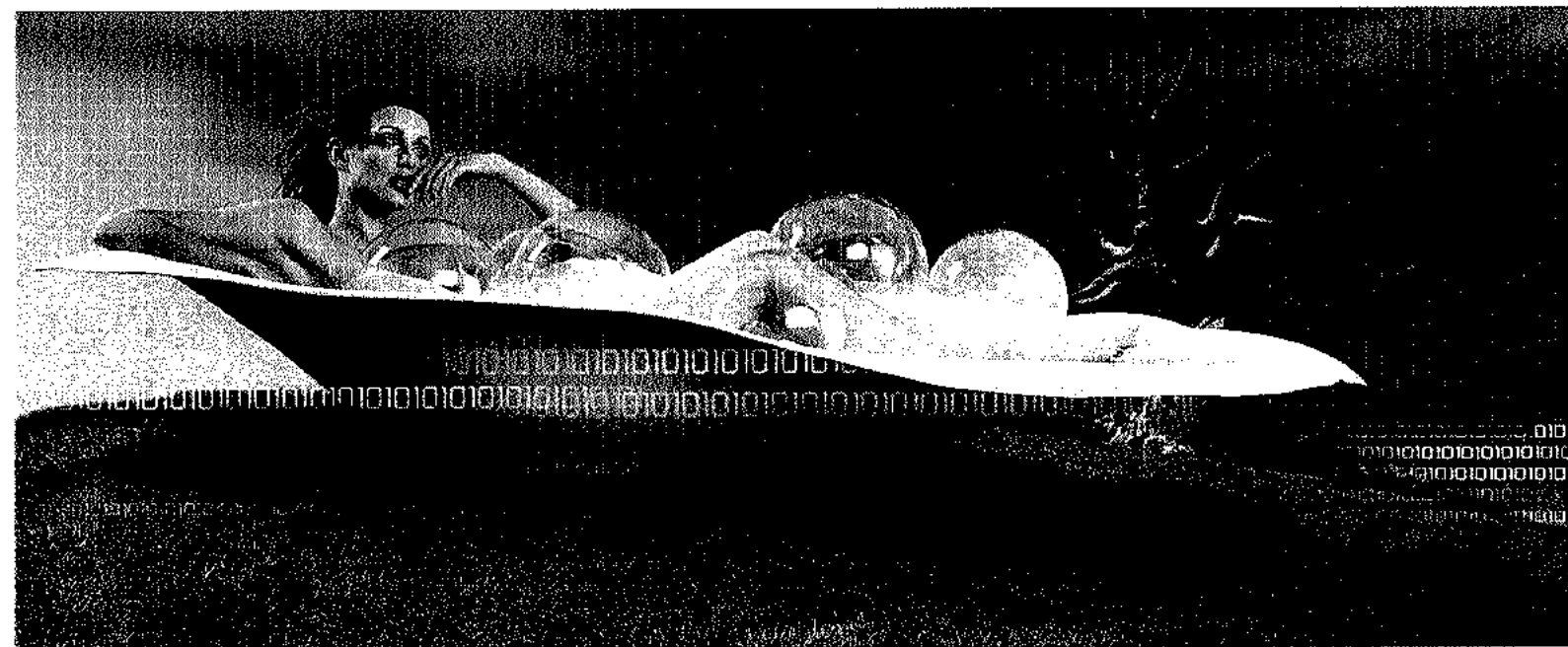
54



발행인: 우남웅
홍보편집위원회: 정정처, 박영식, 김수경, 목대상, 민승렬,
박주환, 심우근, 최정일
취재·편집: 조한국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137-070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인터넷: <http://www.kira.or.kr>
E-mail: korea@kira.or.kr
인쇄인: 김중식/중앙미술인쇄공사 (02)2269-7619
광고문의: 대한건축사협회(이홍식 팀장)

칼럼	도시만들기와 건축사의 역할	이정형	18
회원작품	안천주택	박창근	20
	수유리 녹운당(綠雲堂)	최찬환 · 장영생	32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	(주)정림건축	42
	성남시 화장장	이상림 · 강희성	48
	젯등	한진수	56
	꿈동산 유치원	김성근	62
	한국담배인삼공사 영주지점	이영욱	68
현상설계	경찰종합학교 청사		72
	제주4·3평화공원		76
	서울비즈니스센터		82
	중랑 청소년 수련관		86
	서울산업대학교 여학원		88
기고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마성호	90
	건축사 특별 감사원 제도	최찬환	92
건축만평		유원재	96
건축마당	건축계소식		99
	세무안내		104

당신의 보일러는 디지털 입니까?



린나이 디지털 보일러 디지털 —



디지털은 가스비가 절약됩니다

가스불꽃이 컴퓨터로 자동조절되어 불필요한 열손실을 막아
유지비를 최소화시키는 고효율 에너지 제품입니다.



디지털은 인터넷 제어시스템으로 앞서갑니다

홈네트워크 기술의 완성으로 인터넷을 통해 밖에서도
가정 내에 있는 보일러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주문생산)



디지털은 리모콘 사용이 편리합니다

기본 리모콘 외에 별도의 리모콘을 추가로 설치하여
각방의 실내온도를 따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은 샤워하는 즐거움이 다릅니다

맞춤온도 유지기능으로 언제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
시켜주며 특히 디럭스형의 경우 방수처리된 추가 리모콘
으로 욕실에서 샤워온도를 눈으로 확인하며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은 온수 사용이 훨씬 편리합니다

35℃에서 60℃까지 온수의 온도설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3·6·10개월
무이자 할부판매
신청카드 할부금
(상상계좌)





Column

Urban Design and Architect's Role	Lee Jung-Hyung	18
-----------------------------------	----------------	----

Works

Incheon Residence	Park Chang-Geun	20
Nokwundang	Choi Chan-Hwan & Jang Young-Saeng	32
Grand Hilton Hotel Convention Center	Junglim architecture	42
Sungnam City Crematorium	Lee Sang-Leem & Kang Hee-Sung	48
Jaetdeung	Han Jin-su	56
Dream Land kindergarten	Kim Sung-Gon	62
Korean Tobacco & Ginseng Corporation Youngju Branch Office	Lee Young-Wook	68

Competition

A Government Office Building of Police Complex School	72
Jeju 4 · 3 Peace Park	76
Seoul Business Center	82
Joongnang Youth Training Center	86
Language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88

Feature

The Teachings of Confucius	Ma Sung-Ho	90
Architect's Special Examiner System	Choi Chan-Hwan	92
Cartoon	Yoo Won-Jai	96

Architects' Plaza

Archi-Net	99
Taxation Business	104

Publisher: Woo Nam-Yong

Editorial Member : Jeong Jeong-Chi, Park Young-Sik,
Kim Soo-Kyeong, Mok Dae-Sang,
Min Seung-Ryeol, Park Ju-Hwan,
Shim Woo-Keun, Choi Jeong-Il

Assistant Editor: Editorial Team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Printer: Kim Jung-Sik (Jungang-art Printing Co.)

for the Generations to C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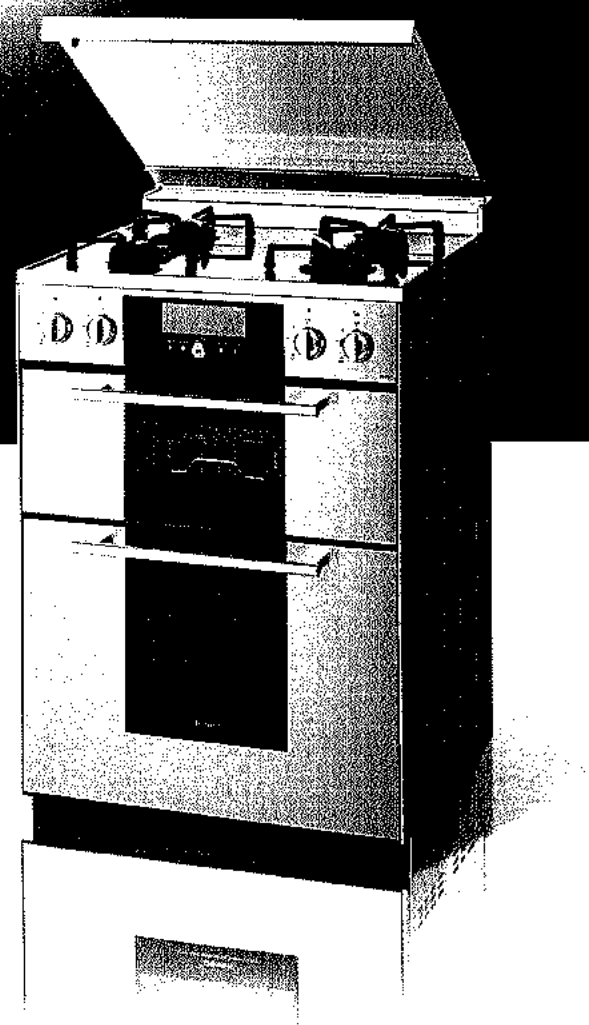


여자의 생각이 변했습니다. 여자의 감각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린나이도 변했습니다.
여자를 위한 화려한 변신! 레볼루션 린나이

- 우수디자인 신자부 장관상 수상 TOP
- 고품격 독일 세라(CERAN)글라스 상판
- 유럽스타일의 글라스 커버 GRILL
- 삼면 입체가열방식의 대형그릴
- 15분 지동소화 안전타이머
- 위생적인 항균코팅 그릴
- OVEN
- 과속조리 디지털 간백선 기능
- 편리한 마이콤 오븐자동요리 기능
- 위생적인 찹쌀 항균 코팅

■ MODEL : RSF-31CS

Jewell 쥬벨



제품 구입 및 문의 : • 전국 유명 백화점 및 할인점 등 대형유통점 • 가스 오븐/에어제 대리점 : 1538-8292 • 보일러 대리점 : 1588-9833 • 업소용기기 대리점 : 02-320-5555
전국지사 및 영업소 : 서울 320-5555 • 인천 512-0002 • 수원 247-3651 • 부산 583-6225 • 대전 625-6314 • 대구 382-3652 • 광주 521-2651
3원 238-3601 • 원주 744-8111 ■ FAX A/S접수 : 02) 323-3651 ■ 서비스 고객 상담실 : 전국 예대세나 1544-3651 ■ 인터넷 주소 : <http://www.rinnai.co.kr>

Rinnai 린나이코리아(주)

도시만들기와 건축사의 역할

Urban Design and Architect's Role

이정형 / 중앙대학교 건축학과 조교수

by Lee Jung-Hyung

우리는 지난 반세기동안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열심히 도시만들기를 계속해왔다. 아마 우리의 경제성장만큼이나 급격하게 그리고 효율적, 기능적, 경제적으로 도시만들기에 매진해온 것 같다. 여기에는 도시 계획, 토목, 조경, 건축 등 소위 물리적 환경계획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밤새워 고민하고 힘들게 작업하며, 도시환경, 도시건축 만들기에 참여해 온 결과이며, 오늘날 우리의 도시환경이 이만큼이나마 삶의 장소를 영위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노력의 결과인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신없이 달려온 지난 반세기를 통해 만들어진 우리의 도시환경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되돌아 보면 무언가 석연치 않은 마음의 한구석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의 도시는 매력적인가? 걷고 즐길만한가? 도시의 수많은 건축물들은 도시미관의 충분한 주역이 되고 있는가?....한번쯤은 이러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진외국의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도시환경을 되돌아보게 되고 우리의 도시환경은 왜 이렇게 아름답지 못하더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우리의 도시만들기에 있어 이론적 근거가 된 '쇼닝' (지역지구제)으로 대표되는 근대도시계획수법은 도시를 기능적인 면에 중점을 두면서 효율적, 경제적으로 도시를 재편하고, 고도성장기 도시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장 적합한 도시기능의 수행에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 자동차교통의 원활한 소통이 도시기능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으며 도시의 하천을 복개해 도로를 만들고 도심부의 요지를 가로지르는 고가도로는 성장한국의 랜드마크가 되었다.

개별필지에 계획되는 도시건축물은 도시의 공공성을 생각할 여유도 없이 개인의 사유재산 욕구분출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도시건축물 입면 하나를 제대로 그려내기 위해 밤새 고민하고 수많은 스터디 모형을 만들어보는 건축사의 노력은 완성 후 건물입면 전체를 덮어버린 광고물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이미 찢어진 도시골격 속에 주어진 대상지(필지)를 아무리 만지고 고민해도 넘쳐나는 가로주차장, 필지단위의 불합리한 각종 규제 속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시건축물을 통한 개인의 욕구분출의 극대화는 도시에 있어 공공성 결여라는 부메랑이 되어 각자의 목을 죄어든다. 공공성이 결여된 도시환경 속에서 도시건축은 더 이상의 매력을 가지기가 힘들게 된 것이다. 어쩌면 도시만들기에 있어 토목행정적 논리 속에 개개의 도시건축은 제대로 자기목소리를 내기도 전에 질식상태에 놓여져 있는지도 모르겠다. 필자는 이러한 모든 상황이 지금까지 필지단위의 도시건축 만들기에만 몰입한 건축사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으며,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사회적 책임이라 단언한다. 물론 우리의 건축교육 자체가 지나치게 개별건축물의 조형, 의장에만 치우쳐 있어 건축의 사회적 책임, 도시건축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한 면도 있을 것이다.

최근 청계천을 복원한다, 시청앞 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 걷고싶은 거리를 만든다...등 이제나마 사람들이 걷고, 즐기며, 도시의 풍경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어보자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반가운 일이다.

또 한편으로는 도시계획법이 도시관리법으로 바뀌고, 종전의 도시설계제도와 상세계획제도를 통합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창설해 운용에 들어갔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각종 도시계획 관련조례는 더 이상의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좌시하지 않을 기세이며, 도시계획법 속에도 '경관지구'를 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해 도시경관, 미관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건축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도시만들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건축사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할 때인 것 같다. 교통전문가, 생태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들은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나름대로의 전문가적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다. 물론 문화인대 등 몇몇 건축사그룹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보다 많은 건축인들의 도시만들기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우선, 건축사의 활동범위를 직접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경관계획 등 상위계획 수립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건축계획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많은 내용이 건축사들에 의해 만들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사의 참여부진으로 개별건축행위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없이 계획수립이 진행되는 경우가 다발하고 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자칫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즉,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공간의 3차원적인 도시관리수법이며, 종전처럼 도시공간을 평면적 기능적 관점에서 탈피해 각 지구가 가지는 공간적 물리적 특성을 평가해 지구의 명확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러한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수법으로 이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축사의 도시공간에 대한 풍부한 창조력과 공간계획의 능력이 요구되며, 이 제도의 결과를 역시 도시건축에 의해 평가되어지기 때문에 건축사의 참여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건축사가 얼마나 될까? 또 이 일이 건축사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축사가 얼마나 될까?

한편 신도시개발, 강북뉴타운개발 등 도시의 경관변화와 직결되는 대규모도시개발의 경우 지금까지는 도시계획, 토목행정가 등에 의해 도시의 기본적인 골격이 짜여지면, 개별 블록을 단위로 건축사가 건축물을 설계하는 이원화된 시스템 속에서 도시건축물이 만들어져 왔다. 이는 도시와 건축의 괴리를 가져오며 통합된 도시경관의 조화를 형성하기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상위계획 속에서 형성된 도시공간의 틀 속에서 건축사의 역량발휘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초기단계의 도시골격 형성단계부터 건축사의 참여를 통해 3차원적인 도시골격 만들기엔 건축사가 적극 참여하고 있다.

최근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등의 대규모주거단지계획에 있어 건축사들이 초기단계에 참여하는 소위 "MA(Master Architect)방식"의 도입, 건축사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출판단지 등은 이러한 변화의 선구적인 사례이며, 이미 선진외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검증된 수법이다. 또, 기성시가지의 개별건축행위에 대해 공공건축사(Public Architect)참여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결국, 도시건축 만들기는 몇 가지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규제, 유도되어질 수 없으며, 건축사의 도시만들기에 대한 주체적 의식 속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시스템을 통해 실현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축사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천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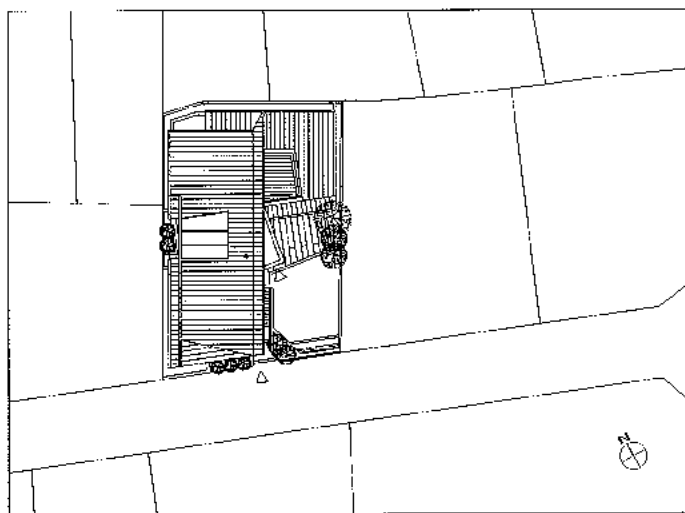
Incheon Residence

박창근/ 건축포럼 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Park Chang-Geun

건축개요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송학동 2가 4-2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2층 이하, GL+DM 이하)
대지면적	324.3㎡
건축면적	172.98㎡
연 면 적	363.44㎡
건 폐 율	53.3%
용 적 륜	86.4%
규 모	지하1층, 지상2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내부마감	바닥-엠베온돌마루판(1층), 착색온돌강화마루판(2층) 벽-벽지, 모노쿠시(천연라임계물탈), 천정-페인트 마감
외부마감	모노쿠시(천연라임계물탈, 티타늄아연판, 적삼목사이딩)
설계담당	장윤영, 문중재, 이채신
구조설계	만우구조
설비설계	청림설비
전기설계	무림전기
인테리어	건축포럼
시 공	(주)제호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촬영: 박창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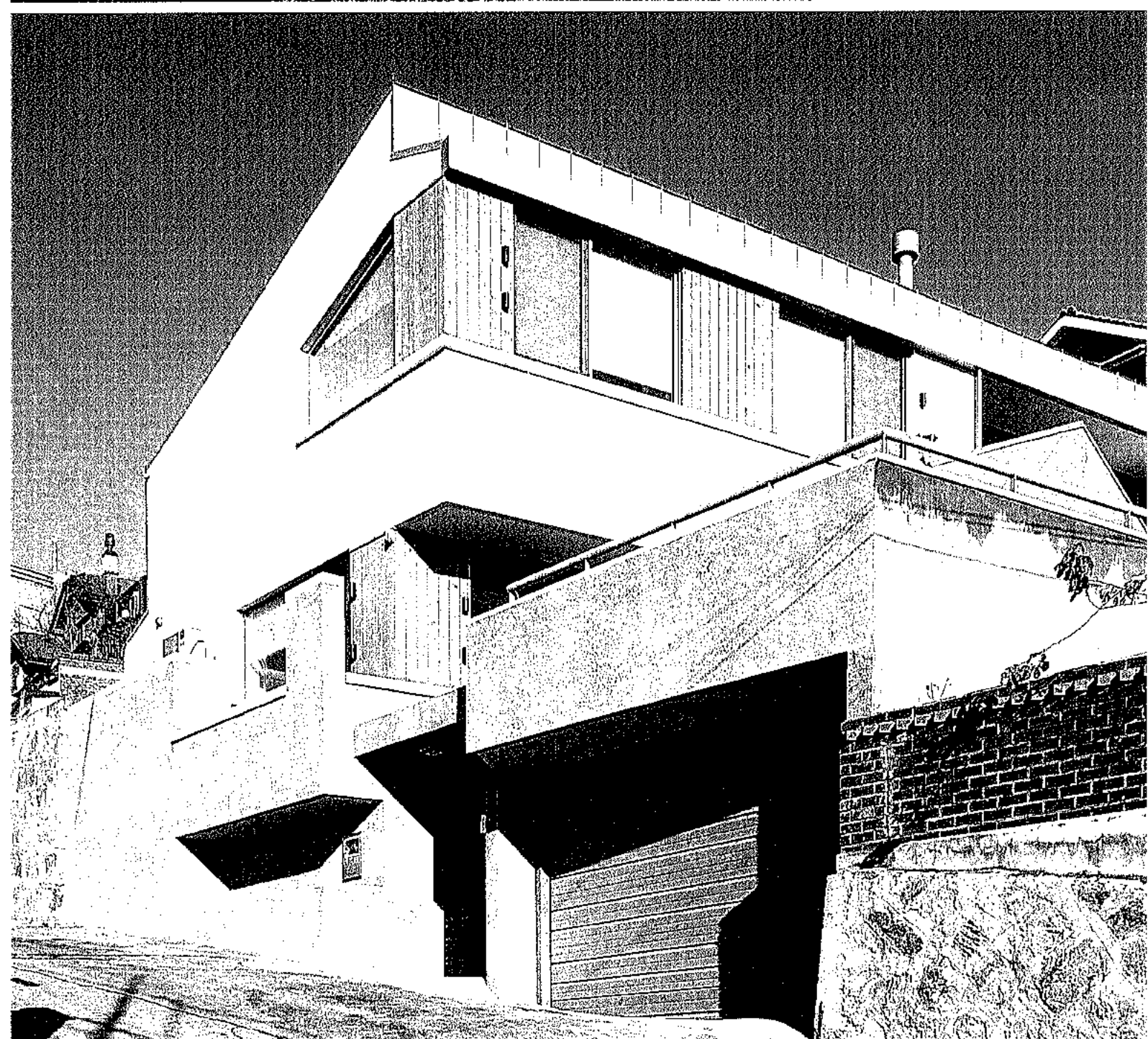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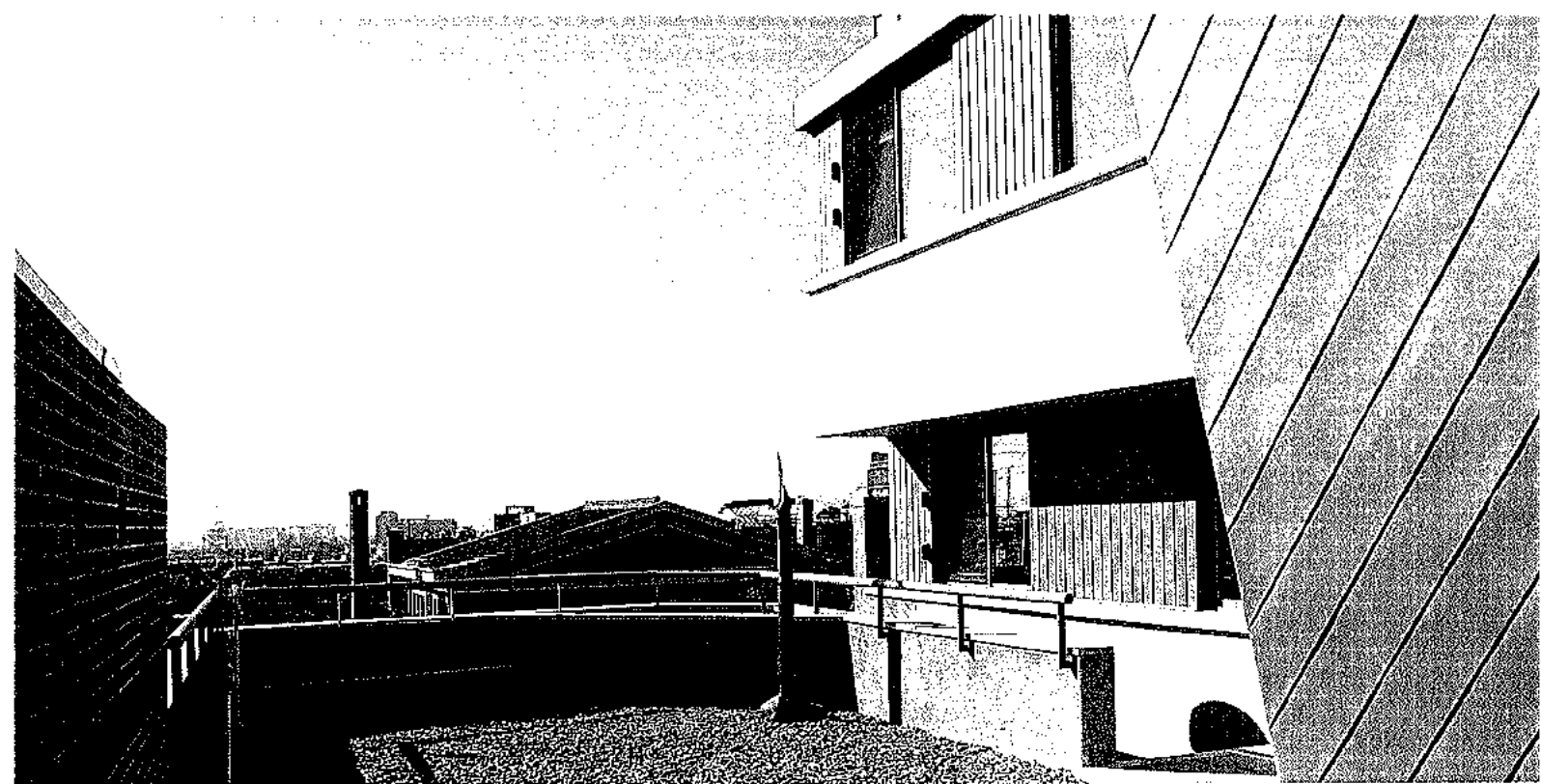
배치도

한옥에서는 하나의 방(내부공간)에 하나의 마당(외부공간)이 대응되는 '1실 1마당'의 개념이 사용된다. 따라서 한 채의 한 옥에는 각각의 성격이 규정된 여러 개의 마당이 딸리게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마당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마당과 방, 또한 각각의 마당끼리의 공간적인 연결관계이다. 한옥에서는 툇마루와 처마공간을 통해 마당과 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대청마루가 각각의 방과 마당을 통합해주는 중간영역이 된다.

대지는 남동향의 경사지로 서해 바다로의 조망이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진 100평 정도의 땅이었다. 건축주는 1,2층 합하여 80여평 규모의 집을 필요로 하였고, 넓은 마당을 유일한 조건으로 요구하였다. 100평의 땅에서 건축주가 기대하는 만큼의 넓은 마당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도 하였고 해서 물리적으로 최대한의 마당을 확보하는 것보다 여러 개의 마당을 설정하

고 이 마당들이 내부 공간을 관통하면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같은 공간을 더 넓게 느끼도록 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주택은 건물이 'ㄱ'자로 배치되면서 그 주변에 앞마당, 뒷마당, 서비스마당 그리고 데크마당(2층)의 4개의 마당을 가지게 되었다.

전면도로에서부터 2.5M정도 계단을 통해 올라오면 앞마당에 도달한다. 이 앞마당은 아뜨리움(계단실-내부공간)을 통해서 뒷마당으로 연속된다. 즉 두 개의 마당이 'ㄱ'자 매스를 관통하여 연결되어서 대지 전체의 폭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뜨리움을 사이에 두고 거실Zone과 안방Zone이 배치되며, 또한 이 아뜨리움을 통해서 1층과 2층 공간이 수직적으로 연결되면서 천장을 통해 하늘로 확산된다. 결국 아뜨리움은 두개의 마당과 1, 2층의 내부공간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해주는 중간영역적 공간이다. 이 공간적 연속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계단



은 투명한 철골계단으로 처리하였고, 외벽과 아프리카의 벽면재료와 바닥재료를 각각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조리실과 다용도실이 면하고 있는 서비스마당은 이 주택의 숨통과 같은 역할을 한다. 거실과 식당공간의 배출구 역할을 하여 시원한 남동풍을 잘 받아들이게 하고, 후면의 벽체는 남쪽 태양을 반사하여 반지하 상태의 조리실을 밝게 비춘다. 앞마당이 내려다보이는 데크마당은 자녀방들이 위치한 2층의 거실인 가족실에 딸린 마당이다. 3면이 벽으로 둘러 싸여 아늑한 느낌을 주면서도 바다로의 조망이 있는 외부가족실과 같은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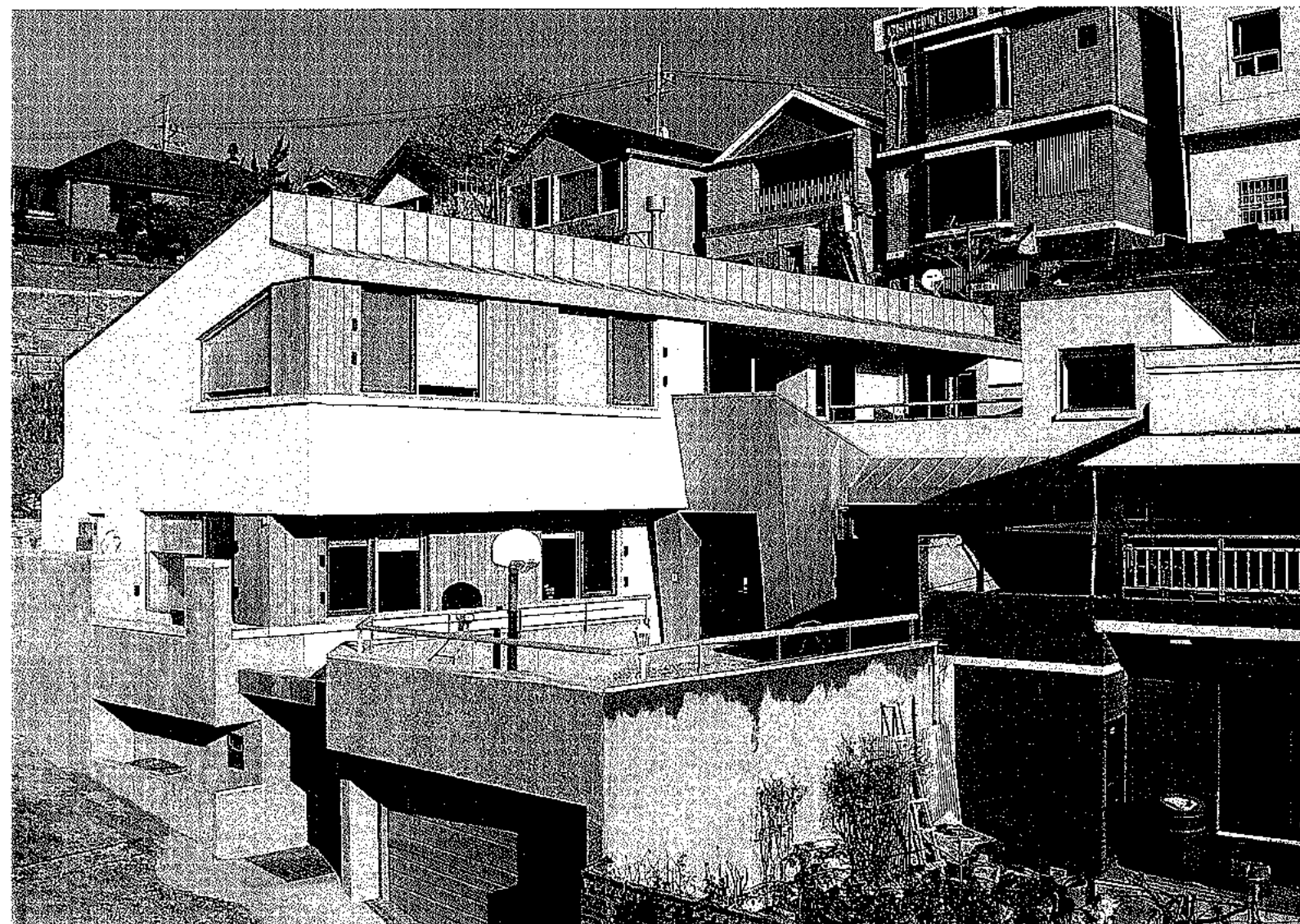
햇빛을 받으면 반짝거리고 하늘을 배경으로 할 땐 푸르스름한 빛을 띠다가도 그늘에서는 육중한 무게감을 띠는 변화를 보여주는 티타늄아연판이 지붕을 감싸다가 부분적으로 벽체로 타고 내려와 지붕과 벽체가 하나의 형태소로 연결되도록 완성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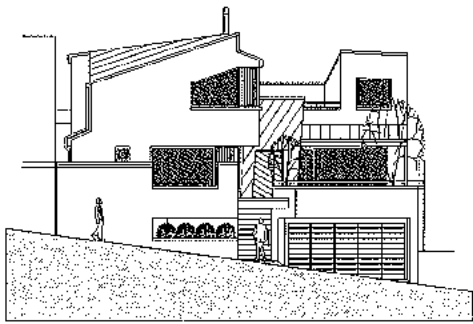
벽체는 청백색의 모노쿠시(천연라임계물탈)로 마감하여 아연판과 어울리면서 건물의 조소적 형태를 잘 유지하도록 하였다. 창호 주

변의 벽체에는 적삼목 사이딩으로 악센트를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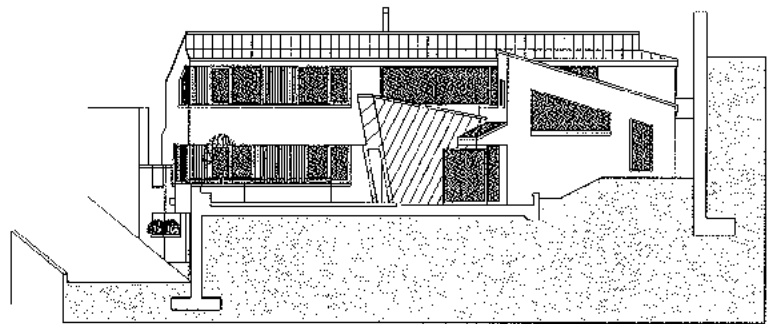
거실Zone과 안방Zone으로 이루어진 1층은 화이트와 월넛색상으로 처리하였다. 바닥 마루널과 문짝 및 문틀과 각종 가구류는 월넛으로, 벽과 천장은 화이트로 처리하였다. 반면에 자녀방들로 이루어진 2층의 바닥은 녹색계통의 채색 목재널로 하고 3개의 자녀방은 각각 파스텔톤의 청색, 녹색 그리고 노란색의 주색상을 정하고 문과 문틀 및 불박이장들을 원색으로 처리하여 밝고 경쾌한 느낌을 주면서 벽과 천장은 역시 화이트로 하여 1층 공간과의 색채 조화를 유지하였다.

건축가의 여러 가지 제안을 잘 이해해주고 설계 초기부터 건물의 완공까지 전권을 위임해준 건축주와 설계도면대로 정확한 시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준 사공자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한다.(글 : 박창근)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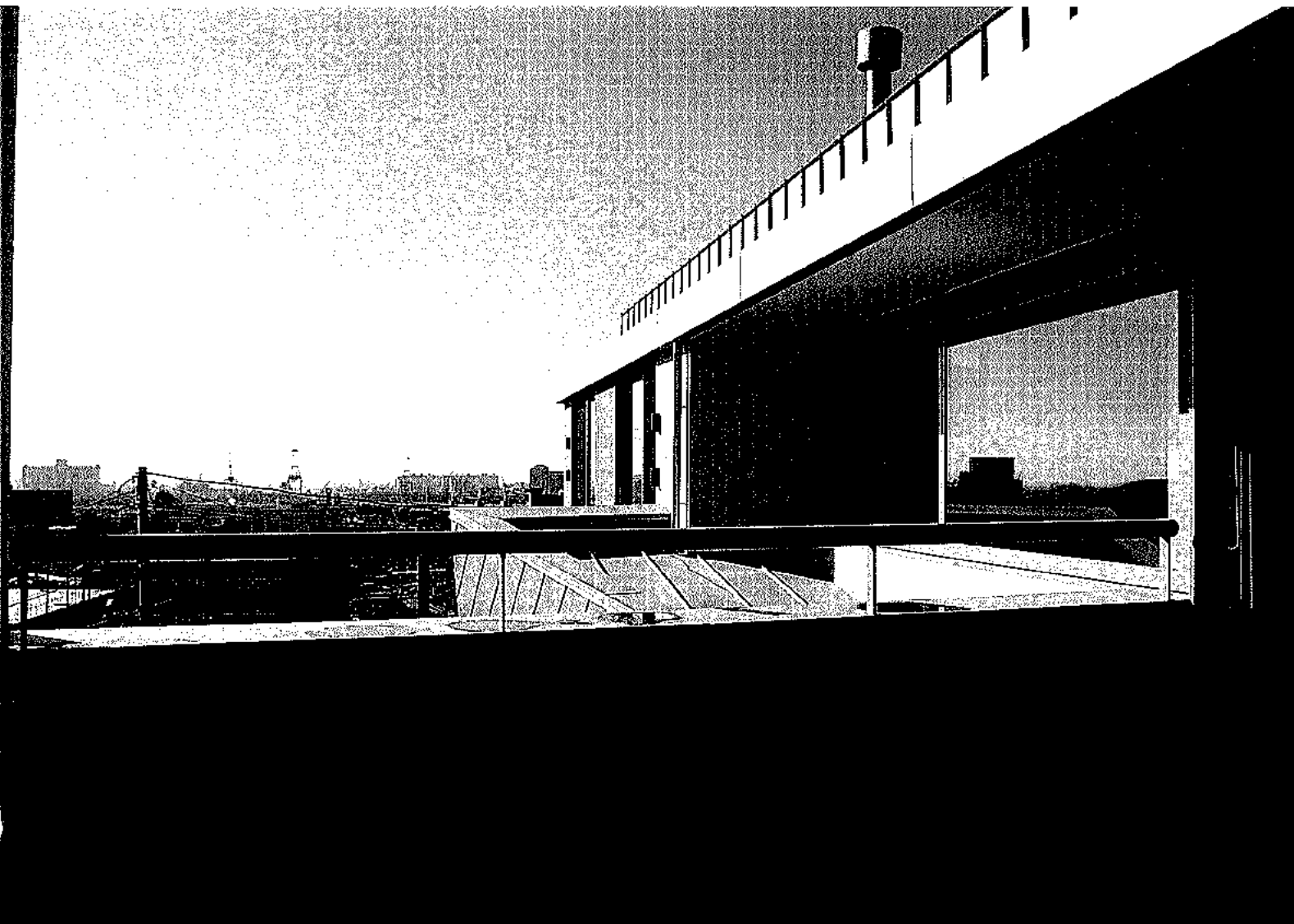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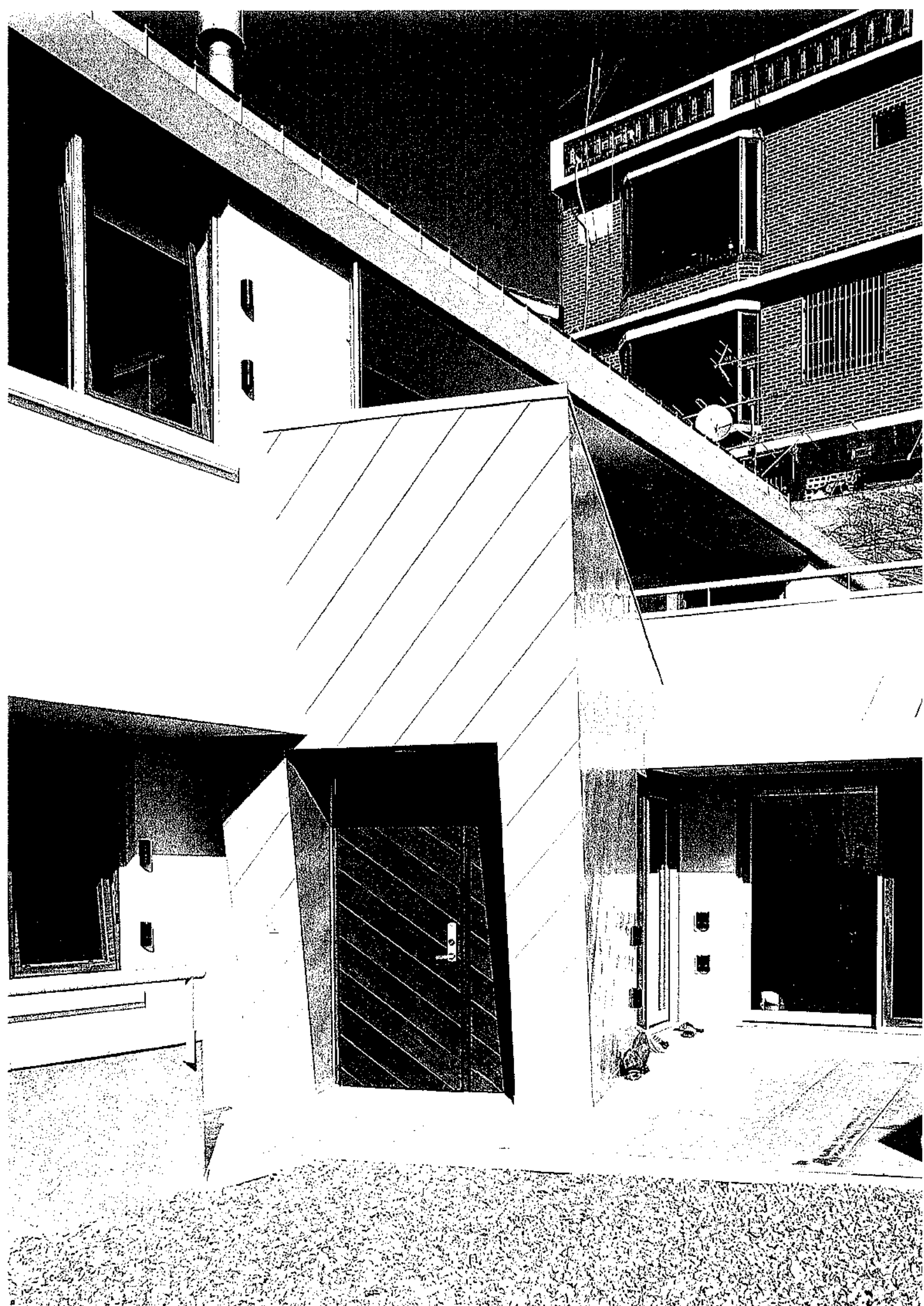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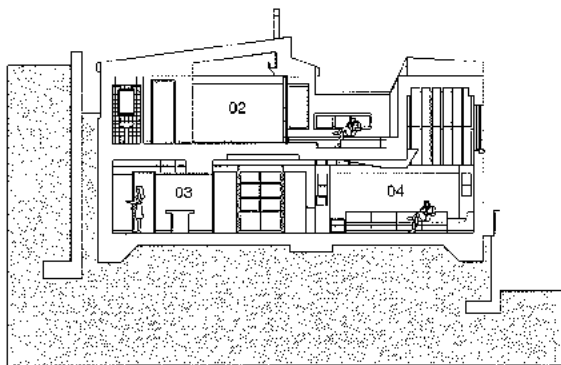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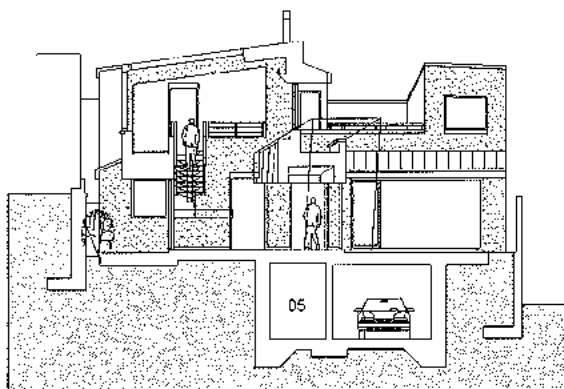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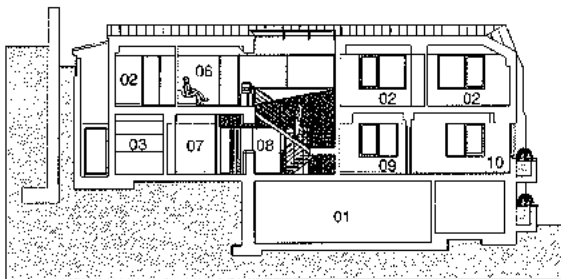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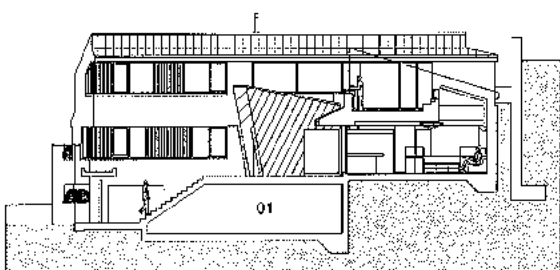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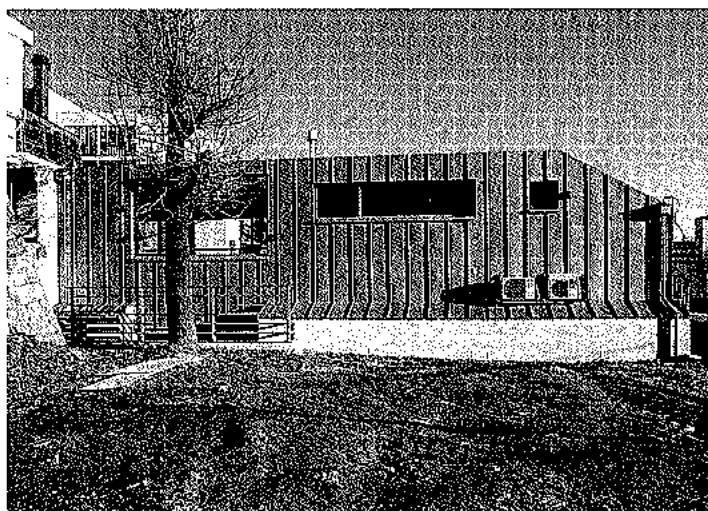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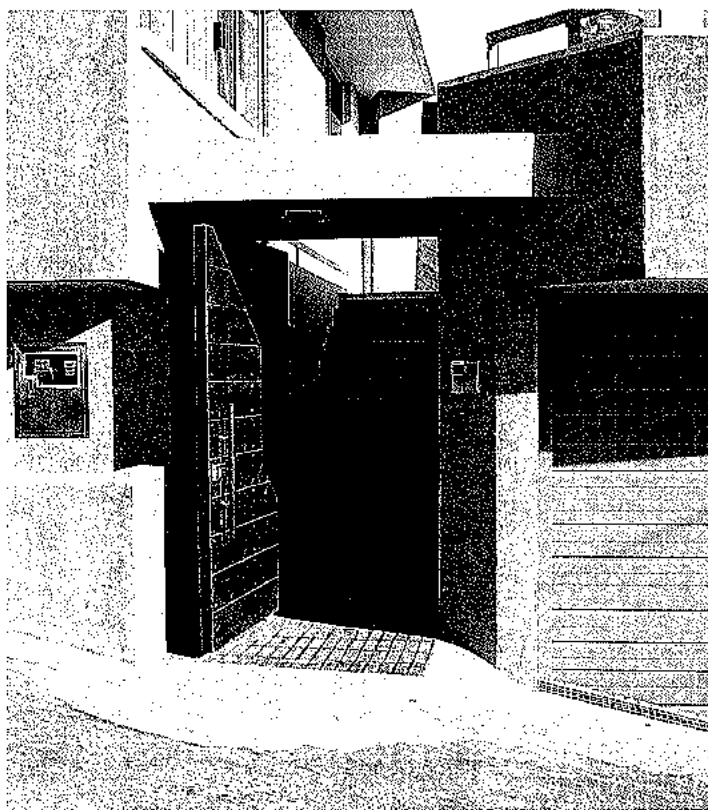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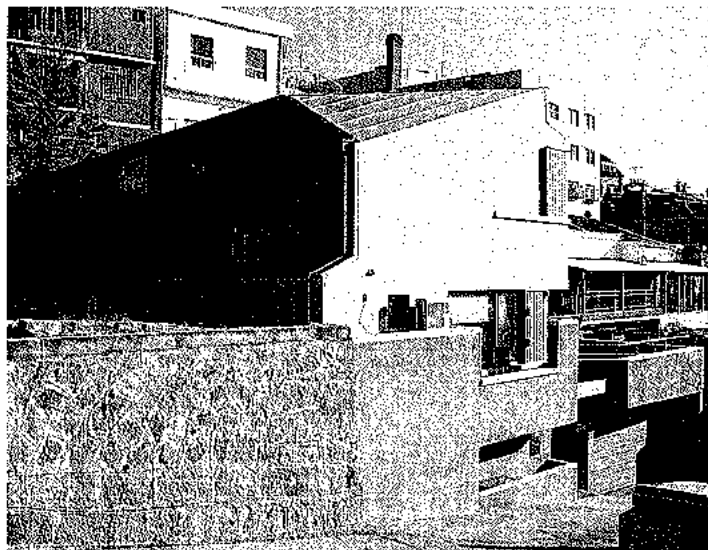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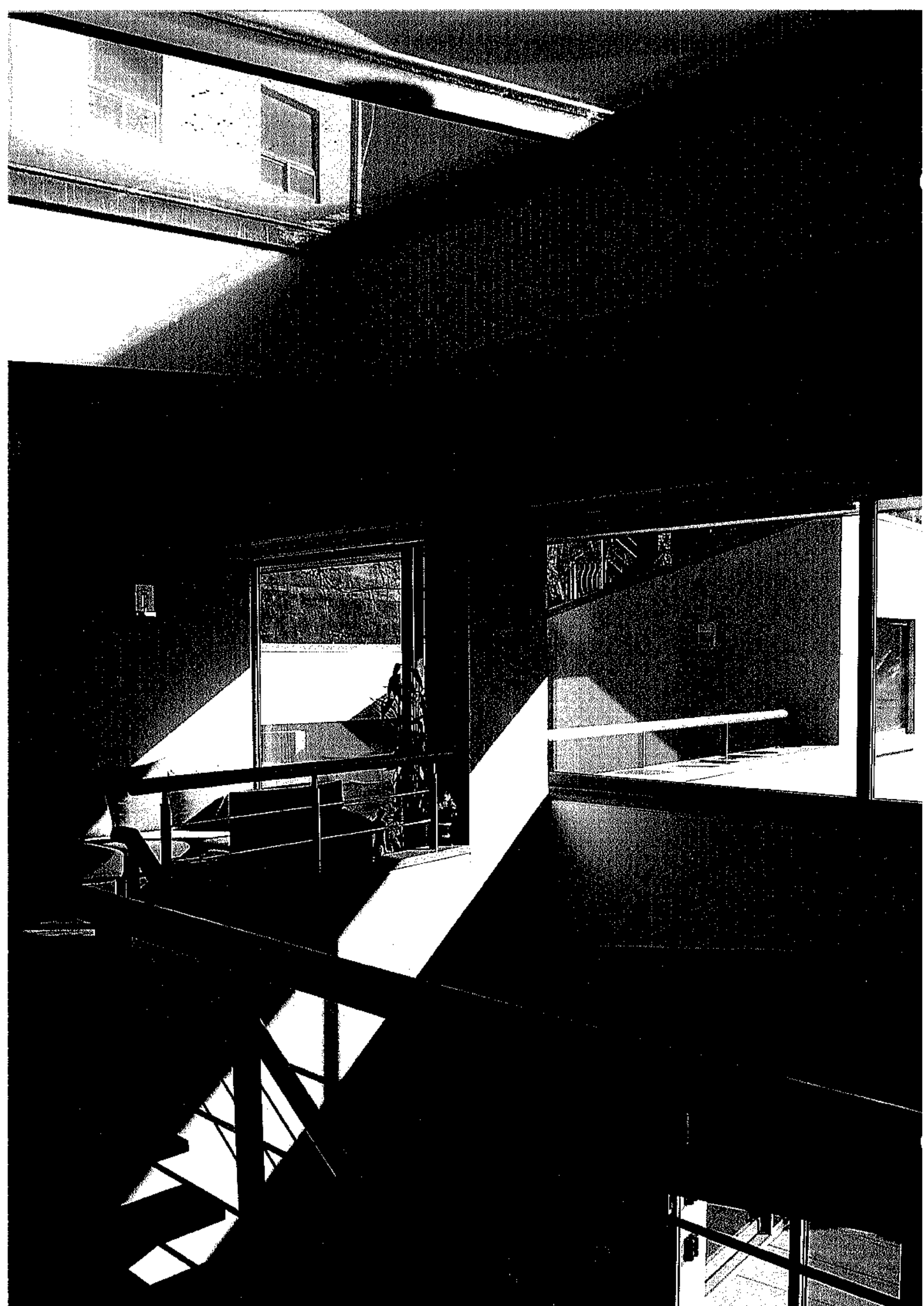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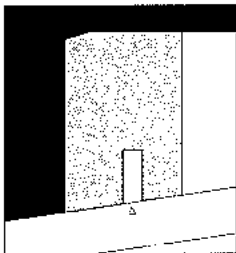
- | | |
|----------|---------|
| 01. 창고 | 06. 가족실 |
| 02. 자녀방 | 07. 식당 |
| 03. 주방 | 08. 여드림 |
| 04. 거실 | 09. 서재 |
| 05. 보일러실 | 10. 안방 |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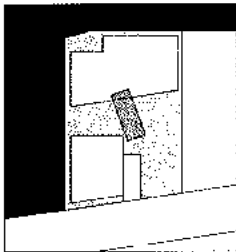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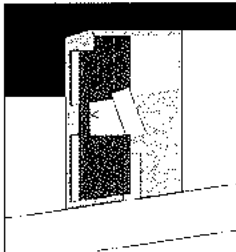
대지로의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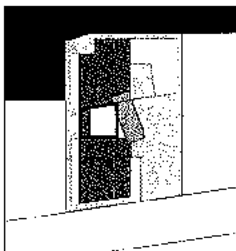
거실Zone과 안방Zone
사이로 마당공간 심투



현판Box의 중첩



아뜨리움 - 1, 2층 공간의 수직적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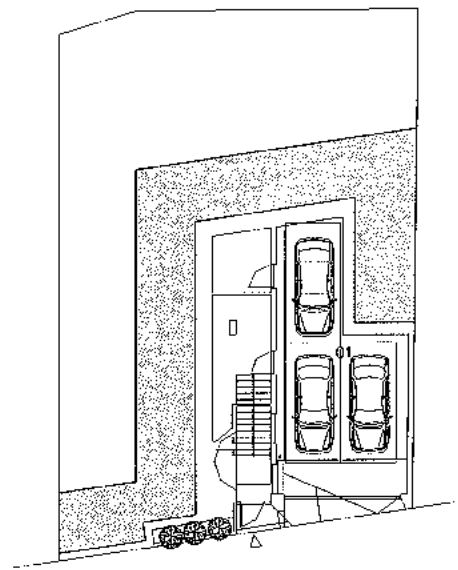
아뜨리움공간 - 하늘로 확산

중첩의 과정 (Suprimposing Proced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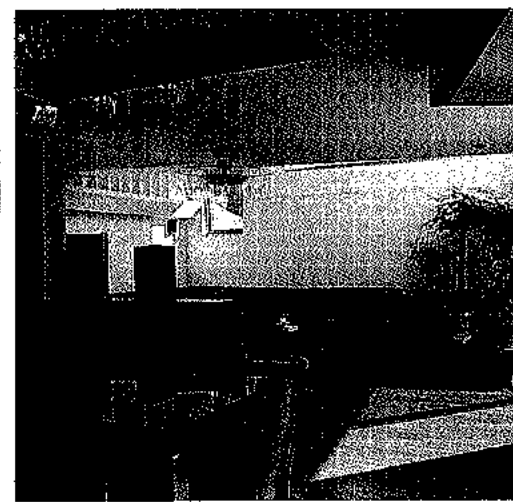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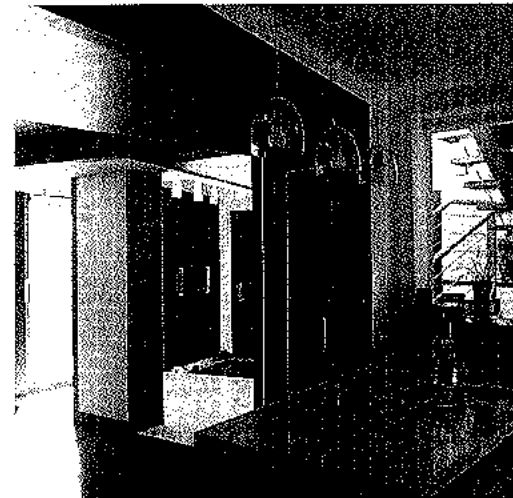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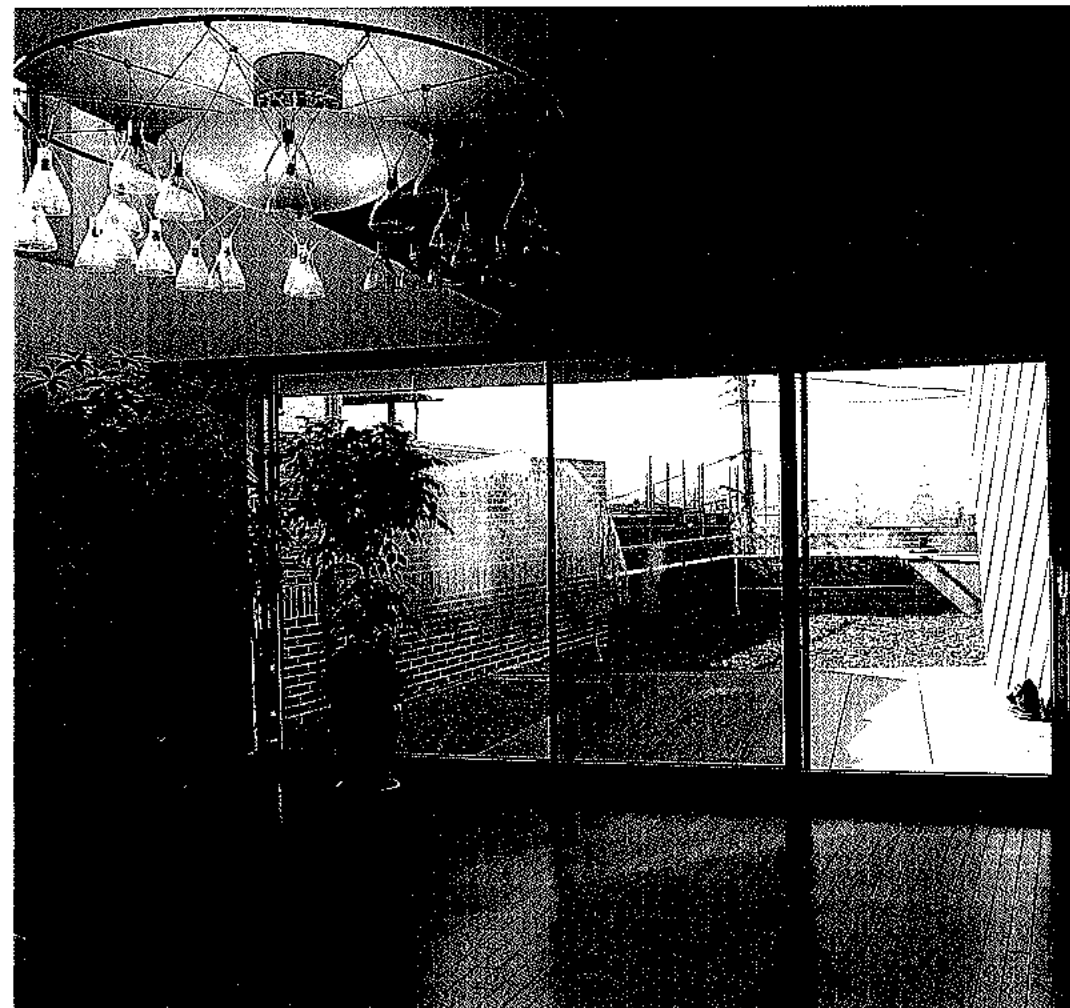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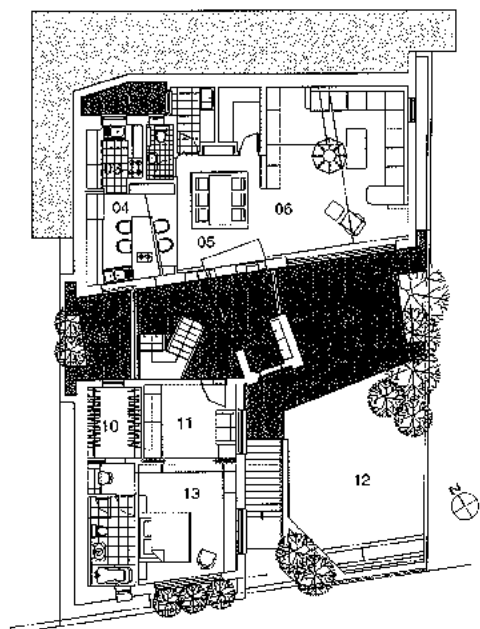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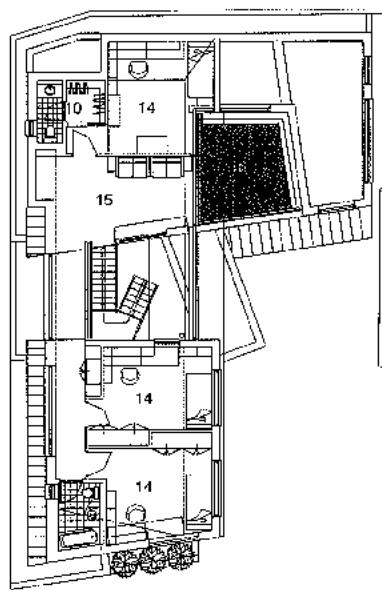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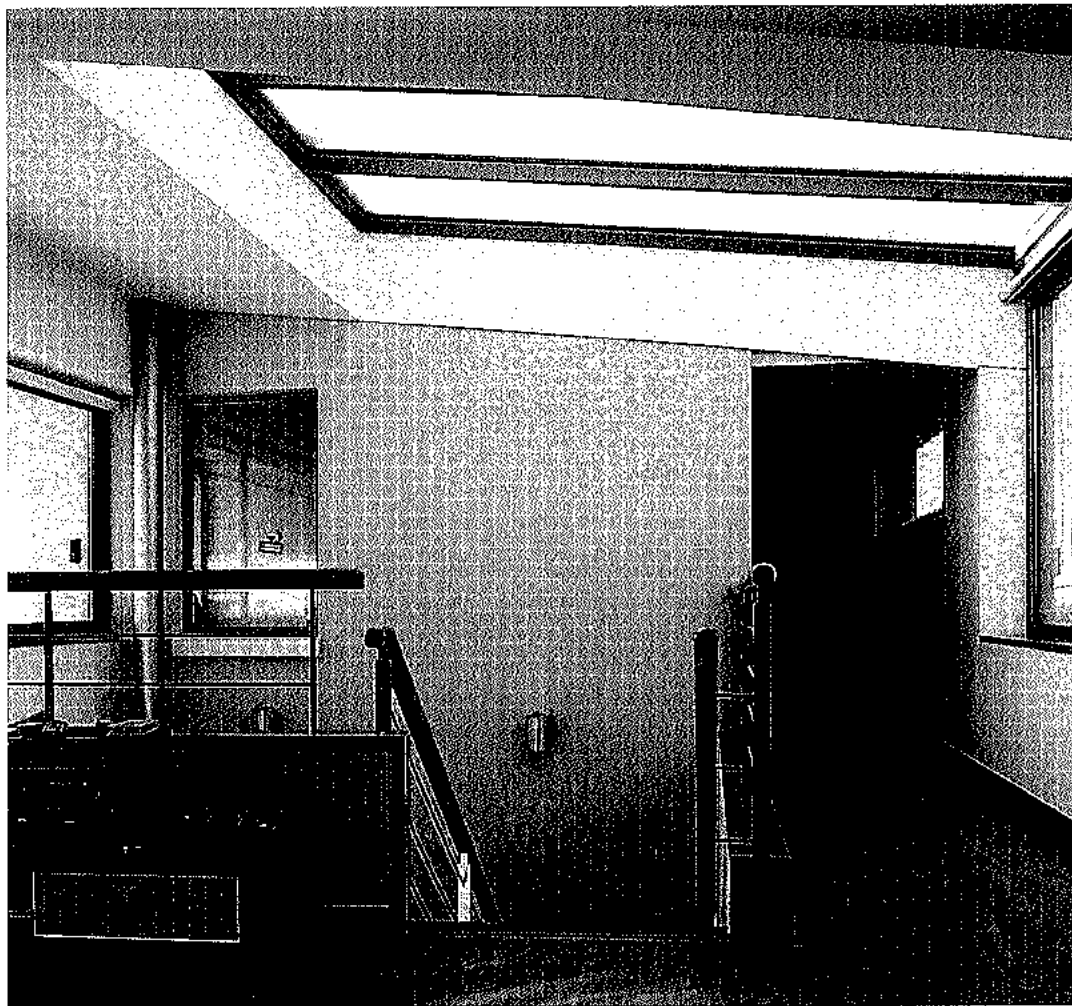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 01_ 치그
- 02_ 서브스미달
- 03_ 조리실
- 04_ 주방
- 05_ 식탁
- 06_ 거실
- 07_ 옷마님
- 08_ 미끄러움
- 09_ 옷마루
- 10_ 옷방
- 11_ 수제
- 12_ 열마함
- 13_ 안방
- 14_ 지너방
- 15_ 가족실
- 16_ 페라스



수유리 녹운당(綠雲堂)

Nokwundang

최찬환 / 서울시립대 교수 + 장영생 / 해원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oi Chan-Hwan & Jang Young-Saeng

건축개요

위 치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지역지구	주거지역, 풍치지구
주 용 도	주택
대지면적	185㎡
건축면적	89㎡
연 면 적	231㎡
건 폐 율	48.1%
용 적 륜	124.9%
규 모	지하 2층, 지상 3층
구 조	지상 - 철골조 지하 - 철근콘크리트
외부마감	지상 - 벽돌 지하 - 노출콘크리트
내부마감	벽 - 벽돌, 바닥 - 온돌바닥 천장 - 합판
사 진	최찬환 교수 제공

기본적인 여건

사람들은 자연의 품을 좋아한다. 어쩔 수 없는 형편이라서 삭막한 도시의 꼭 막힌 좁은 집에서 살게 될 뿐 증일 따뜻한 햇살 비추고 전망 트인 넓은 공간에 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누구나 가진 꿈이다.

이 집은 북한산 기슭의 끝 동네에 높은 대지에 자리 잡고 있어 북한산 국립공원의 넓은 녹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 좋은 곳으로 4면이 시각적으로 트여있는 입지 특성을 가졌다. 원래 오래된 낡은 건물이 있었고,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보강 수선해서 사용할 생각으로 공사를 시작했으나 점차 확대되어 기존 주택의 일부만 남기고 새로 짓는 증축공사를 하게 되었다. 별도 지하층은 본 건물을 완공한 뒤 석축으로 된 옹벽을 철근콘크리트 옹벽으로 공사하면서 대지내 공지에 추가로 설치한 후 본 건물과 계단으로 연결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고 추가공사로 설계 변경한 것이다. 상황이 그러하였으므로 기존주택의 구조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계획할 수 밖에 없었고, 대문과 현관, 인방, 부엌, 화장실의 위치 등은 그대로 두고 내장을 손보는 것으로 하였다.

설계자=시공자=사용자

건축은 원래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가 상호 역할분담을 하면서 이뤄지는 것인데 이 집은 건축주가 설계자가 되고 직접시공을 하였으니 일반적인 주택과는 다른 특이한 점이라 하겠다. 오랫동안 살았던 집도 몇 차례 증축한 경험이 있어 처음에는 손수 해보겠다고 연장을 들고 시작한 것이 공사가 크게 벌어지다보니 어쩔 수 없이 기능공을 불러들였고 모두 일품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그리고 도급공사가 아니어서 시간을 줄이려고 허겁지겁 대충하는 공사는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건축 전문가로서 자기 집을 짓는 마당에 실험주택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 이것저것 시도하다보니 시간이 한없이 지나게 되었다.

주택하나 짓는데 2년 반이나 걸렸으니 보통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기도 하다.

요즘은 단독주택에서 살다보면 마당 넓은 저택이 아닌 한 옆집에서 다가구주택, 다세대 주택을 짓게 되면 동네는 갑자기 왁자지껄 해지고 시각적 프라이버시도 없어져 단독주택의 맛과 멋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다 보면 단독주택을 새로 짓는 경우도 적고 기존의 단독주택을 헐고 어쩔 수 없이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짓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도 하다. 이집은 대지가 가진 입지특성으로 인해 이와 같은 우려는 전혀 없고 막힘없이 좋은 전망을 가졌다는 점에서 창이 많고 또 창이 넓은 집을 짓게 되었다.

구조

골조는 철골 I형강을 사용했는데 동네사람들이 큰 빌딩이나 짓는 것으로 오인하고 의아해 하기도 했다. 조적조의 한계를 벗어나 자유로운 평면이나 창 넓은 집을 만들기 위해 주택에 철골조로 하는 것도 하나의 새로운 시도였다고 본다. 요즘 스틸하우스, 모델하우스 등에 실험적으로 짓거나 홍보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구의 목조 주택인 2"x4"공법을 철재로 대체한 것이고 조적벽식에 가깝고 가구식 철골 구조의 주택은 거의 없거나 회소할 것으로 생각한다.

철골조는 기둥과 보로 되어 벽식구조와는 달리 평면의 융통성과 가변성이 많은 점이 특색이다. 기왕지사 철골조로 한 바에야 철



과 유리로 된 현대적 감각의 주택을 만들까도 생각했다. 그러나 집 안에 오랫동안 취미로 수집하여온 우리나라 옛날 가구나 물건들을 두어야 하므로 현대적인 것보다 고전적인 품격을 가진 집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여 고심 끝에 결정을 하였다. 또 주변지역에는 자연녹지가 풍부하고 벽돌조적식 주택이 있는 동네라 함께 어울리게 하는 쪽으로 기단을 잡고 철골기둥은 벽돌로 다시 둘러싸고 철골보는 나무로 감싸서 외관상 보기로는 벽돌 조적조에 큰 나무보를 사용한 집 같이 되었다.

벽돌과 줄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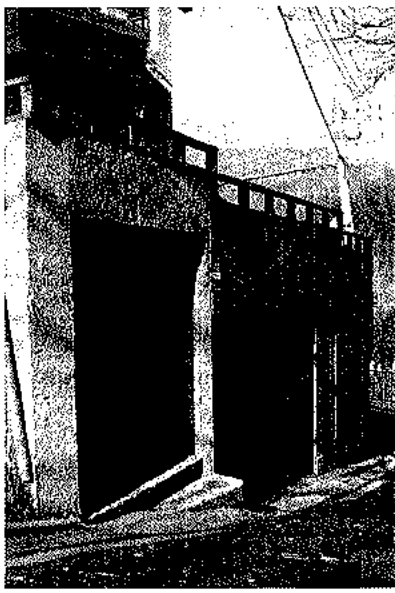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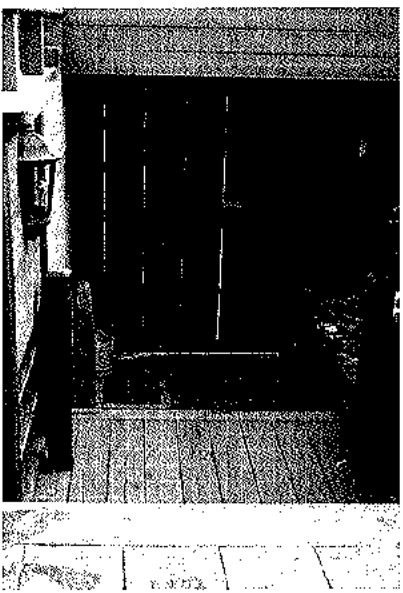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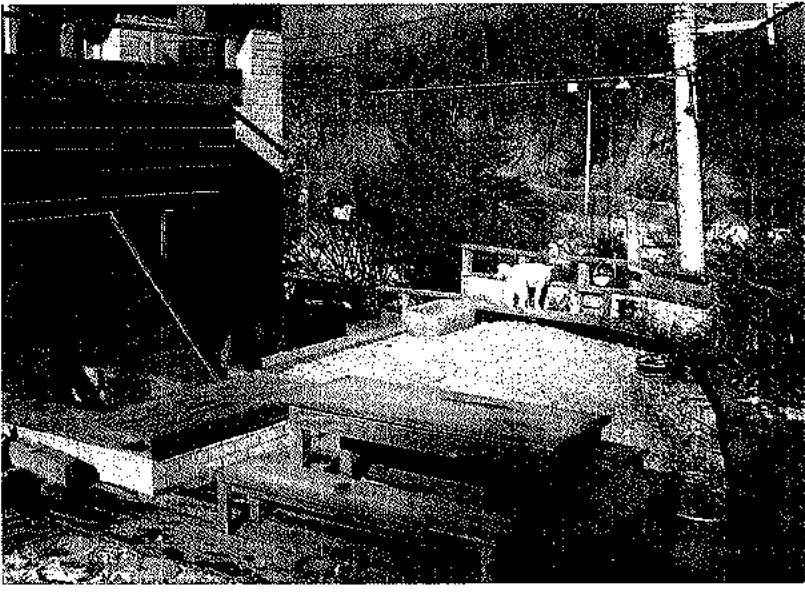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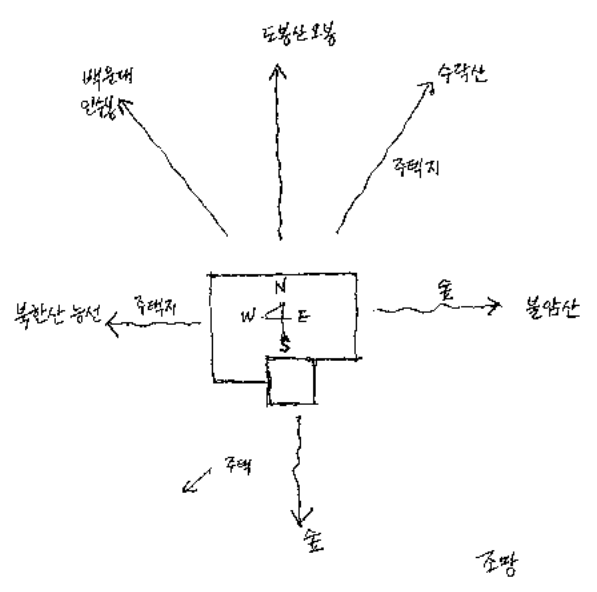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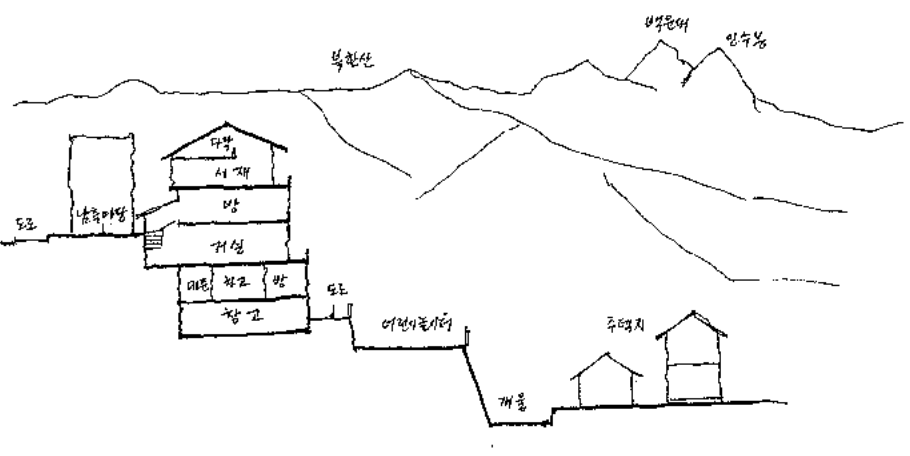
벽돌은 정말 선정하기가 쉽지 않아 국내 생산되고 있는 여러 제품을 물론 외국벽돌을 사용해 지은 집도 보았으나 여러 날을 보낸 끝에 「우성벽돌 사갈 300」으로 하기로 하였다. 이 벽돌은 여러 해 전에

처음 만들었으나 한번도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 처음 생산된 벽돌 모두가 고스란히 공장에 아적되어 있었는데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이집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벽돌을 사용한 집이 되었다.

벽돌을 올려놓은 목재 받침대가 색이 지게차가 벽돌을 싣고 내리기(上下車)가 어려울 지경이었다. 그런데 벽돌 표면이 거칠고 굵은 모래같은 질감 있는 알갱이와 구멍이 수없이 있는데다 색깔도 연한미색을 띄고 있으니 점토의 붉은 벽돌에 길들여진 사람들에게는 생소하기도 하고 몇 장의 벽돌 견본을 보고 쉽게 결정해서 쓰기가 어려울 법도 하였다.

결국 팔리지 않은 실패한 제품을 뭉땅 재고 처리한 덕분에 원래 벽돌값 보다 할인해서 구입할 수 있었다. 몇 만장의 벽돌을 내외장재료로 모두 쓰고 지금은 비상용으로 6장을 남겨놓았으니 정말 벽돌량에 맞추어 집을 지은 것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앞으로 수리가







있을 경우 어려움이 따를 것 같다. 그리고 벽돌줄눈을 맞추는데도 여러 날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시험으로 발라놓은 샘플을 보고 의견을 취합하여 결정하였고, 아주머니 전문기능 인력이 꼼꼼하게 줄눈을 시공하였다. 건물이 완공된 후 많은 사람들이 벽돌 선정과 줄눈이 마음에 든다는 말을 듣고 고심 끝에 시간을 보낸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바닥구조

바닥슬라브는 철재 KEM DECK plate를 사용하였는데 쓰고 보니 건축구조(특히 철골)를 전공하시는 김동규+음철환+문태섭(KEM) 교수님이 개발한 제품이라 뜻이 있었다.

3층 서재에 온돌 위에 전통적 원목 우물마루로 하는 것을 생각하였는데 계단과 계단참 부분에 원목을 사용해 보니 시간과 비용이 워낙 많이 소요되어 포기하고 온돌마루로 하였다.

두꺼운 원목은 두툼한 질감과 나무결 그리고 전통우물마루의 구성, 탄력 등이 너무나 매력적이지만 파이프 온돌위에 합판을 접착하는 온돌마루보다 열전달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일정한 마루 공간을 띄우고 환기구나 틈새구멍으로 대류난방하는 방법을 계획하였는데 실현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주방작업대와 후드 및 등

주방의 싱크대와 후드에 관한 것인데 주방 작업대는 벽돌을 쌓고 선반을 걸고 그 위에 상판을 주문 제작해 설치하는 현장 맞춤형을 택했다.

기성제품이 워낙 비싸고 또 막힌 구조라 부엌기구도 전사품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선반으로 노출하는 식으로 제작하였으며, 후드는 동판을 접어 설치하고 부엌의 각종 동기구도 모두 손수 제작한 것인데 옛날 목가나 램프 등에 전구를 넣어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 흔히 볼 수 있는 부엌이 아닌 특색 있는 부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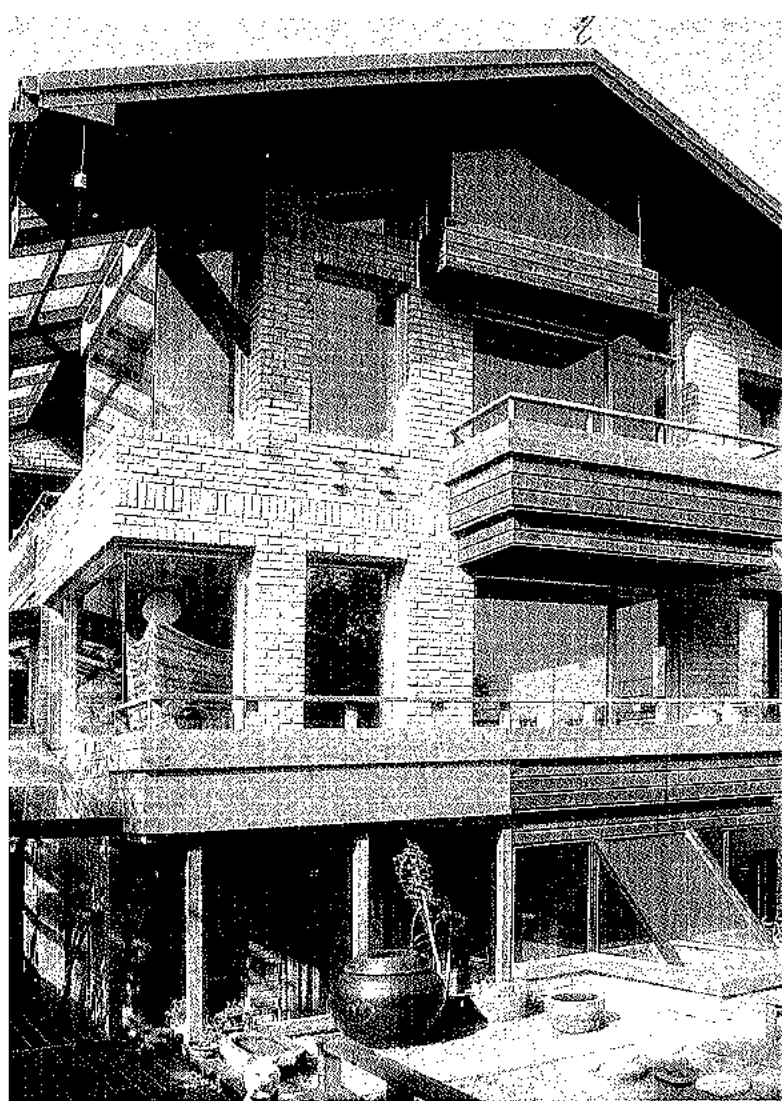
식탁과 찬장

식탁과 찬장 대신 부엌의 식기 수납장을 만들었고 식탁은 옛날 툇마루를 손질해서 나무결을 그대로 살리고 다리를 달았으며 중간선반을 두어 각종 비품을 놓을 수 있게 하였다.

식탁은 항상 물건들이 놓이고 이를 치워야 하는데 선반이 있으니 정말 편리하다고 느끼고 있다. 기성 식탁도 상판 밑에 이런 수납선반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세면대와 욕조

세면대는 기성 도기 제품을 사용하기보다 강화유리나 목재에 스테인리스 볼을 넣는 것을 생각하였고, 결국 내수재료가 아닌 나무로 하게 되었다. 원목나무판에 세면대를 끼워 넣은 셈인데 부엌에 도마도 나무로 만든다는 생각이 있었고, 방수도료가 있으니 잘 관리하면 몇 십년은 무난히 쓸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는 나무판을 새로 갈아 끼우면 쉽게 된다는 생각이어서 나무판 세면대가 특별 제작되었다.



목조는 땅을 파고 콘크리트를 천 후 대리석을 발라 현장 제작하였다. 보온문제를 철저히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기성 목조보다는 좋은 것 같다.

대문과 문짝

대문은 고심 끝에 전통적 옛날 대문을 구해서 달았는데 고풍스런 철물과 오래된 나무결이 분위기를 자아내어 새로 만든 목재 대문이나 철재 대문보다 훨씬 나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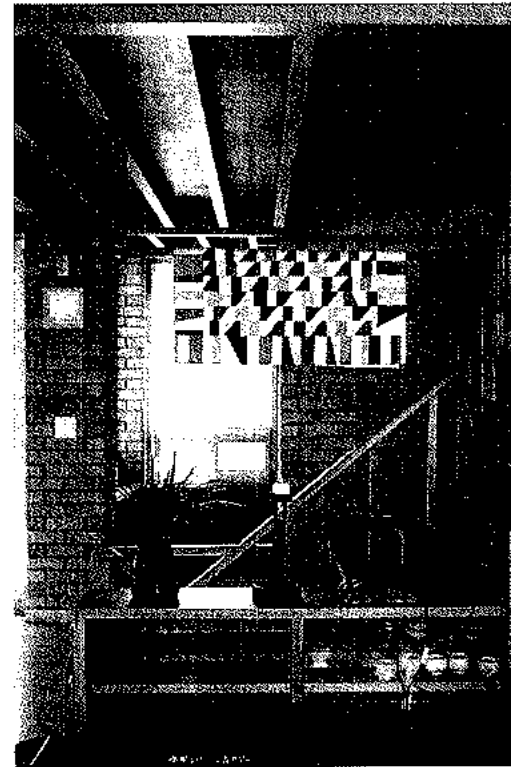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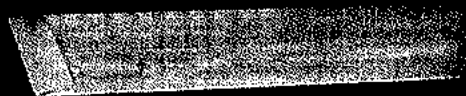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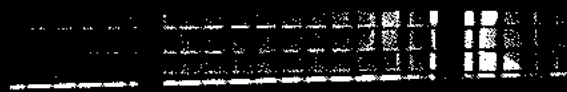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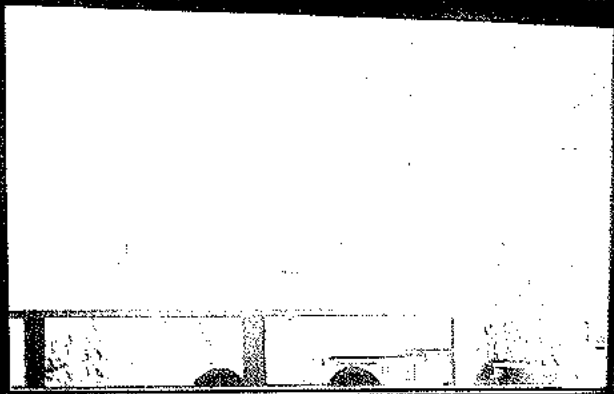
또한 몇 개 방의 출입문은 옛날 전통 문살의 문짝을 구해서 문에 맞추어 문틀을 짜고 창호지를 발랐다. 꼭 기밀성을 필요로 하는 방이

아니라면 옛날 문짝이 운치도 있고 창호지를 통하는 밝음 때문에 합판으로 막아 어렵게 치폐하는 문짝보다는 좋을 것 같다.

지붕과 창문

지붕은 단순화 된 박공으로 하되 처마길이를 길게 하여 뚜껑을 강조하는 시각적 효과와 비에 대한 대비를 하였으나 일조와 채광을 위해 일부를 유리로 함으로서 상반된 두 가지 요소를 절충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시도하였다.

처마가 길어도 그리고 짧아도 가지게 되는 서로 다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심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다. 난간은 많은 생각 끝



에 한옥 난간을 연상할 수 있는 나무로 하되 의자처럼 앉을 수 있는 수평 길이를 두어 등받이 모양으로 된 부분이 난간으로 인식되도록 하여 높이를 낮추면서 안전성과 실용성을 가지게 했다. 지나친 난간 높이는 건물의 외관을 나쁘게 하는 것이어서 이것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좋겠다는 평소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다.

작업생활에서는 낮은 창문높이가 요구되며 단지 벽과 창문이 이어지는 단순한 구조에서 창틀 부분을 수납공간으로 활용하여 창틀의 폭을 넓힘으로서 시각적으로 두툼한 느낌과 함께 소품의 진열, 전시와 벽체의 보온 단열, 그리고 수납공간의 확보 등 기능적으로 다목적인 효과를 기하도록 했다. 지붕공간의 활용을 위해 부분적으로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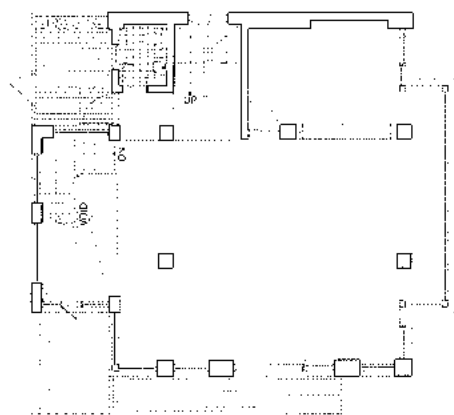
락을 설치하고 이를 철골보에 와이어로프로 매달아 기둥 없이 뜬 구조로 하고 계단 아랫부분은 예외 없이 수납공간으로 하는 등 자투리 경사공간도 철저히 활용하였다.

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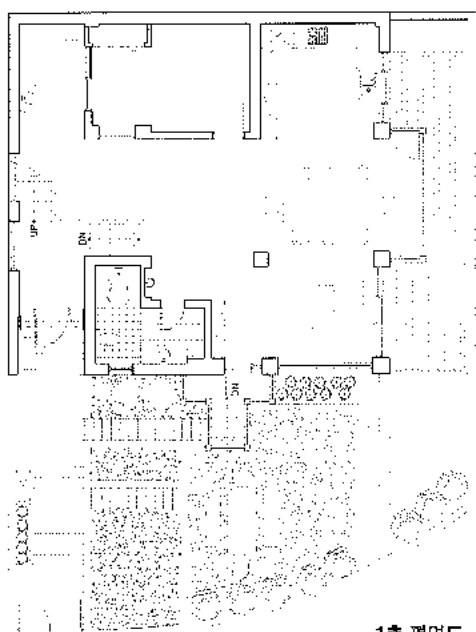
옹벽과 지하부분의 지붕이 마당으로 쓰이게 되어 멧돌과 자갈 그리고 목재 DECK를 적당히 섞어 야외 의자와 요리할 수 있는 가구와 작업대 등을 두고 둘레에는 야생화를 심어 찰따라 우리들 꽃이 단아하게 피는 작은 인공 뜰도 두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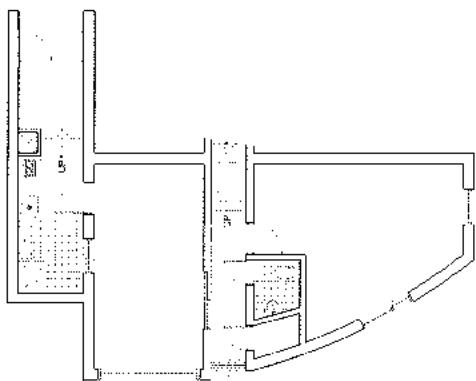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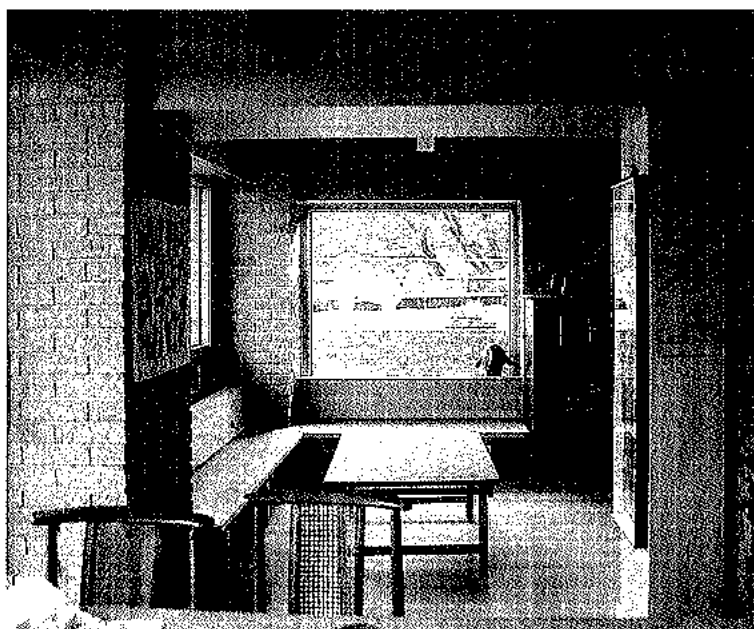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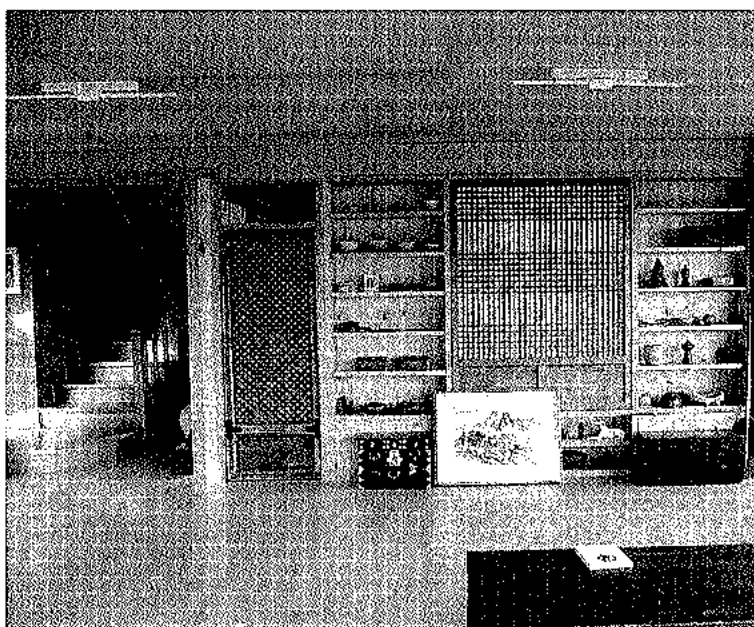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 Grand Hilton Hotel Convention Center

(주)정림건축
Designed by Junglim architecture

건축개요

위 치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201-1와 3필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4종미관지구
용 도	숙박시설
대지면적	39,101.00㎡
건축면적	4,942.14㎡
건 폐 율	48.57%
용 적 륜	194.04%
규 모	지하 4층, 지상 4층
최고높이	21m
구 조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주요설비	전공기공조방식
구 조	창 · 민우구조
기 계	(주)정도설비
전 기	(주)정우종합기술
시 공	(주)풍림건설
건 축 주	동원ENC
사 진	건축사사무소 재공

(2002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부문 입선)

가하학적인 질서체계 순응

v자형 배치에 모서리의 정면성을 강조하고 있는 호텔 본관동에 v자 형상을 역으로 전환시킨 증축동을 근접 배치시켜 기존 호텔동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서 기존 호텔동 주 출입구의 진입성과 정면성을 강조하였고, 기존 아파트먼트 호텔동과 최대한 이격시킬 수 있게 되어 단지내 진입시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진입공간은 특급호텔의 시각적 풍요로움을 강조할 수 있는 조경부지로 활용하였고, 기존 대지에 사용하였던 금잔디와 수목을 설치하여 기존 녹지 공간의 흔적을 찾아주고자 하였다.

기능연계 강화

기존 호텔의 라운지 및 연회장과의 동선을 연계시키고자 호텔 본관동과 연결되는 브리지를 설치하여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건축주에게 수익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효과를 부여하였다. 또한 증축동의 각 층 레벨은 기존 본관동의 레벨과 유사하게 설정, 기존 시설들(기계실, 전기실, 주차장)이 관리 차원에서 연계가 가능하도록 배려하였다. 기존 본관동의 메인 주방과 증축동의 주요 후방시설의 연계는 편리한 서비스 기능을 확보하

는데 주요한 사항이므로 최대한 근접 배치시켜 대규모 행사시 신속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기존 호텔의 주차장과 증축동의 주차장을 연계시켜 주차부하에 따라 상호 주차장이 가변적으로 분리, 통합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극대화시켰다. 또한 주차램프는 대규모 주차에 적합한 일방향 직선램프를 설치하여 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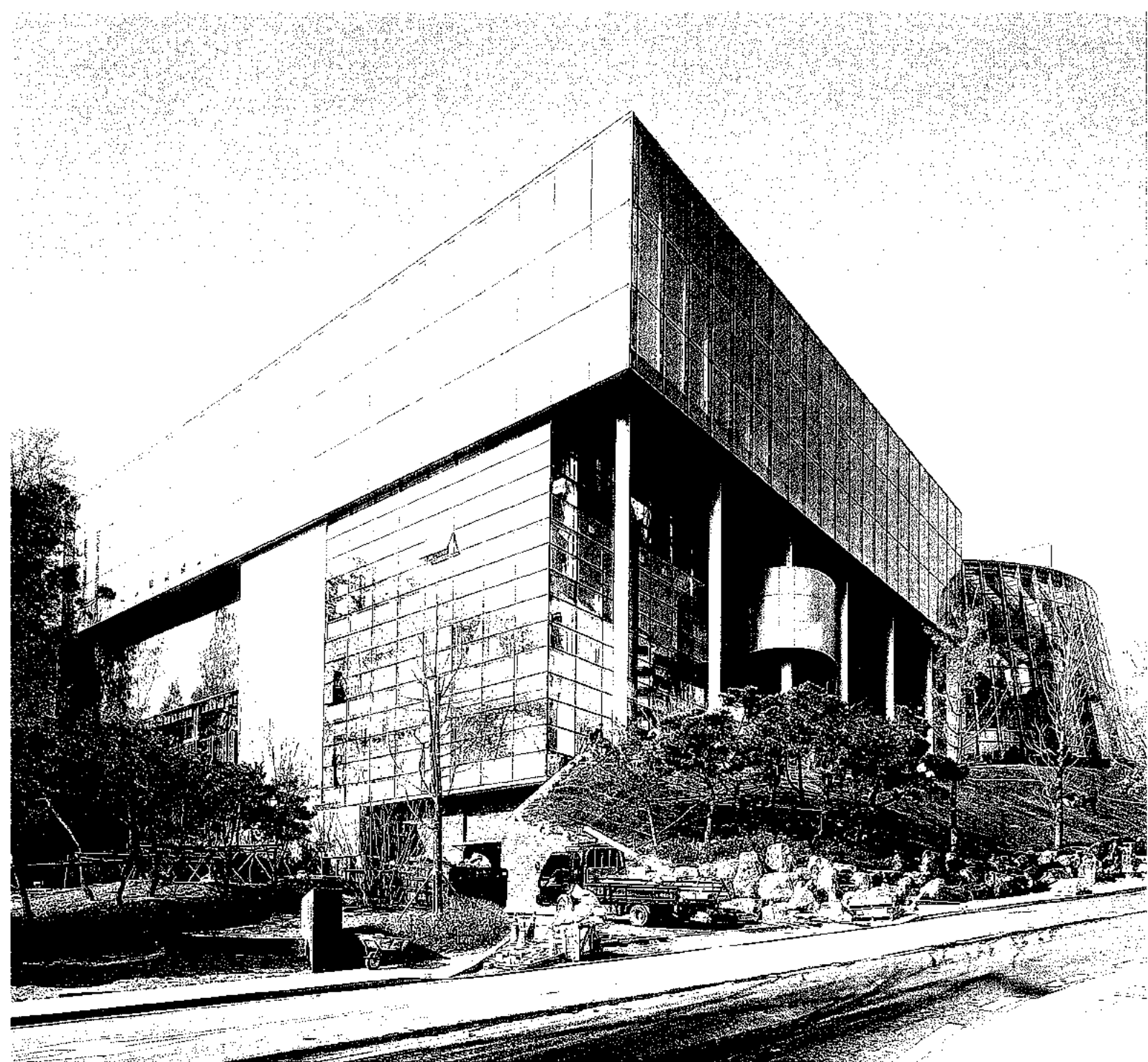
기능의 배분

계획안은 국제회의장, 다목적 연회장 그리고 아케이드를 갖춘 다목적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구조시스템과 명확한 동선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대전제였다. 요구된 프로그램의 수평적 배분은 크게 두 개의 커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배치상의 역 v자형 프레임틀을 기준으로 호텔 본관 동측에는 서비스 및 연계 기능들을 배치시켰고, 정면측은 실사용 용도들을 배치시켜 대지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자 하였다. 또한 무주공간을 필요로 하는 국제대회의장을 최상층에 위치시켜 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사용자 규모에 따라 수직적으로 공간을 배분하여 구조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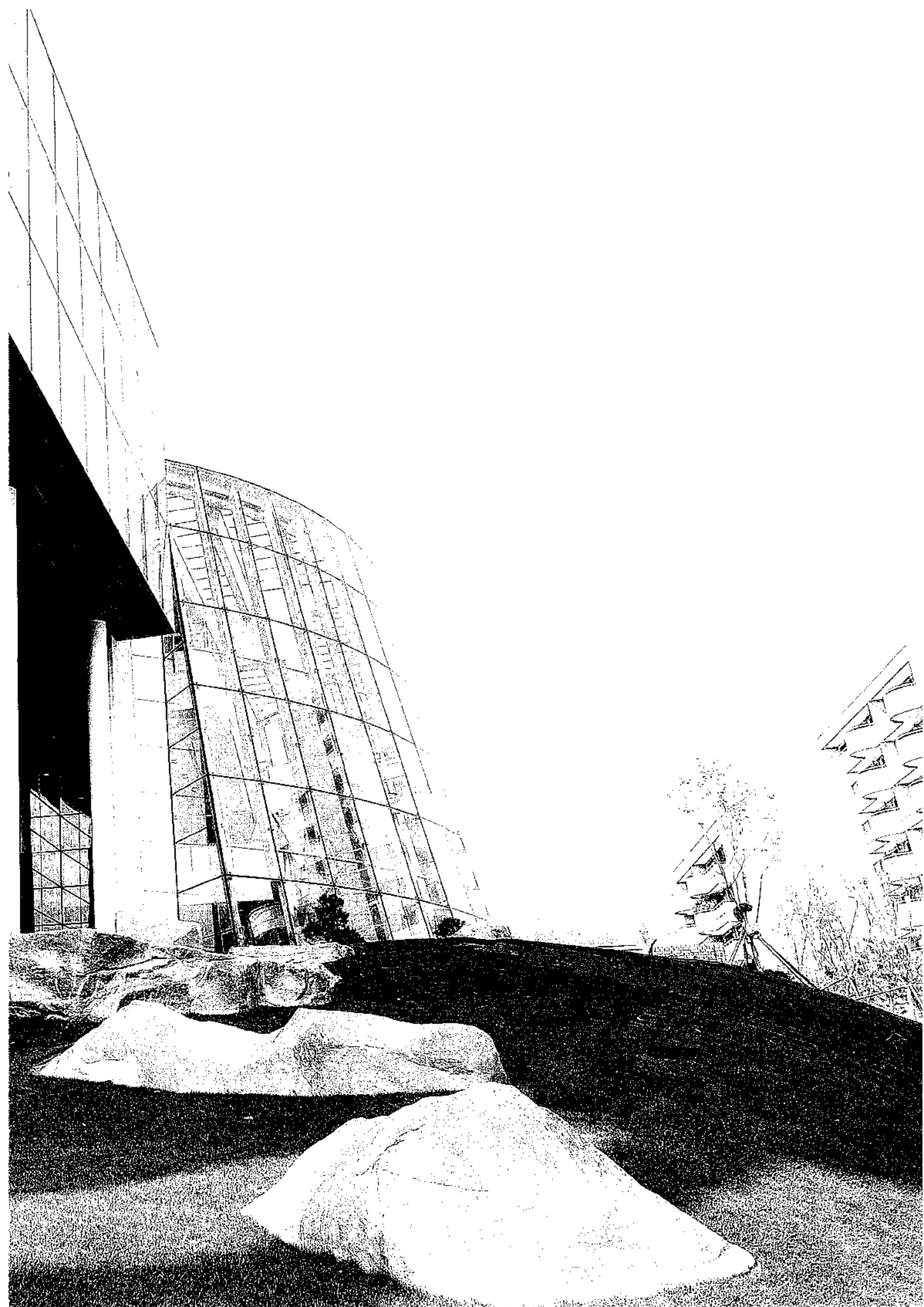
형상과 배경 사이의 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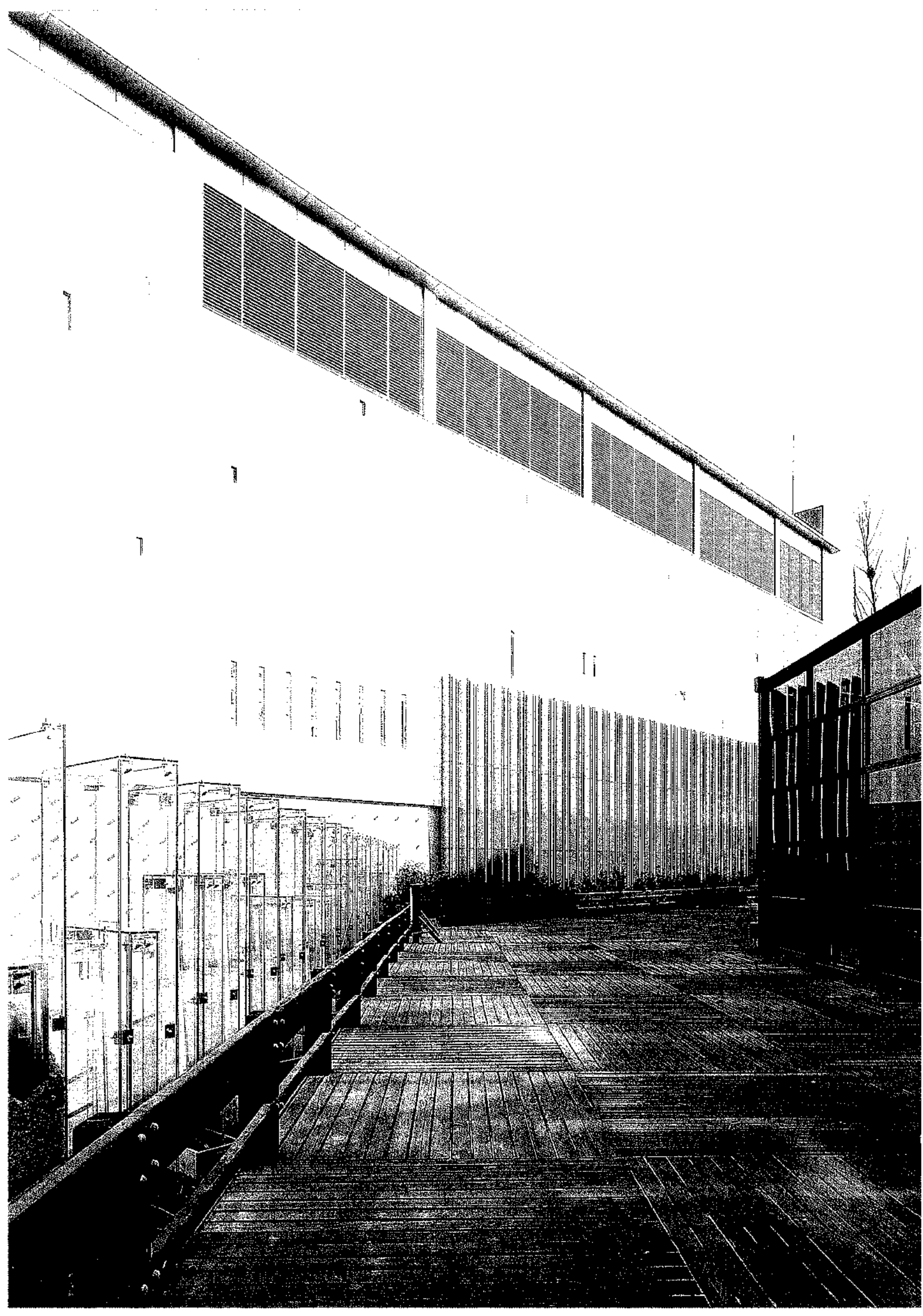
투명성을 강조하는 배경으로서의 유리 입면은 호텔동과 증축동 사이에 있는 하나의 얇은 막으로 작용될 것이다. 투명 유리를 통해 보여지게 되는 내부 입면은 총별로 상호 다른 내부 장치물로 인해 공간의 깊이감을 갖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규칙과 불규칙한 혼란이 외부로 표출되어 자유로운 변화감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입면상에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생략하여 주변의 무거운 건물들과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어렵지 않은 어휘들을 주로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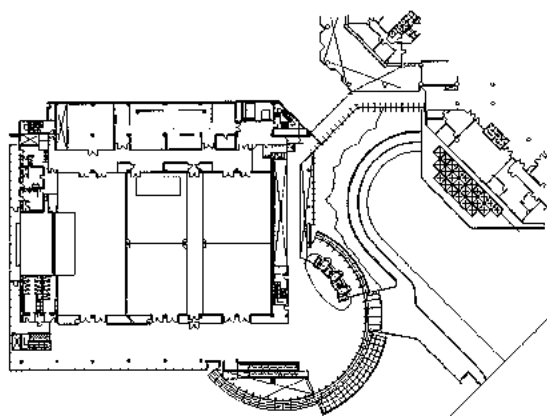
대체적으로 당선 이후의 계획안은 초기 현상안의 큰 골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전개되었으나 지하수 위 레벨로 인해 건물 전체가 지상으로 한 개 층 정도 벗어난 점이 아쉽다. 초기의 비어진 땅의 아름다움을 되찾아줄 수는 없었지만 유리상자와 같이 맑고 경쾌한 분위기가 주변 환경의 무거움을 다소 해소해 주며,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기쁨의 장소가 되길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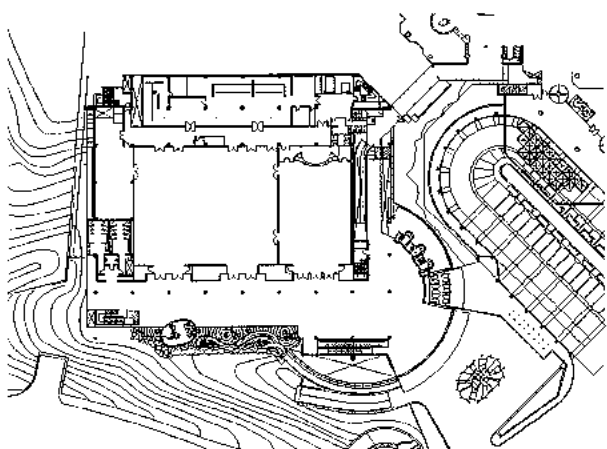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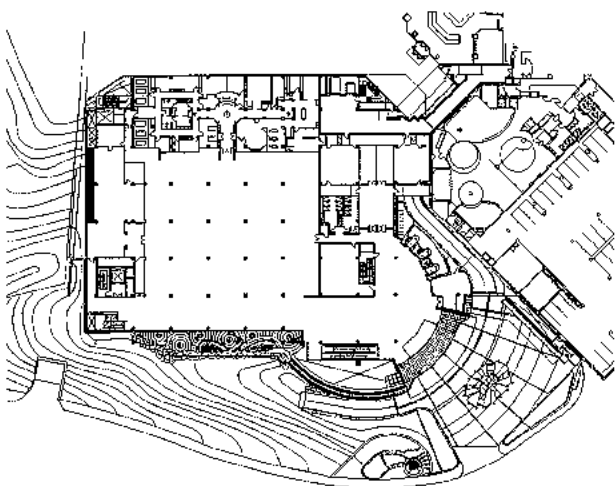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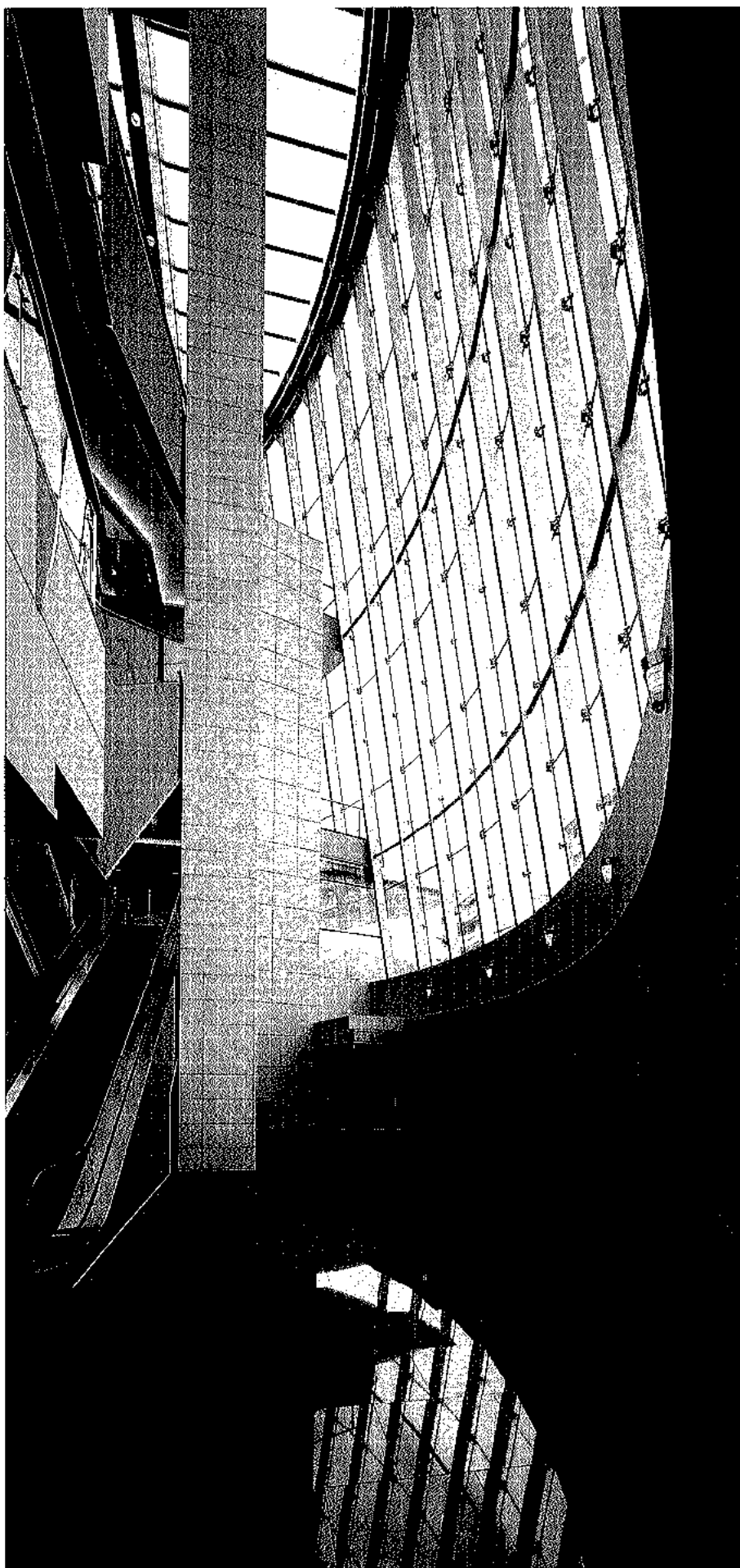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성남시 화장장

Sungnam City Crematori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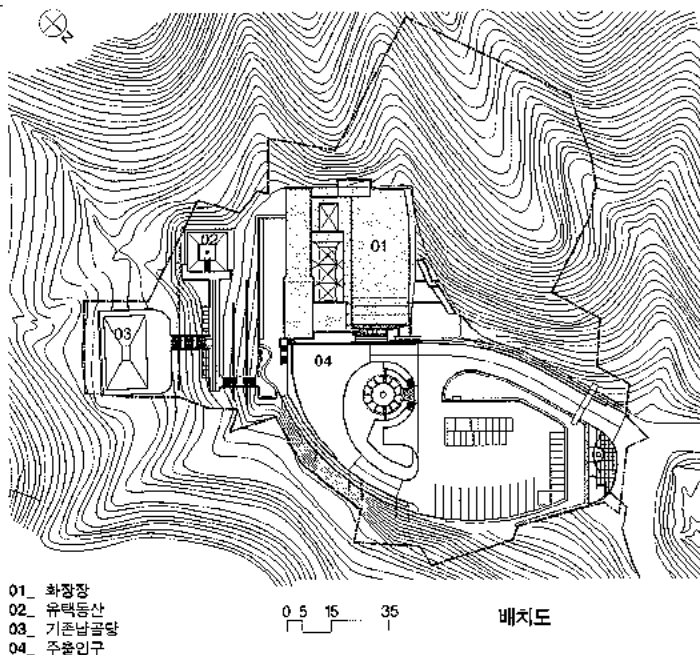
이상림 · 강희성 /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Sang-Leem & Kang Hee-Sung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112번지 일원
대지면적	21,264㎡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건축면적	2,094.05㎡
연면적	5,991.39㎡
건폐율	9.85% (납골당 포함 11.56%)
용적률	18.46% (납골당 포함 21.89%)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주요시설	화장장, 납골당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조경면적	4,261.53㎡ (개발면적의 32.5%)
외장재료	화강석
주차대수	90대 (소형 73대, 대형 영구차 12대, 장애자주차 5대)
최고높이	22.8m (+184레벨기준)
층고	4.5m, 6.0m
설계	이현중, 강주형, 이현진, 배관유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2002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부문 입선)



01 화장장
02 유족동산
03 기존납골당
04 주출입구

배치도

2000년이 들어서면서 수도권 화장장이 50%선을 넘어서면서 우리의 장례문화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40여 곳의 일제시기에서부터 시작한 화장터는 이미 그 수명을 다하고 있고, 현대화된 화장장의 시설은 이제 막 시작하고 있다.

장례문화

우리의 장례문화는 첫째, 유교 · 불교 · 기독교도 아닌 지역적인 독특한 배경을 갖고 있다. 요즘에 들어서 각 종교적 특성의 절차들이 새로이 만들어지고는 있으나, 역시 우리의 문화에 정착되지는 않고 있다. 과연, 우리 장례문화의 근본적인 원리와 사상이 어디에 근거하는가를 생각해 본다.

둘째, 과거 한 마을에서 장례식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슬픔과 애절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상을 당한이에게는 슬픔이 묻어났고 이별과 망각의 시간이 공감하며, 이를 지켜보는 이들에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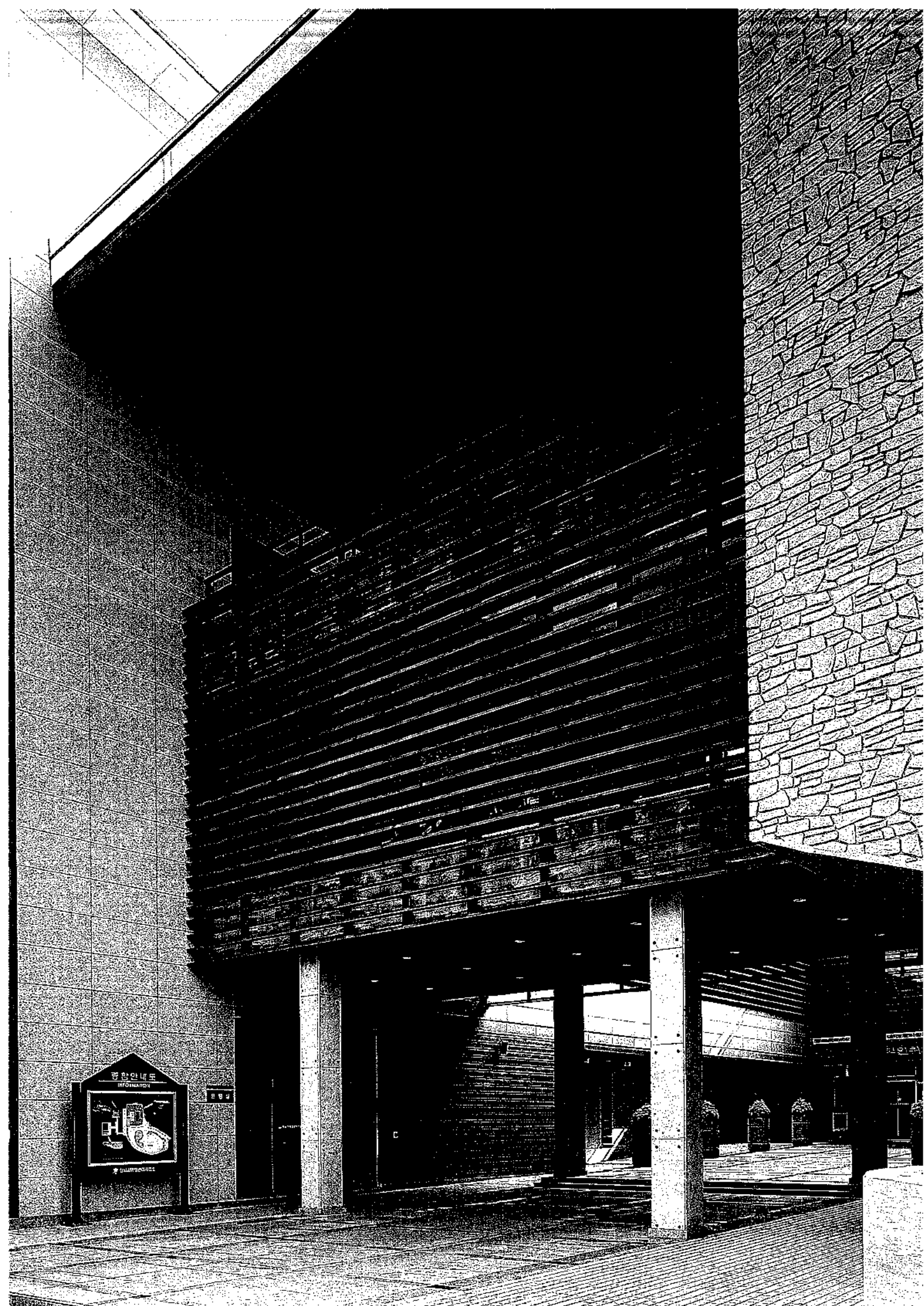
경건한 가운데 마을공동체적인 단결의 행사로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자들이 공유하는 공동체의 시간영속성에 그 배경을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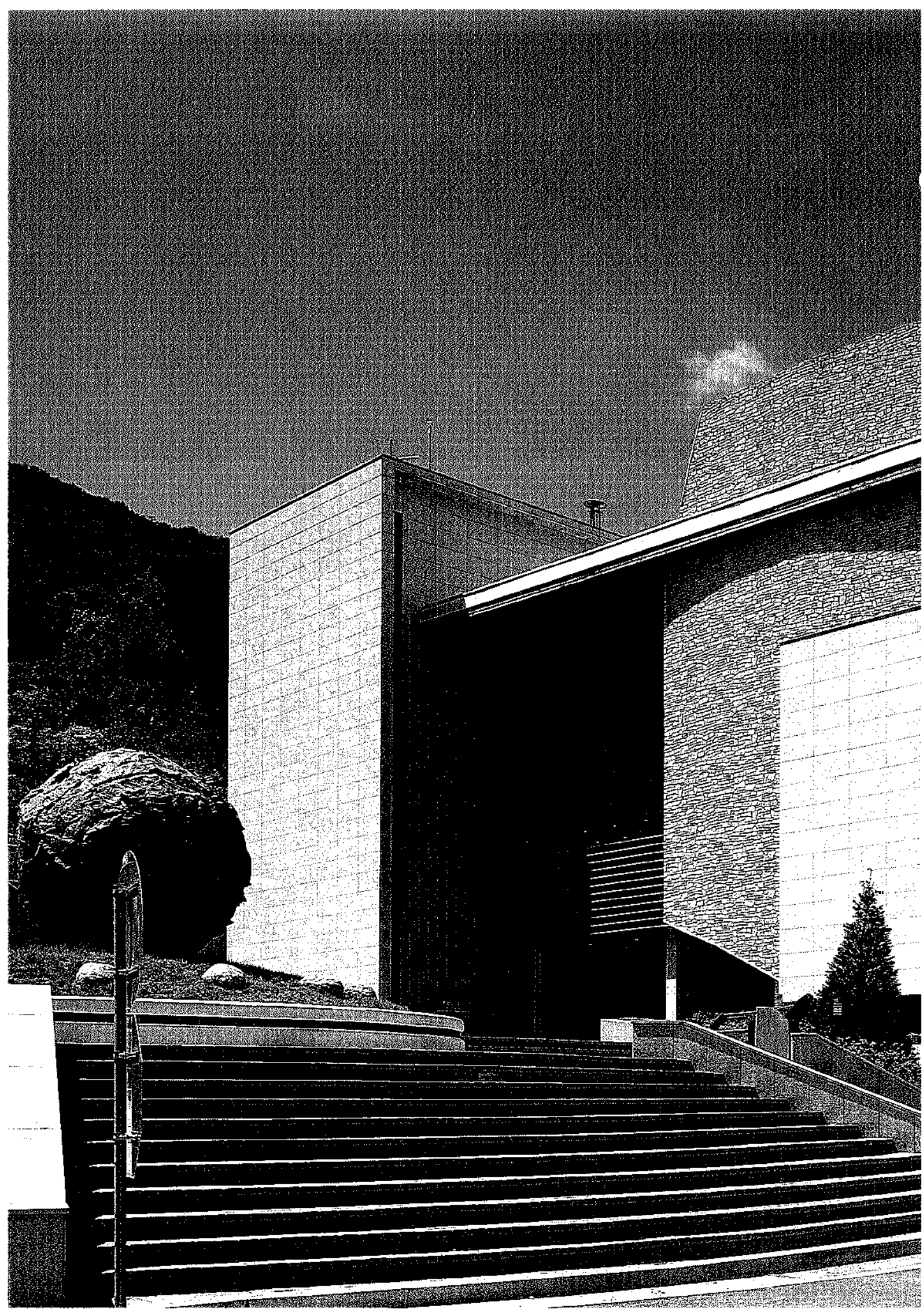
셋째, 의식을 담는 형태에 관해서 엄숙함을 요구하는 종교적 형식도 지역주의적인 관습에 소외되어지고, 배타적인 의식에 반한 화려한 껍질도 그 의식을 담아내기에는 부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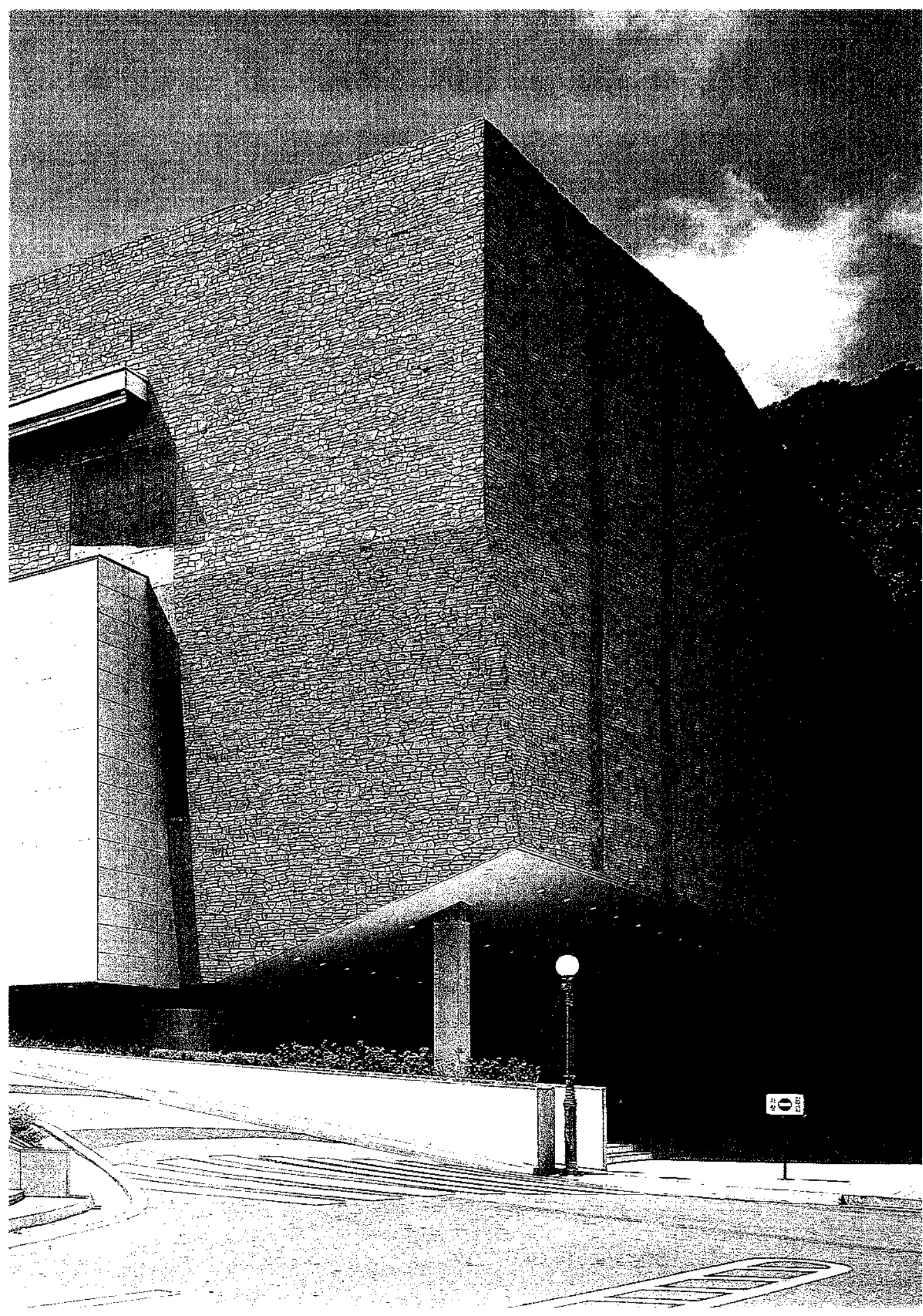
단지 우리 장례의식의 저변은 자연회귀성에 그것이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행위 역시 자연의 한부분으로 해석하는 것이 의식의 본질에 좀 더 가까워질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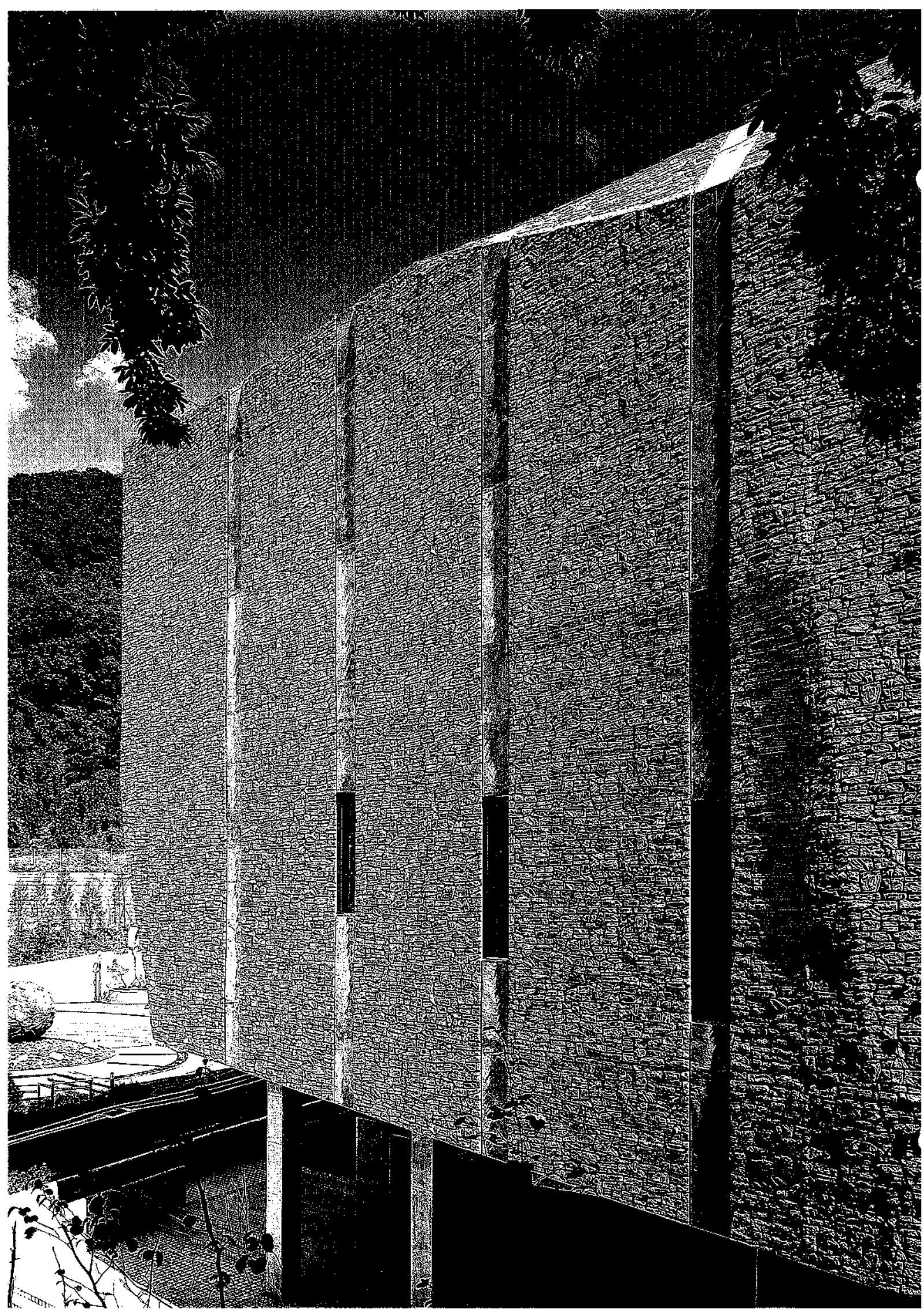
지리적 입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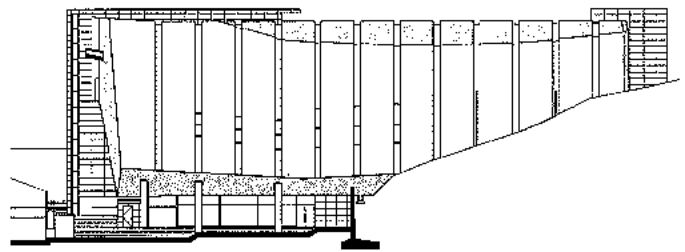
이 시설이 들어선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은 개발제한구역내 상당한 경사를 갖고있는 6,500평의 땅이다. 기존의 화장시설과 납골당을 운영하며 공사를 해야함과 지형적 악조건은 주요시설을 1개층으로 배치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분향실을 절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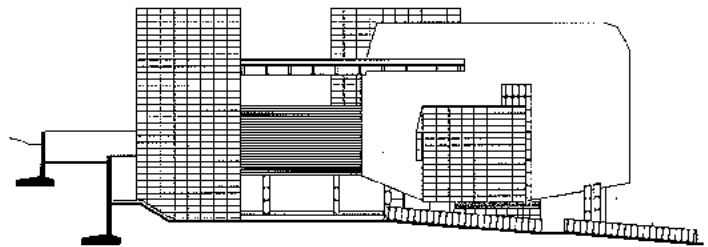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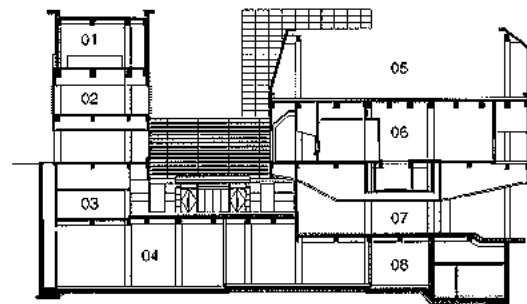


북측 입면도



동측 입면도

- | | | |
|----------|------------|-----------|
| 01_ 문방크실 | 05_ 화장물기계실 | 09_ 수골브릿지 |
| 02_ 회의실 | 06_ 화장로 | 10_ 출 |
| 03_ 사무실 | 07_ 식당 | |
| 04_ 기계실 | 08_ 발전기실 | |



0 2.5 7.5 15

평면도

분향이전과 이후 행위를 층으로 구분하여 앞으로 건립될 화장시설의 열악한 위치 및 대지의 제약조건을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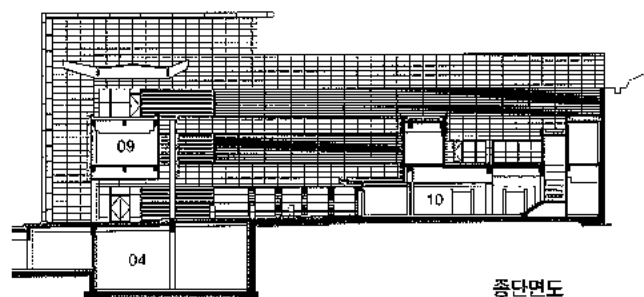
진입·운구·분향·대기화장·수골·납골로 이어지는 장례의식의 일련의 행위와 의식에 참여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간의 감정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간구성을 꾀하였다. 동적공간인 진입·운구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상여행위를 참여할 수 있는 중정공간, 분향이후 정적공간으로 대기·관망의 공간적 분리를 통한 서로 다른 감정변이의 정리에 대응하며, 수골이후의 다시 합쳐지는 공간의 구성과 남쪽의 외부공간에서 모든 행위가 종료되는 과정은 중정을 중심으로 분리된 2개의 매스사이와 층간으로 분리통합되어진 공간에서 각각의 행위에 대응하는 구조를 갖는다.

우리 문화가 갖는 전통상례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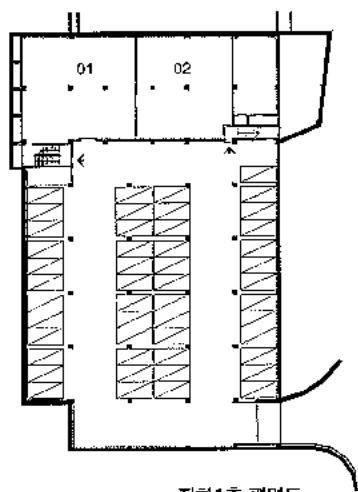
상례기간중 감정변이해석을 통한 공간구조

화장로 시설의 적극적 표현과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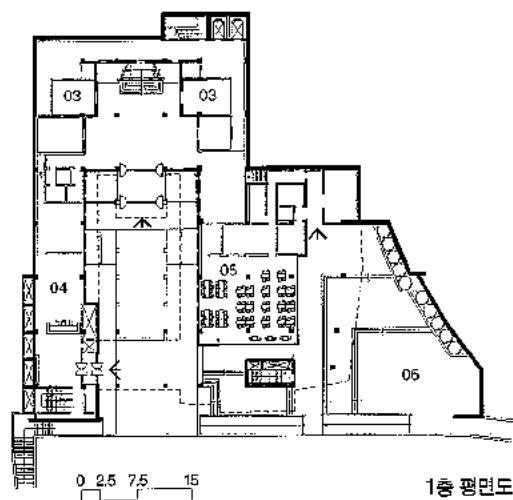
동적공간과 정적공간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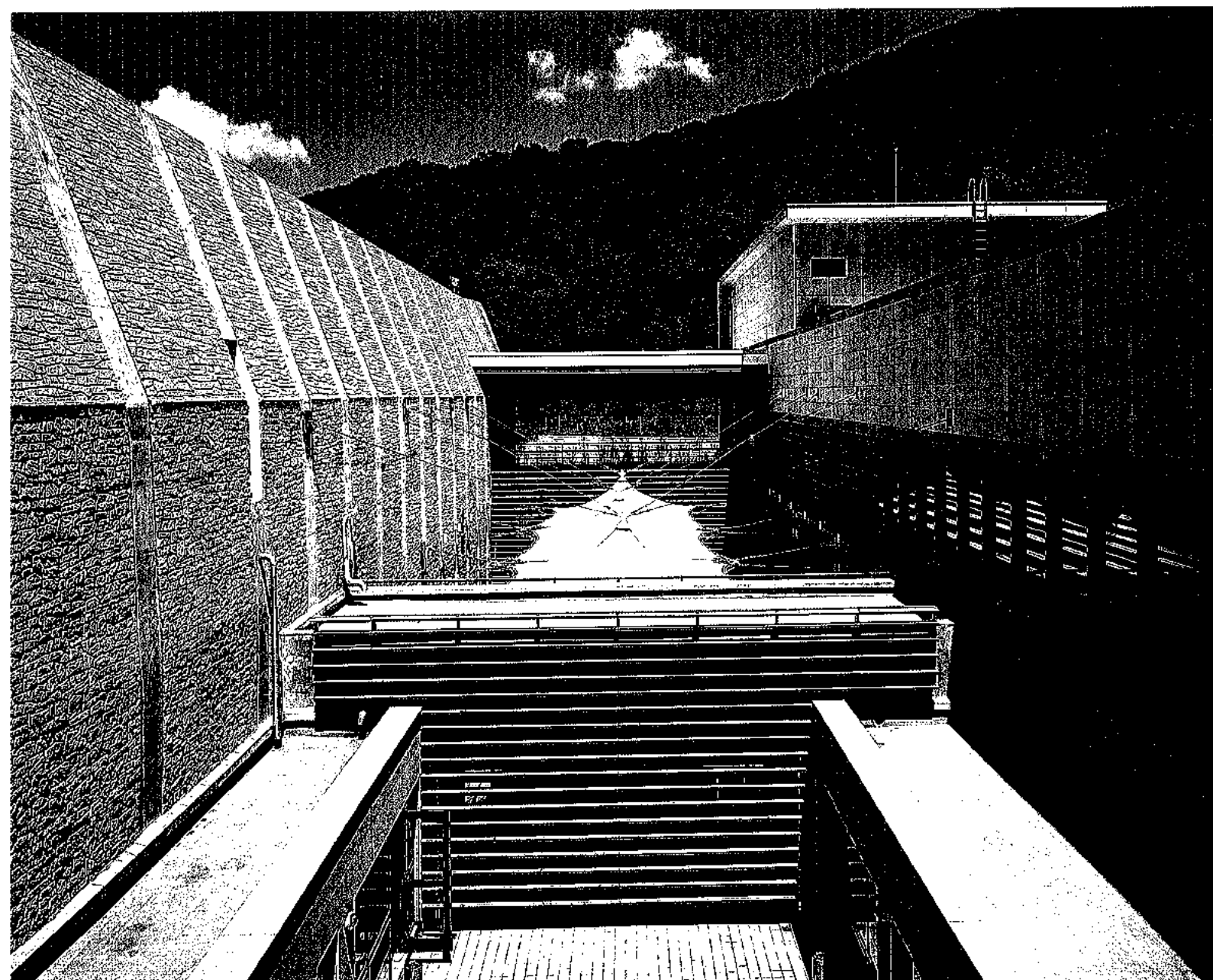
중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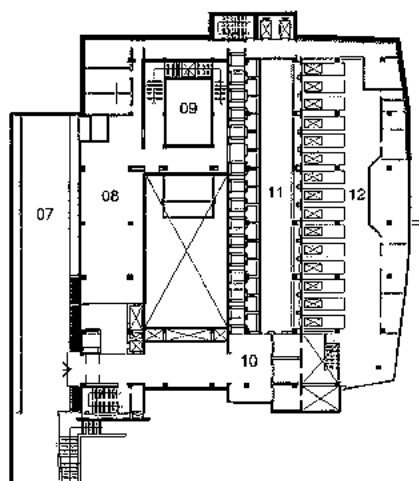


지하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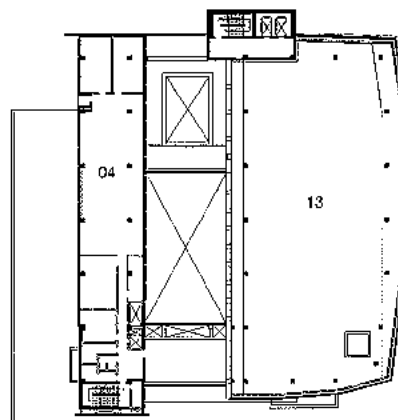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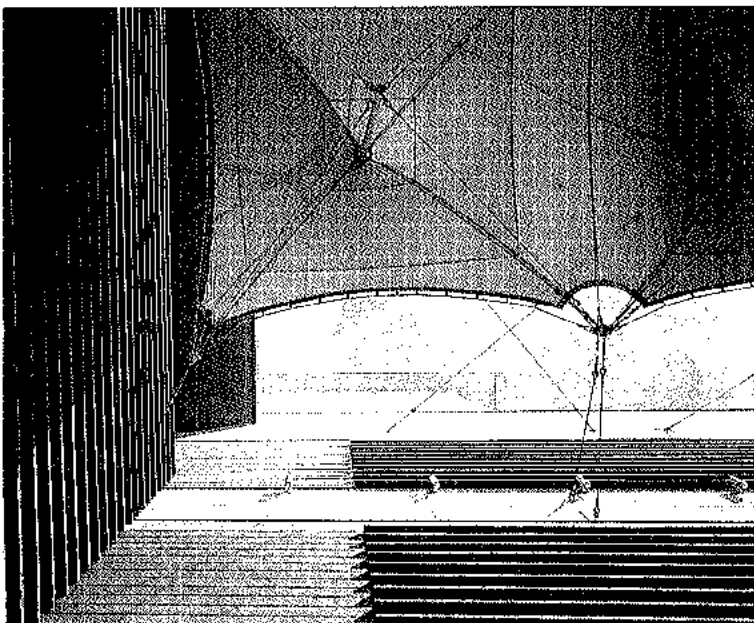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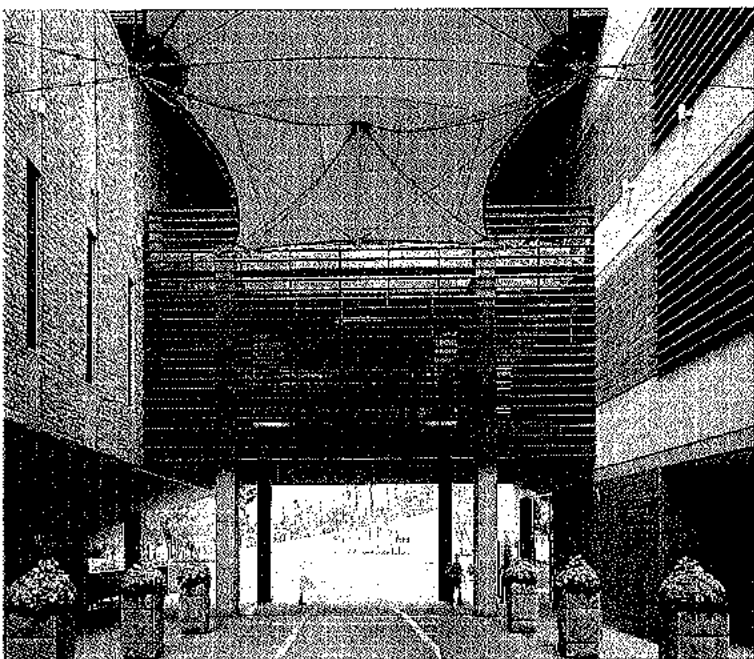


2층 평면도

- 01. 기계실
- 02. 전기실
- 03. 분향실
- 04. 사무실
- 05. 식당
- 06. 대기실
- 07. 대기마당
- 08. 대기 모니터실
- 09. 옥상정원
- 10. 수공품
- 11. 로건실
- 12. 작업실
- 13. 화장로기계실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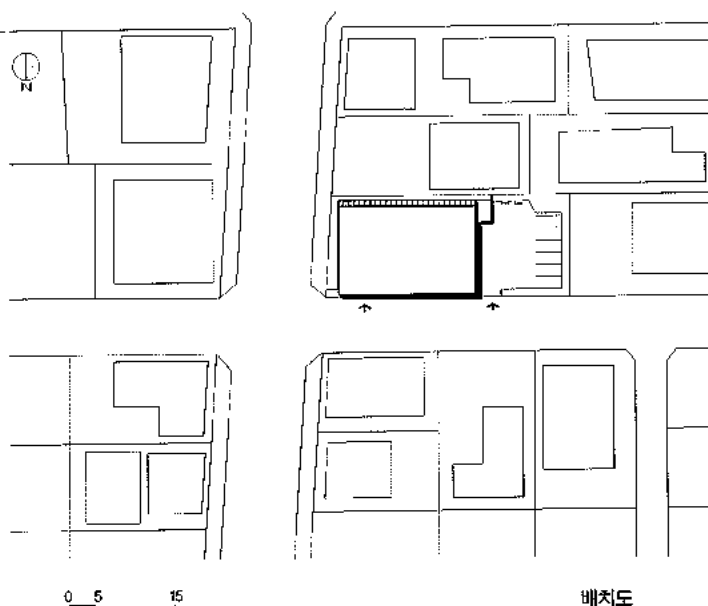


잿등 Jaetdeung

한진수/ 건축사사무소 토방
Designed by Han Jin-su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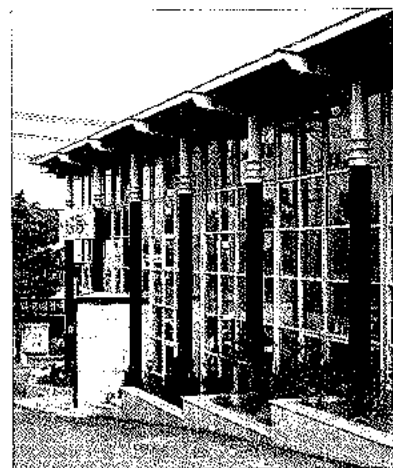
대지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43-1, 743-13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872.80㎡
건축면적	437.98㎡
연 면 적	521.02㎡
규 모	지상 2층
구 조	철골조
외부마감	페어글래스, 아연도강판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배치도

대지는 경사진 모퉁이 가로변에 인접해 있어 남북과 동서로 서로 다른 고저차를 이루고 있다. 판매와 서비스센터의 기능을 갖고 있는 자동차 전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워진 공간의 부분적인 도입과 공간 이미지에 부합되는 조형성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동서도로의 경사진 축에 따라 기능별로 고저차를 두었으며, 서로 다른 공간은 VOID 공간에 의해 심미적 흐름을 유도하고 공간의 다양함을 제공한다.

내부 공간의 배치는 외부에서 바라다 보는 관조자의 입장과 내부 전시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고, 내외부에 노출된 스틸구조는 유리벽을 통해 한층 전시물과 부합되는 공간을 만들어주며, 남측 벽 상부의 천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의 유입을 과감하게 사용하여 전시공간으로서의 기능성에 충실하고자 하였고, 아울러 자동차 정비를 위해 사용되는 내부공간에 풍요로움을 더해 주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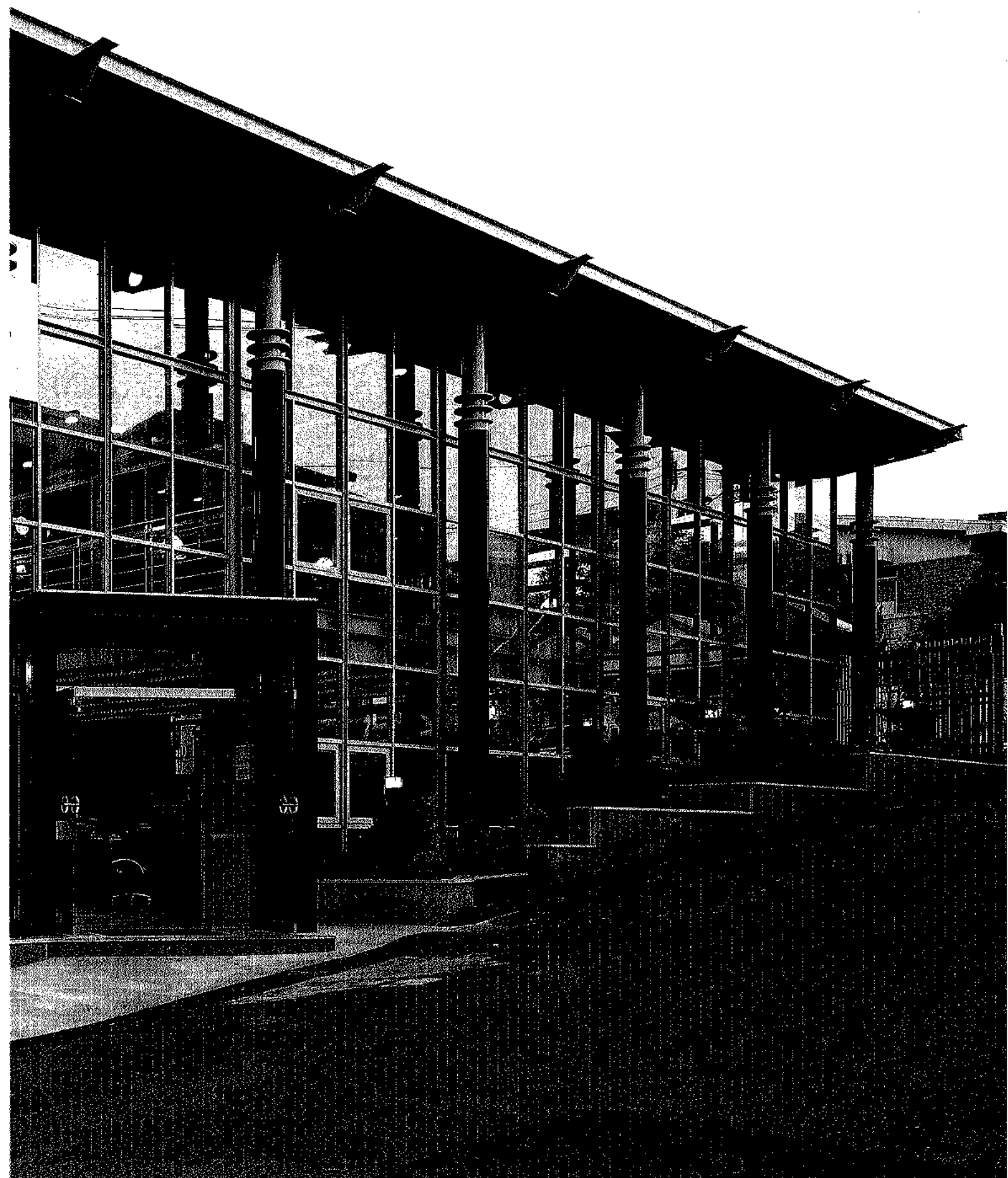
Mercedes-Ben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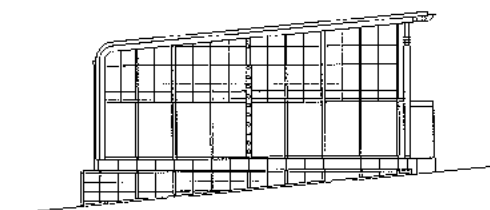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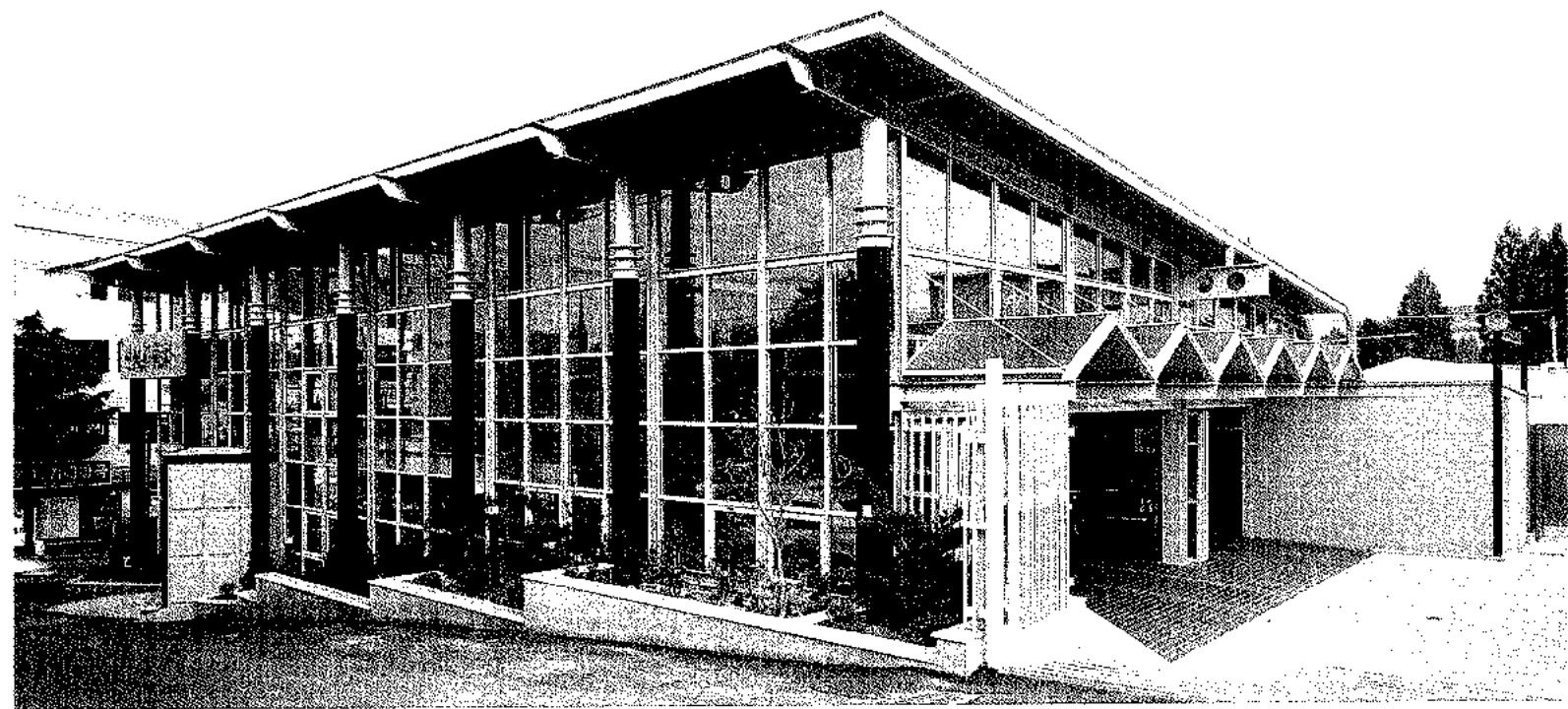
신성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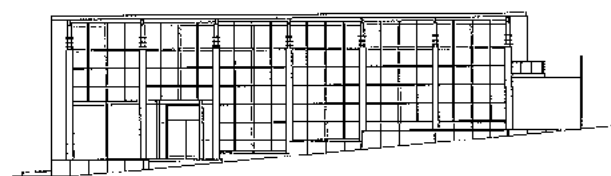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호랑이 382-36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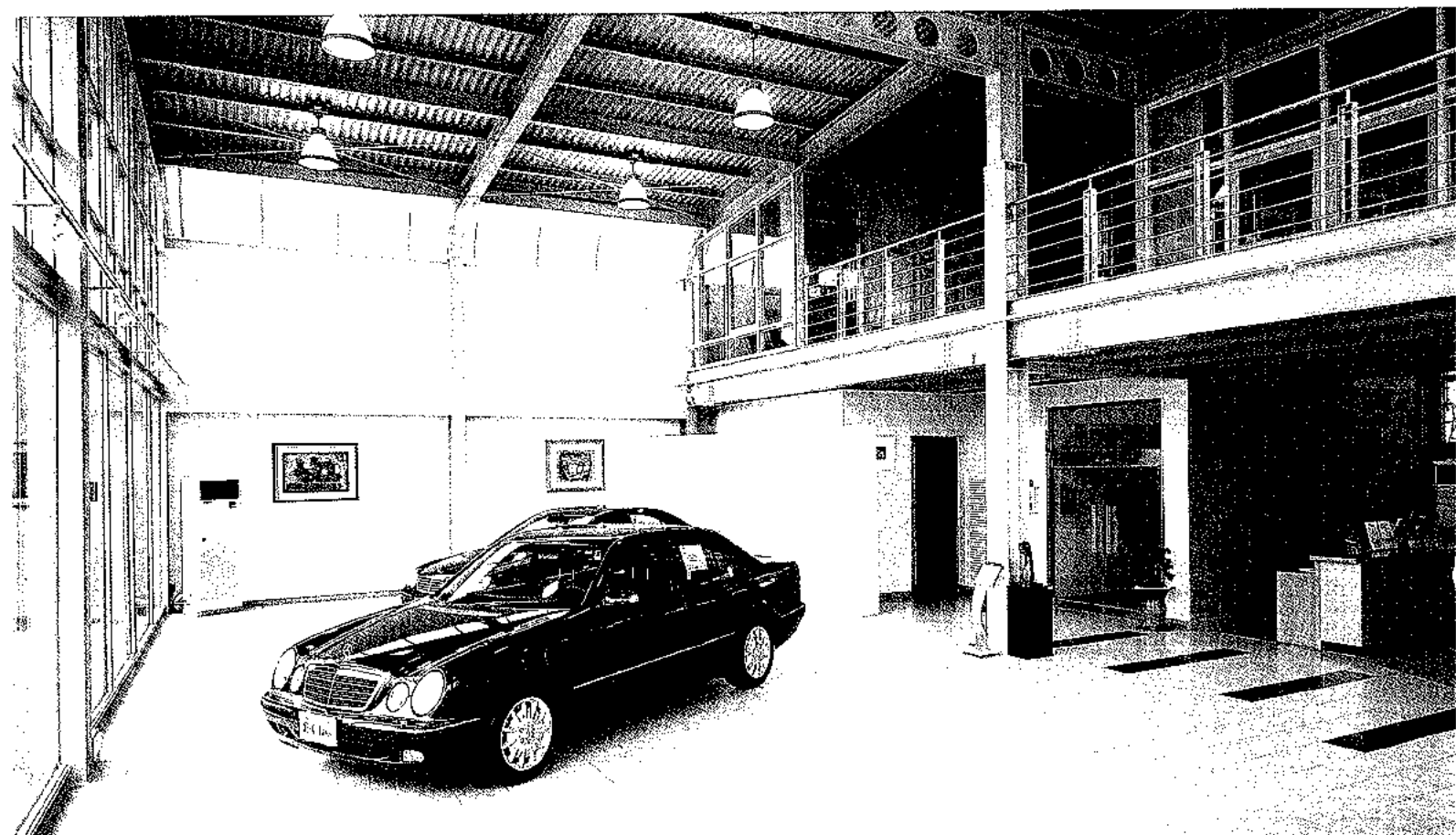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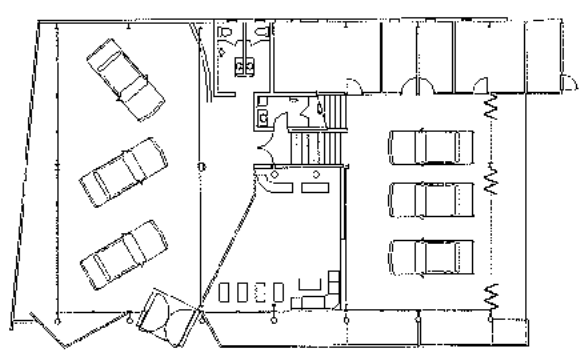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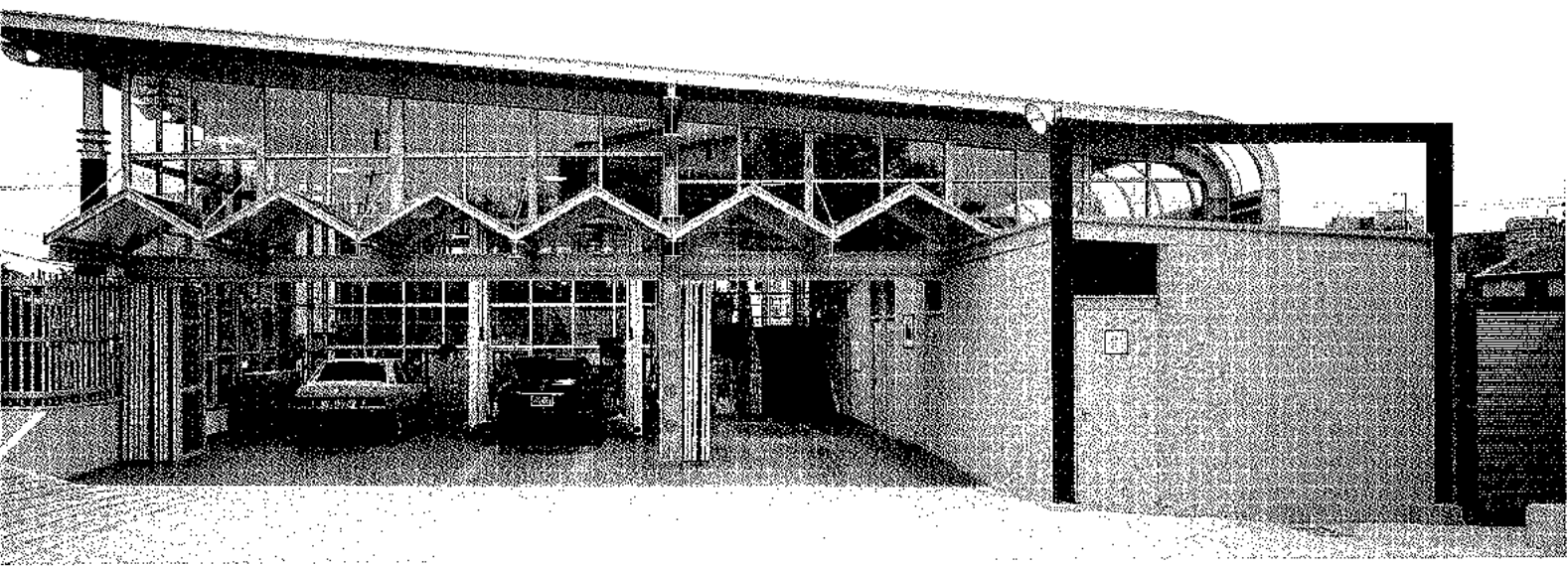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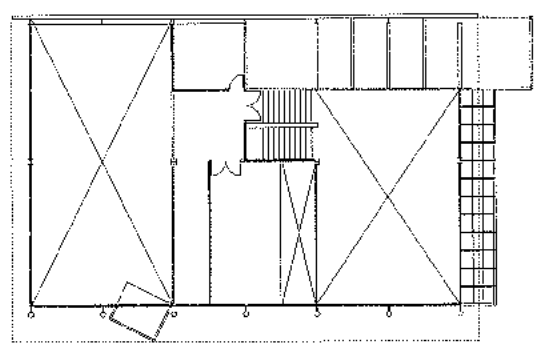
0.1 3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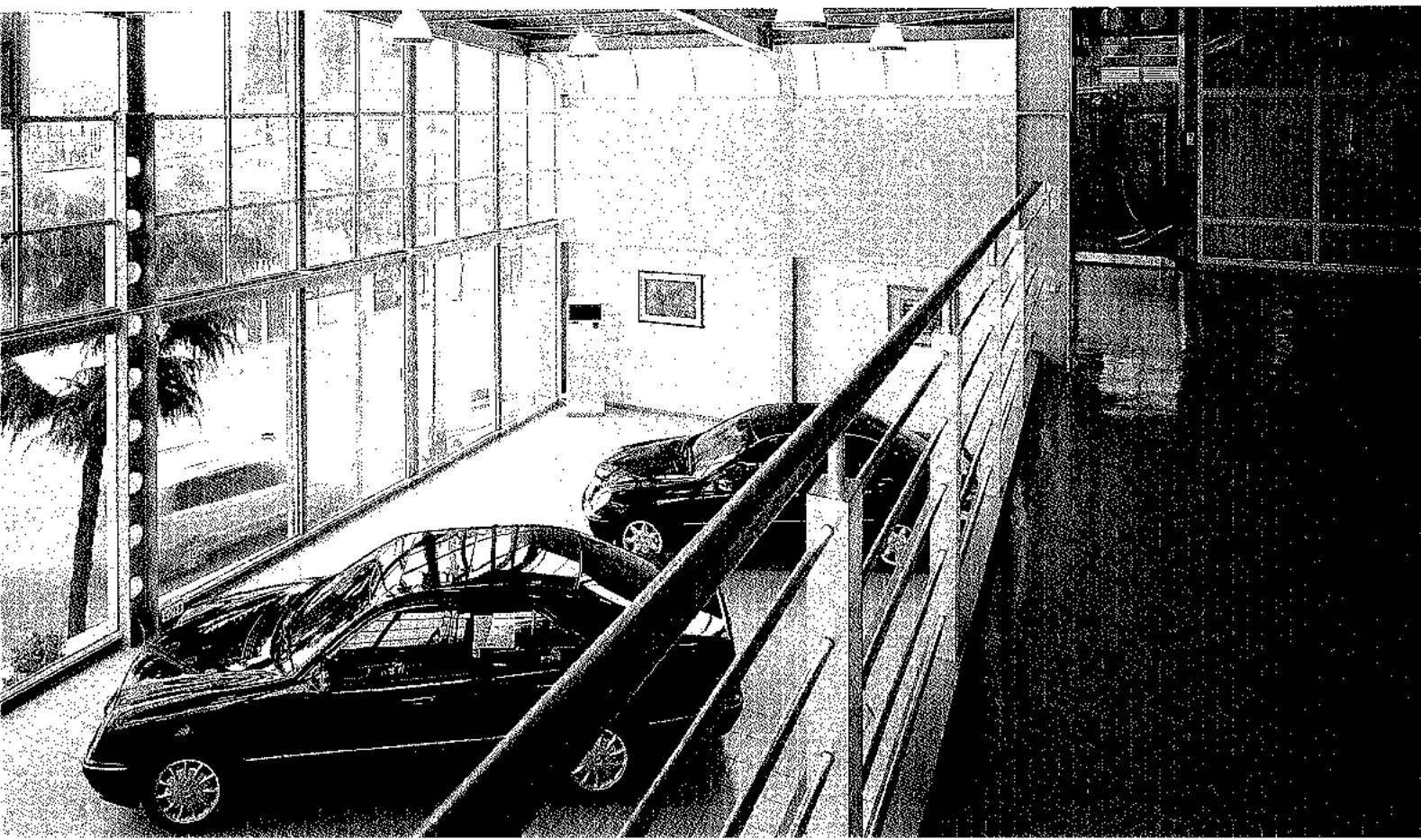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꿈동산 유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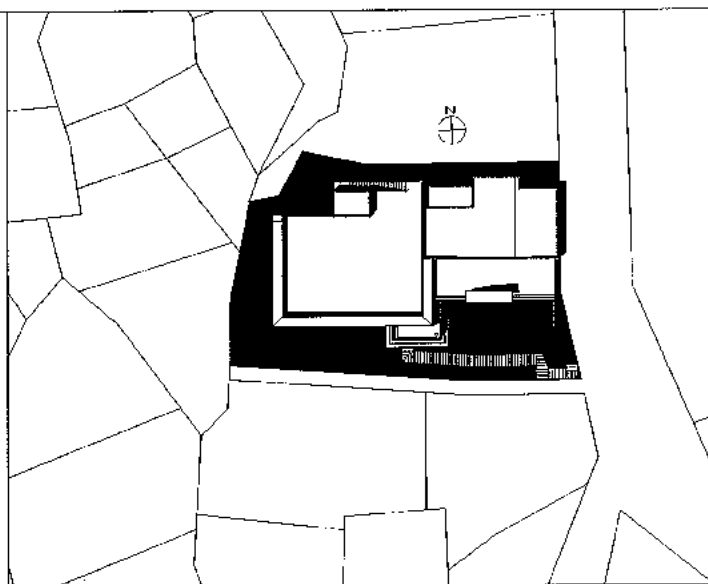
Dream Land kindergarten

김성곤 / 성 ·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Sung-Gon

건축개요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사하구 과정동 1051-10번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주 용 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유치원)
대지면적	501.00㎡
건축면적	250.58㎡
연 면 적	453.74㎡
건 폐 율	49.42%
용 적 율	86.24%
규 모	지하 1층, 지상 2층
구 조	R.C조
외부마감	사이딩, 목재, 페인팅
인테리어	(시공) 건축사사무소 재강, 건축사 최윤식
감 리	성 · 종합 건축사 사무소
설계담당	진현수, 천은영
건 축 주	함진주
설계기간	2002년 1월 ~ 2002년 2월
공사기간	2002년 8월 ~ 2002년 10월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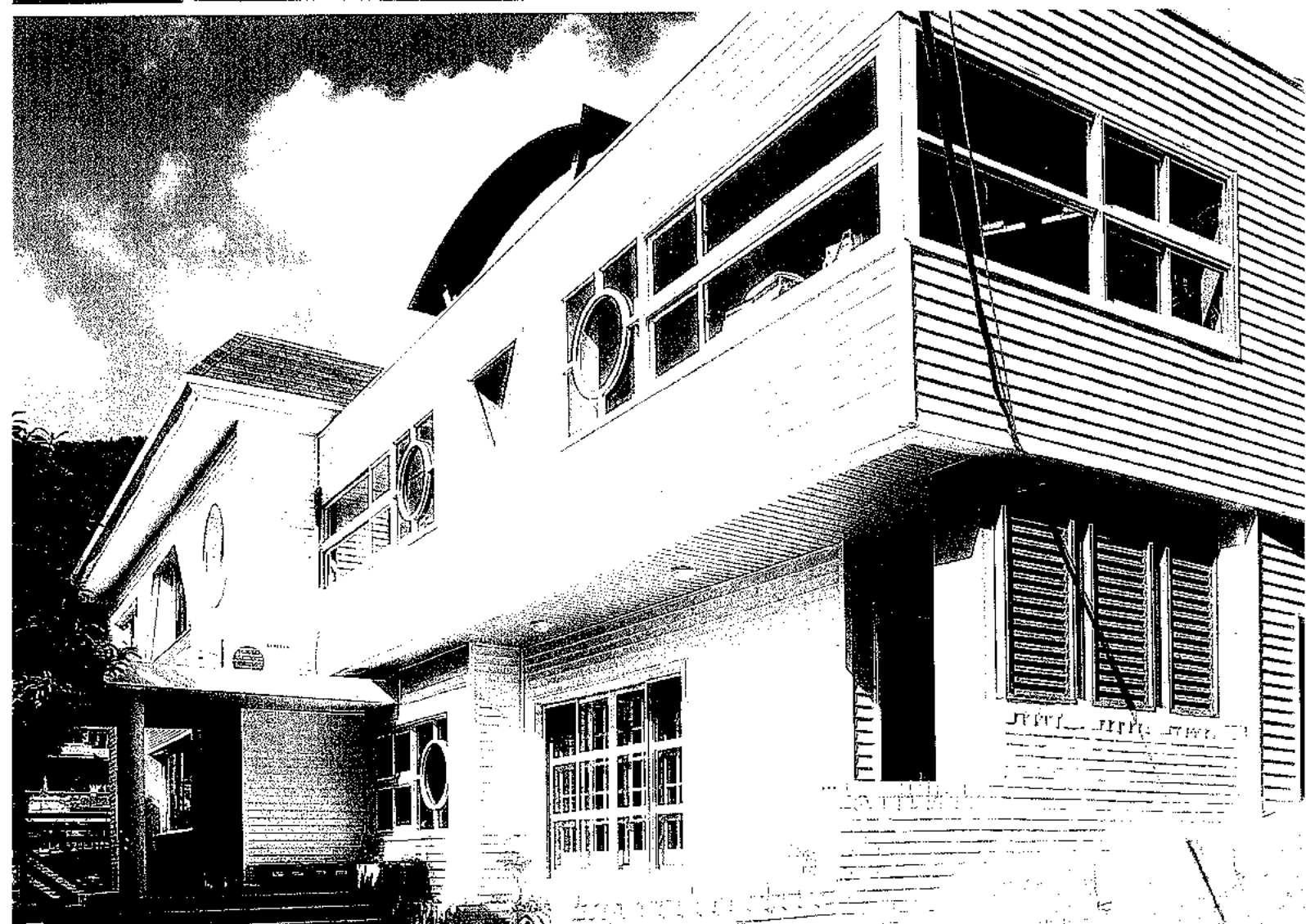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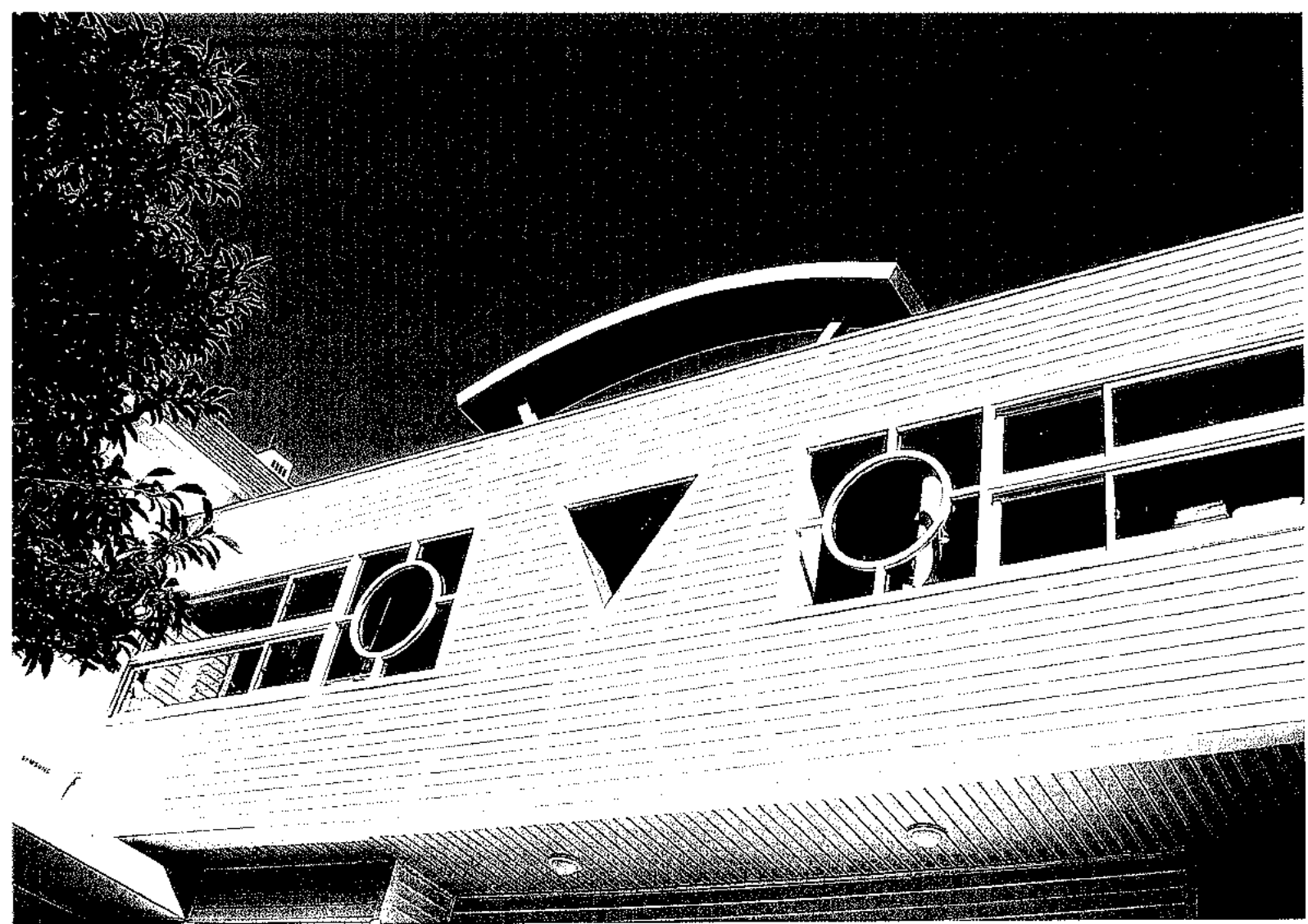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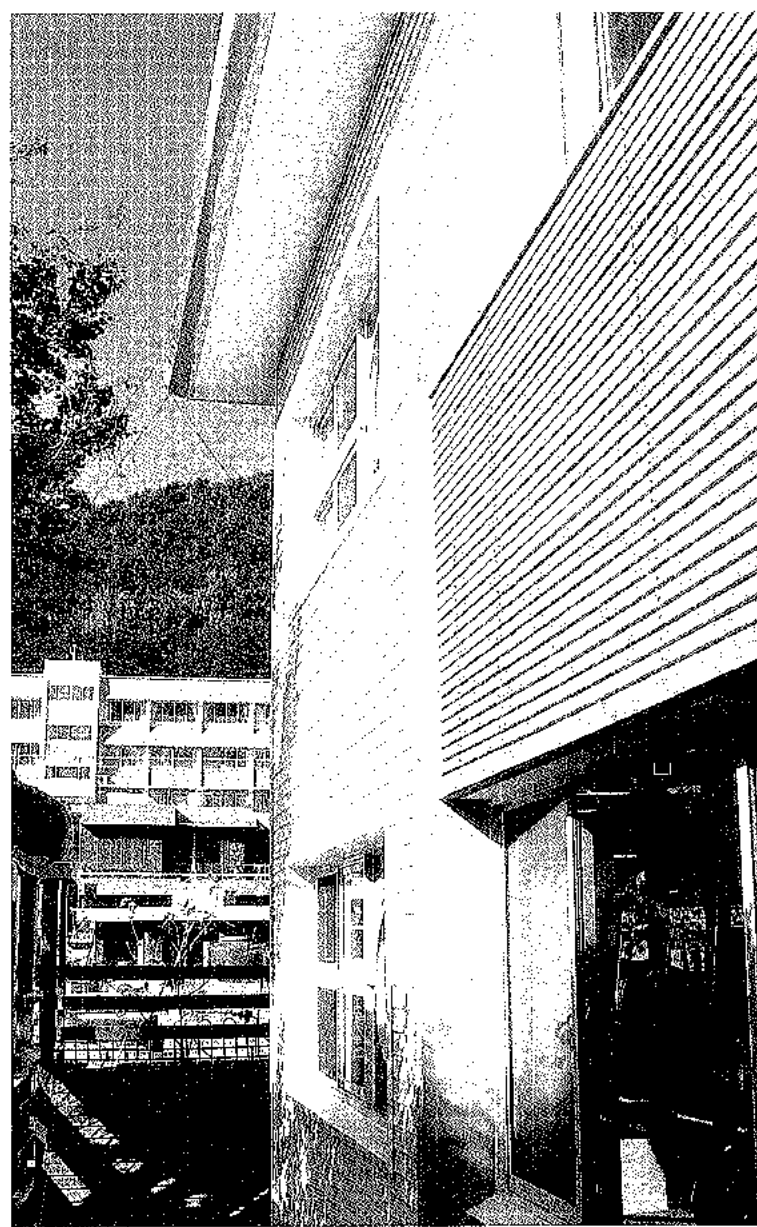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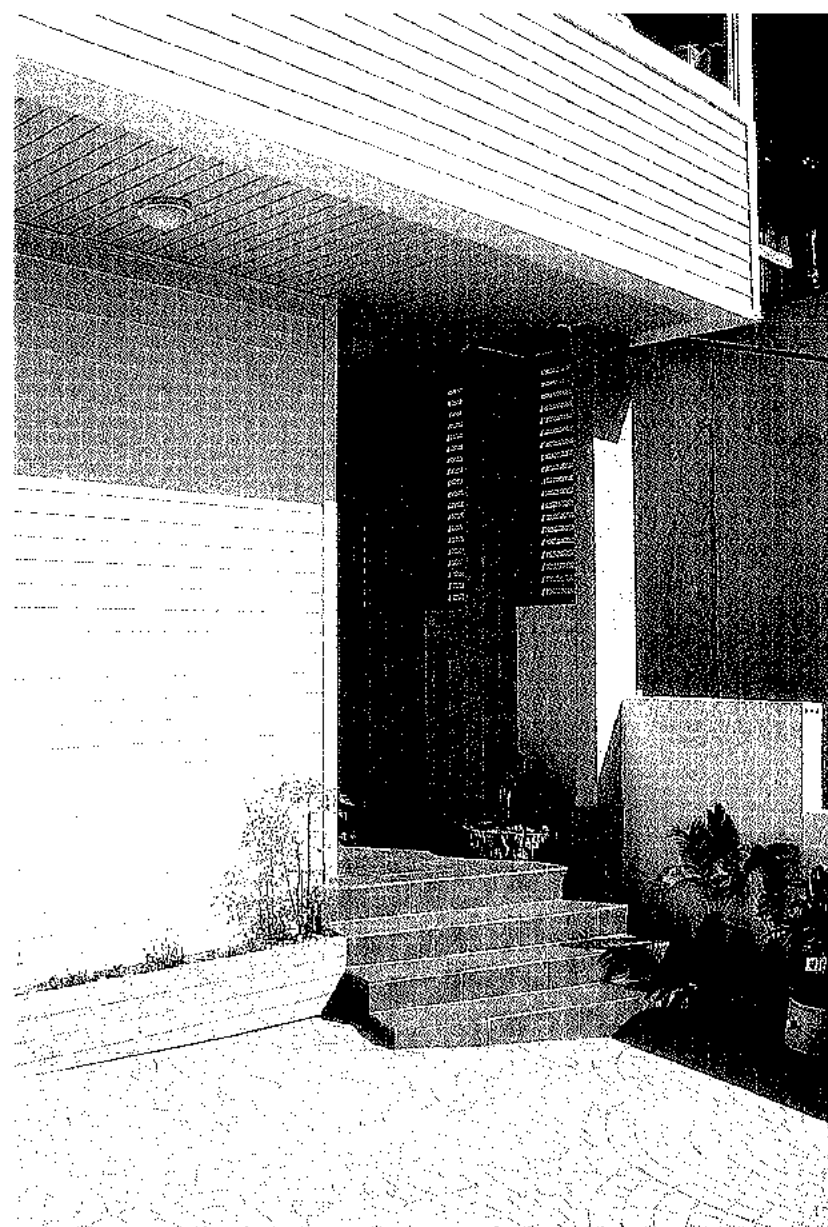
사무소를 시작한 지 3년째가 되던 해... 1988년도에 기존 주택을 이용한 유치원 증축 설계를 의뢰 받았다. 그리고는 올해 초, 무려 14여년의 세월이 흐른 후, 다시 증축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사무소 행방을 물어 물어서 찾아온 원장님께, 고마운 마음과 함께 신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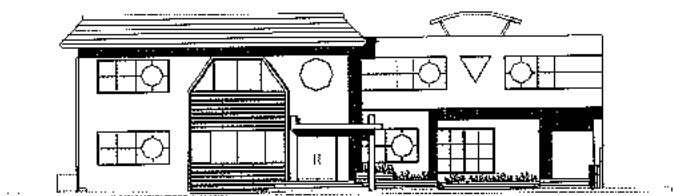
증축 작업의 내용들은 주택과 유치원의 이질적인 외장재료 마감을 동질의 재료로 변경하는 것과 약간의 증축, 주택을 일부 유치원 용도로 변경하는 것 등 일종의 리모델링 작업이었다. 기본적인 외장 재료는 건축주와의 대화로 하얀 백색의 사이딩으로 결정하고, 부분적으로는 세월의 흐름이 배어나면서도 부드러운 자연 소재인 목재를 사용하였다. 창들의 개구부는 도형의 기본 요소들로 디자인하여 하얀색 바탕의 깔끔함에 아이들의 맑고 밝은 얼굴표정들을 생각해 보았다. 외부 공간 계획에 있어서는 길을

주요 의제로 정했다. 도로에서 유치원 현관으로 가는 데에는 두 개의 길쭉길이 나온다. 비록 먼 길은 아니지만 여기서 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선택을 하여야 한다. 하나는 석재 타일로 마감된 짧은 거리의 마당길이고, 또 하나는 부지를 따라 쪽 뺨은 좁은 골목길과 같은 방향의 길로써, 목재로 마감 된 계단을 몇 단 오르고 나서 꺾고 다시 꺾으면 직선으로 곧게 뻗은 목재 데크의 길이 연속된다. 그 길 옆으로는 키 큰 나무들과 녹색 식물로 식재된 화단이 있다. 바닥의 부드러운 촉감과 함께 자연을 체험하는 길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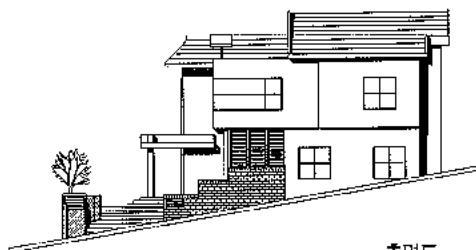
우리 인간들의 삶은 추억 만들기라고 했던가? 그 추억은 체험을 통해서 얻어진다. 이제 선택과 느낌은 아이들 몫이다. 훗날 아이들이 성장하여 유치원 시절을 회상할 때, 다소 길게 느껴졌던 이 길이 추억의 한 조각으로 기억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러한 것들은 건축주와 시공자의 생각이기도 했다. (글:김성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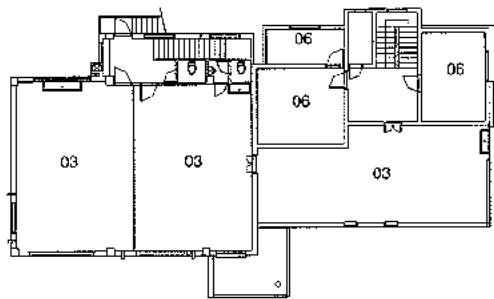
정면도



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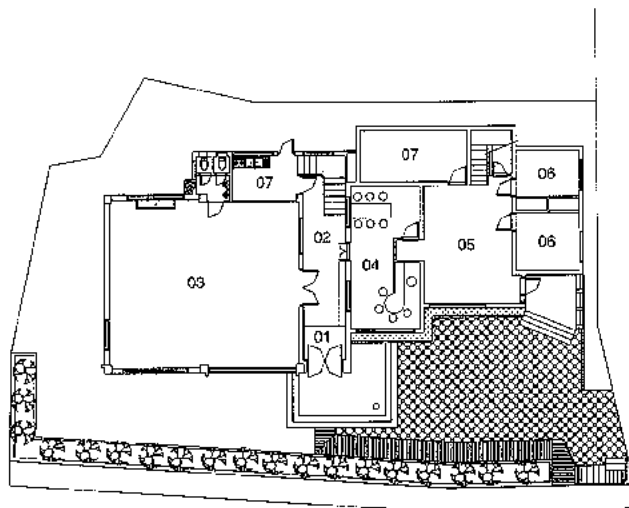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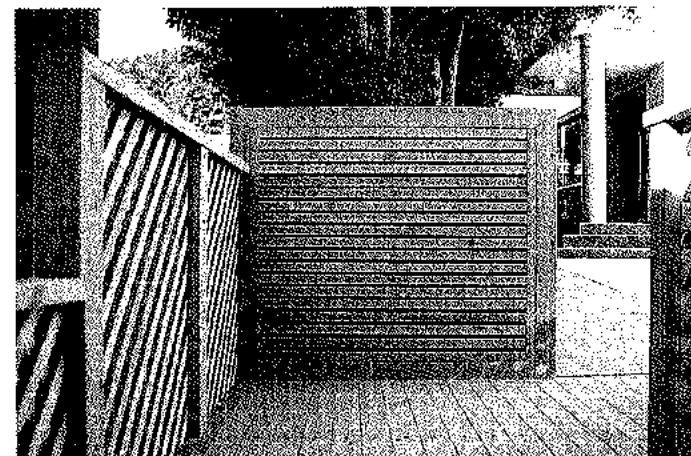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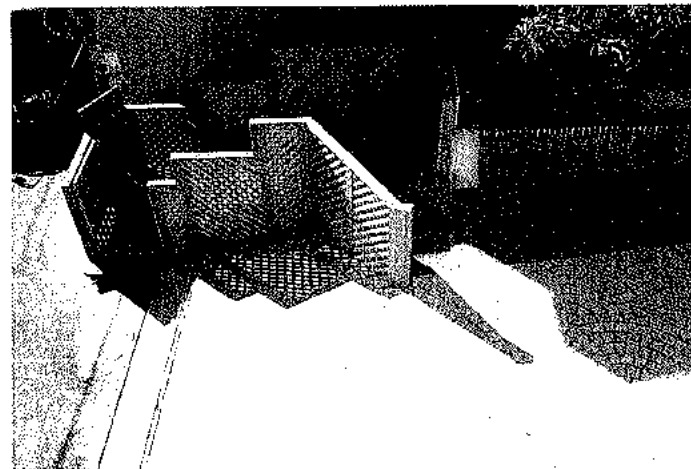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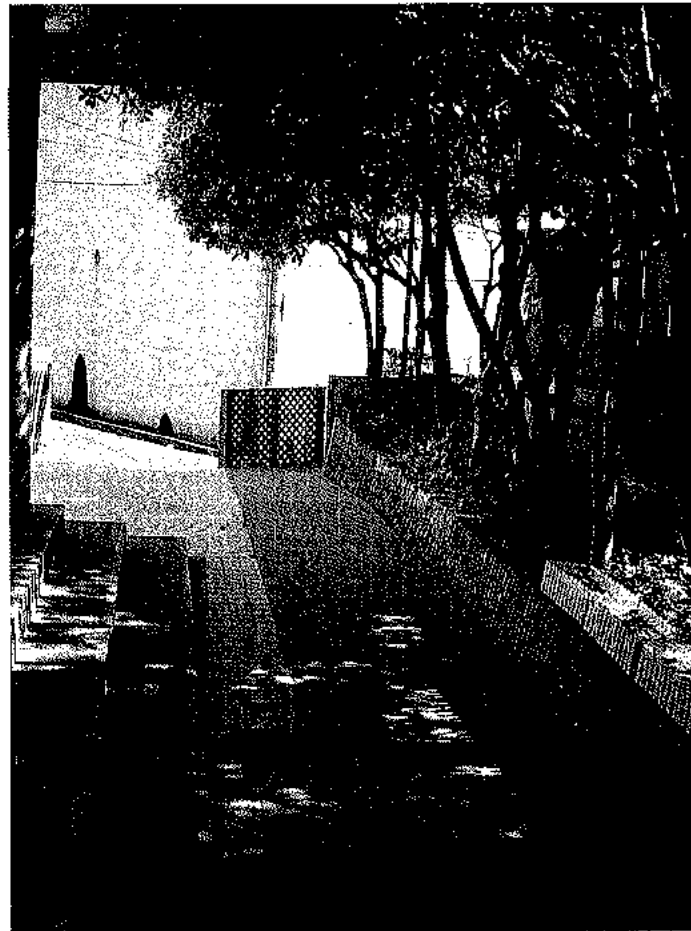


- 01_현관
- 02_복도
- 03_교실
- 04_교우실 및 원장실
- 05_유치실
- 06_방
- 07_주방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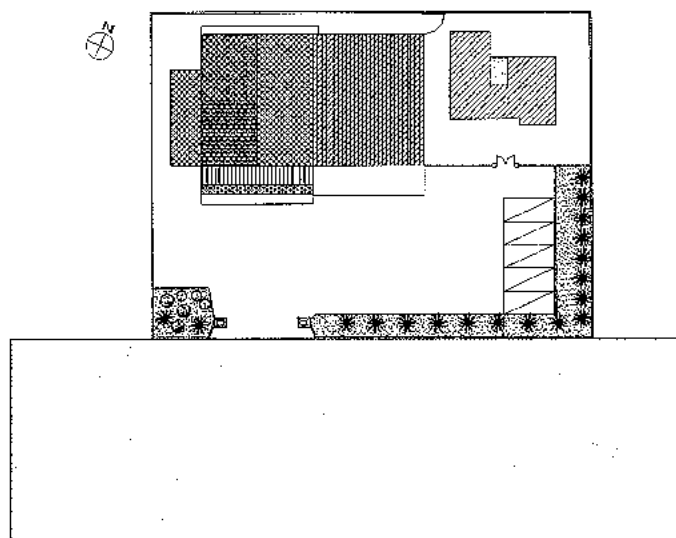
한국담배인삼공사 영주지점

Korean Tobacco & Ginseng Corporation Youngju Branch Office

이영욱/ 탐건축사사무소(대구)
Designed by Lee Young-Wook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동 495-10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주요용도	업무시설
대지면적	1,406.10㎡
건축면적	421.51㎡
연면적	838.12㎡
건폐율	29.98%
용적률	54.18%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규모	지하1층, 지상2층
외부마감	플라스터, 알루미늄시트 골판가공, 문경석 버너 마감
설계담당	이영진, 류재성, 황세영
전기설계	우보엔지니어링(임창호)
설비설계	무무설비설계사무소(이진열)
시공	(주)대원종합건설(송화선)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배치도

항상 끝나고 나면 리노베이션 공사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느끼는데 이번 프로젝트 또한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이번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벌써 4년 가까이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에 대한 설계/감리를 하고 있지만 할 때마다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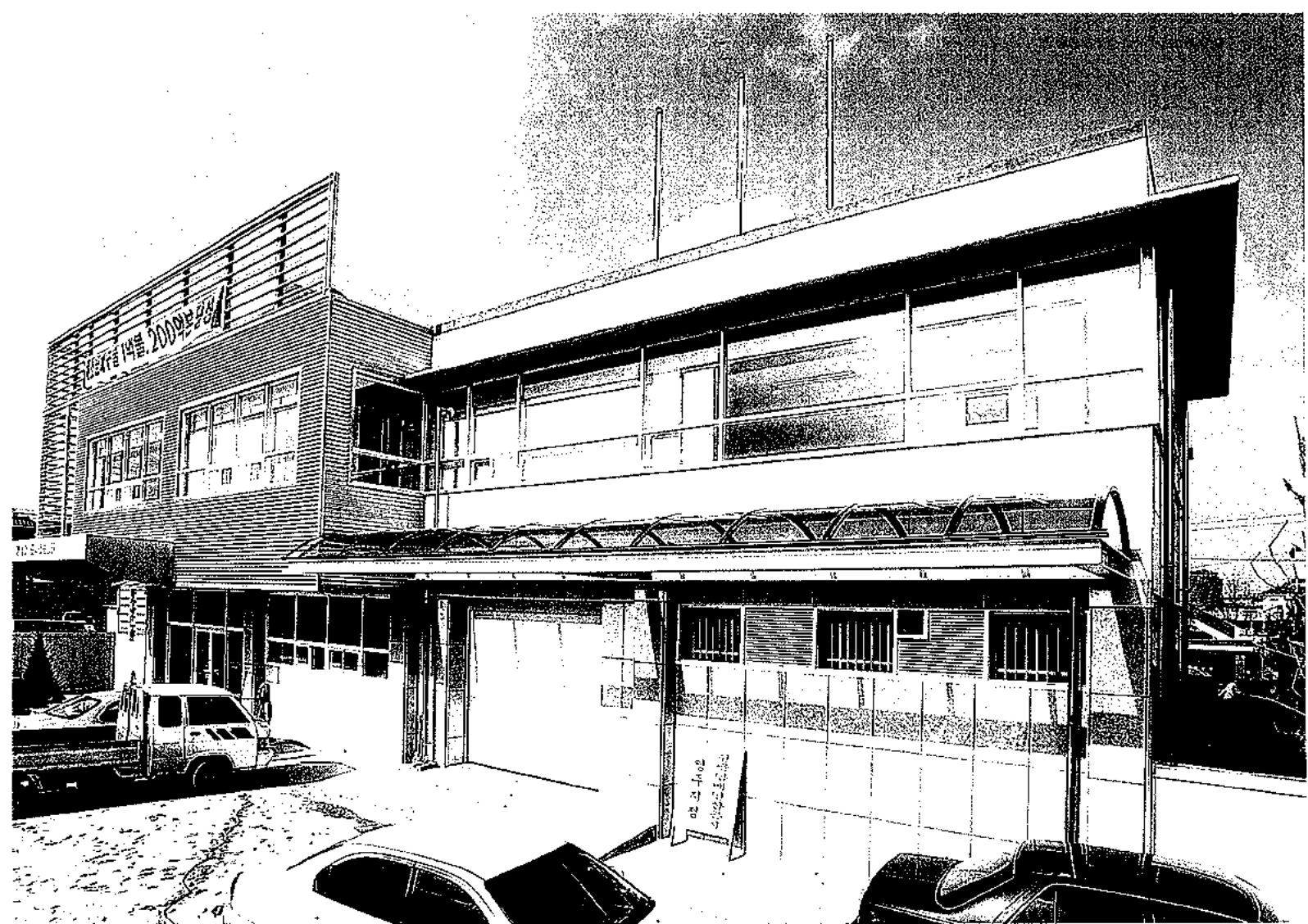
첫 번째가 기존 도면의 분실로 인한 현 건축물의 구조적인 분석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철근의 위치와 개수를 파악할 수 있겠지만 시간적, 경제적인 문제로 쉽지 않다. 두 번째가 기존건물과 도면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 건물 전체를 실측하지 않으면, 시공 중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공기에 차질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마지막 세 번째는 리노베이션 공사에 대한 시공자들의 이해부족으로 이런 공사를 상당히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철거공사시 기존 건축물의 구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한 전문 지식과 장비가 동원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전문지식과 장비를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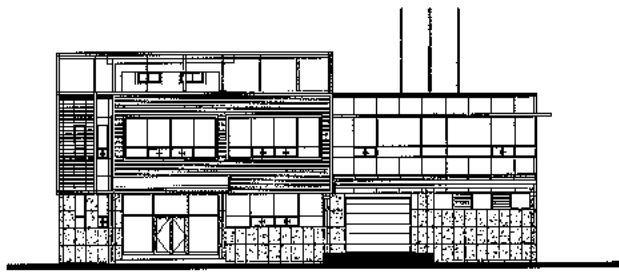
지고 있는 회사가 많지 않아 아주 위험하게 일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들을 세밀히 파악하고 철저히 설계/감리 하여야 하지만, 현실 여건상 상기한 바와 같이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다.

하지만 이번 한국담배인삼공사 영주지점 리노베이션 공사는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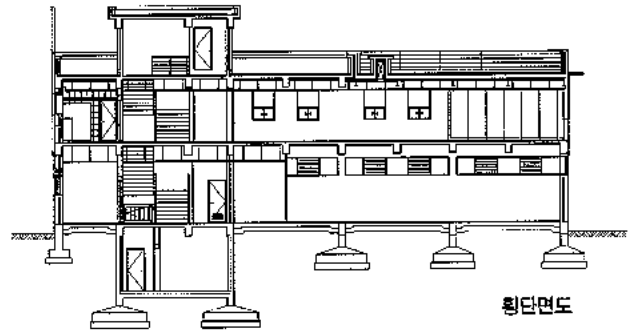


리노베이션 전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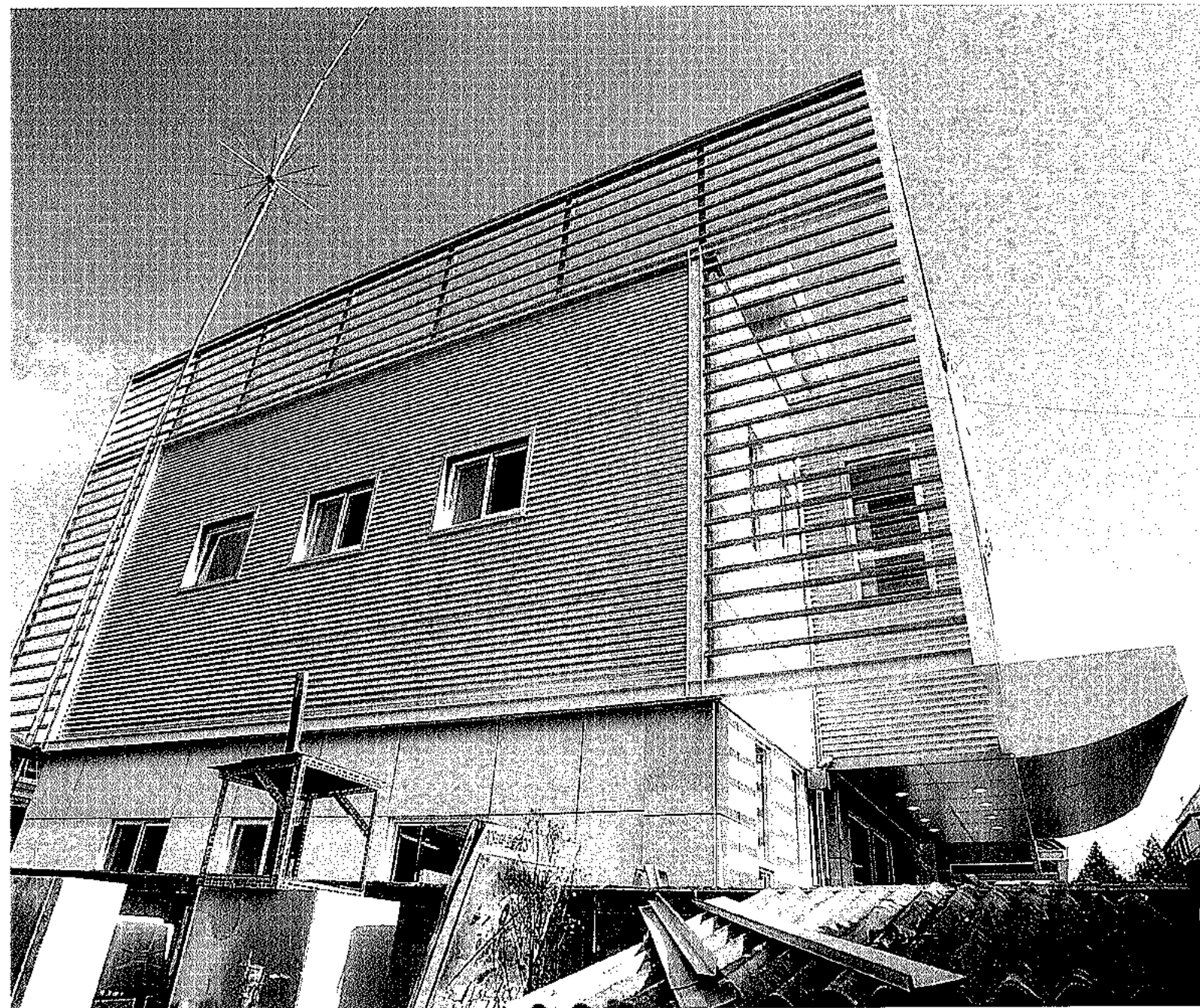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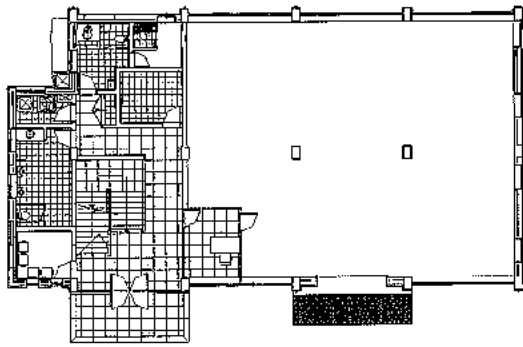


남쪽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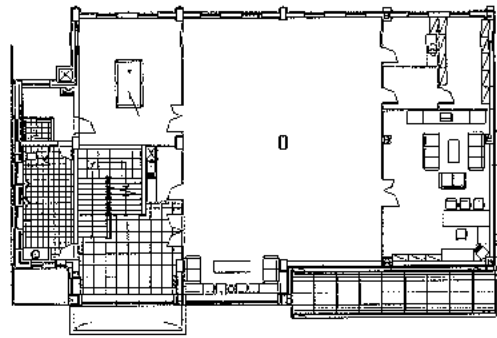


횡단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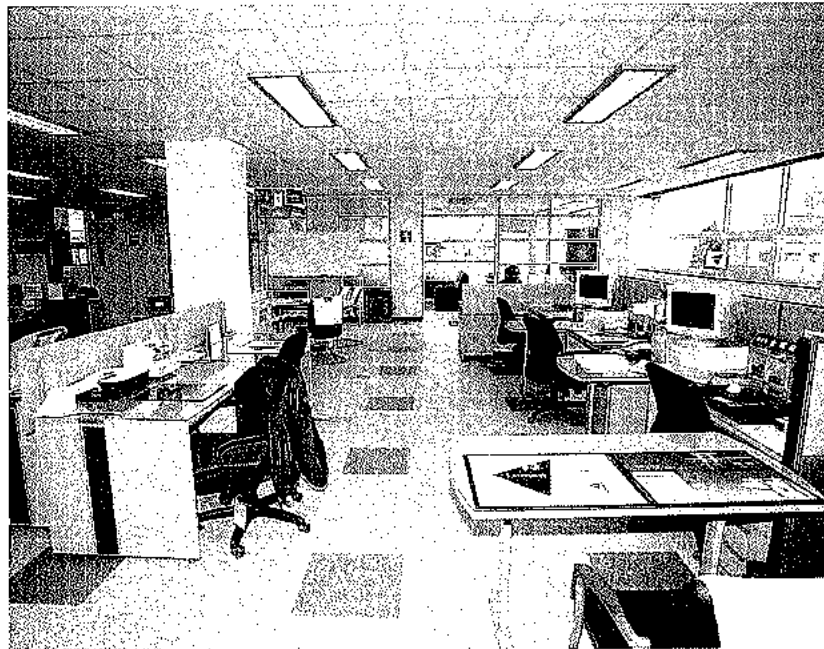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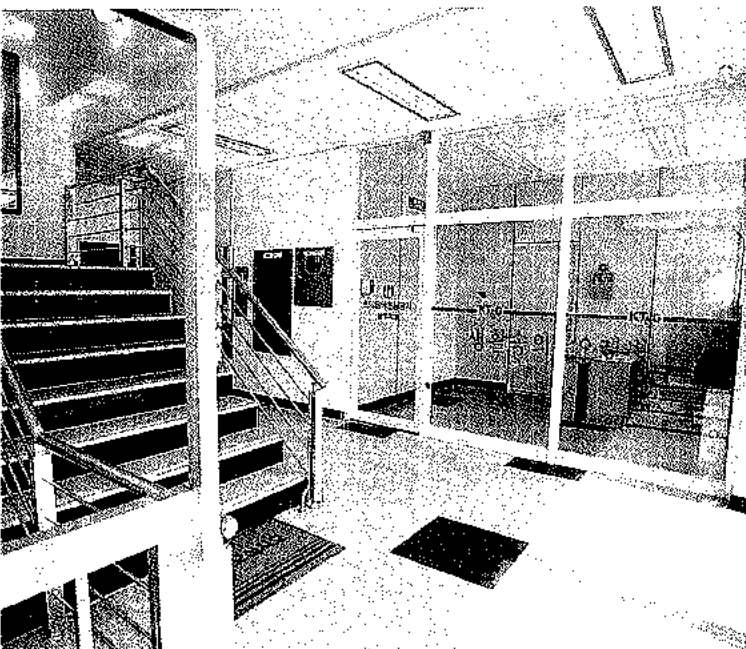
2층 평면도

체로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에 있어서 가장 주안점은 건물 좌측에 있는 중앙선 철도에서 바라보는 건물의 인지성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산뜻하고 참신한 이미지를 건물 입면에 어떻게 표현할 것이며, 또한 하루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담배의 입/출고에 따른 효율적인 건물사용과 직원들의 편리한 근무여건을 어떻게 조성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것에 주안점을 두어 건물 외관은 전체적으로 산뜻하면서도 하이테크한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알루미늄 시트골판, 알루미늄 시트, 유리 및 폴리그라스를 사용하였으며, 기존 상부 옥탑을 가리는 동시에 건물의 조형으로서 광고탑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철골 H-beam과 각파이프를 사용하여 높게 디자인하였다. 1층 로비는 전체적으로

밝은 칼라로 선정하였으며, 바닥은 포천석에 마천석 포인트를 두어 심플하게 처리하였다. 2층 사무공간은 가급적 넓게 배치하였고, 지점장실 및 기타 실들과의 구획 부분의 내부 칸막이 벽체에도 가급적 유리를 사용하여 투명성에 의한 개방감 및 채광의 효율성을 최대한 살리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프로젝트의 계획설계에서부터 시공감라까지 전적으로 건축가를 믿고 지원해주신 한국담배인삼공사 영주지점 감독관님 및 직원분들과 어려운 현장 여건에서도 도면에 가장 충실하게 시공해준 시공회사 현장소장 및 본사 이사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경찰종합학교 청사 / 72

제주4.3평화공원 / 76

서울비즈니스센터 / 82

중랑구청소년수련관 / 86

서울산업대학교 어학원 / 88

경찰종합학교 청사

A Government Office Building of
Police Complex School

▶ 당선작 / (주)부영종합건축사사무소
(안길원 · 서학조) + (주)현대건설

지역지구	준도시지역
대지면적	1,723,723㎡(521,426평)
건축면적	32,482㎡(9,826평)
연면적	설계면적 93,583㎡(28,309평) 지침면적 94,380㎡(28,550평)
조경면적	114,780㎡(32,21%)
건폐율	1.88%(법정 60%이하)
용적률	4.89%(법정 200%이하)
최고높이	22m (본관동 기준)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본관동기준)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철골조, 조적조
주차대수	계획 1,550대(지침 1,540대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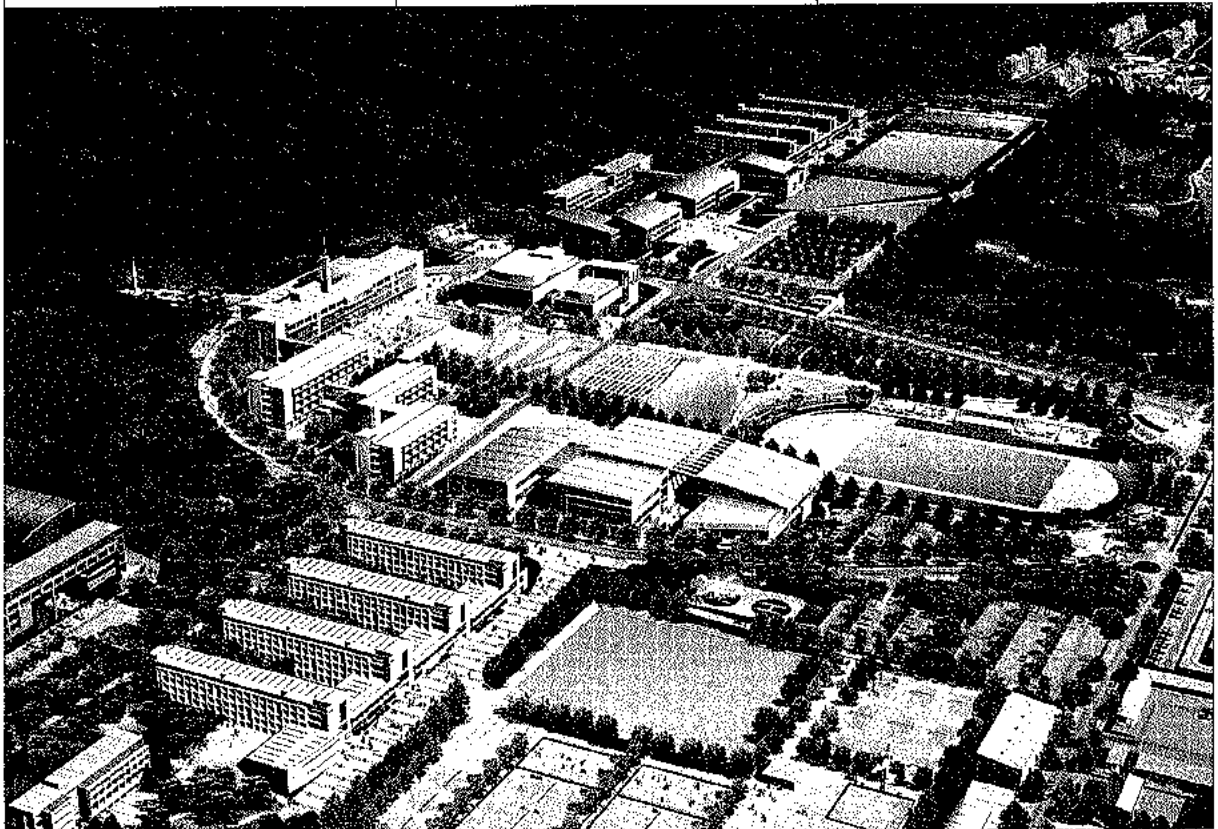
충청남도 아산시 초사동에 위치한 계획부지는 약 50만평으로서 현장을 향하는 계획팀은 부지의 시작과 끝이 막연한 형상으로만 떠올려지고 있었다.

본 계획은 경찰 간부후보생의 기본/전문/수탁 교육을 담당하는 경찰종합학교 중심의 1단계 사업과 신입순경 및 전/의경 교육을 담당하는 중앙경찰학교 그리고 경찰연수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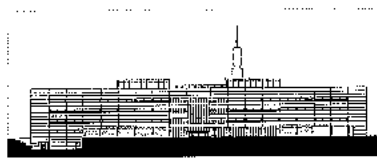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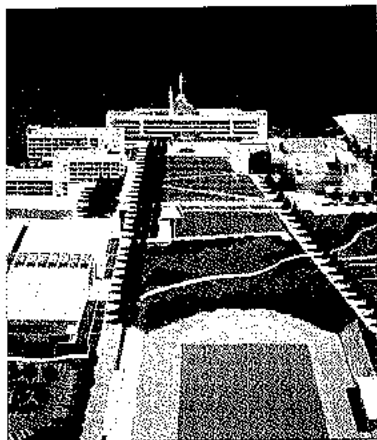
막상 부지의 진입부라 여겨지는 곳에 다다랐을 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여기다'라고 확신할 만큼 그렇게 명확한 '장소'의 이미지를 품고 있는 부지였다.

부지를 품고 있는 황산의 능선을 따라 경계가 명확해지고 그렇게 넓은 부지는 그 품에 고스란히 자리잡고 있었다. 풍수학적으로 말하자면 '금계포란' 즉, 새가 알을 품고 있는 따뜻한 형상이다.

이제 이곳에 3만 여 평의 1단계 교육시설과 15만평의 옥외시설 그리고 2단계 교육시설을 포함한 경찰교육원의 마스터플랜을 계획하여야 한다. 부지는 남고북저형으로 해발 100미터 정도가 경사도 20~30%이내로서 약 23만평의 개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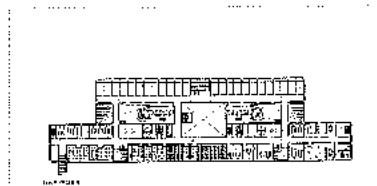
용지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몇가지의 중요한 전제를 두고 계획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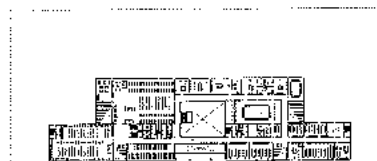
남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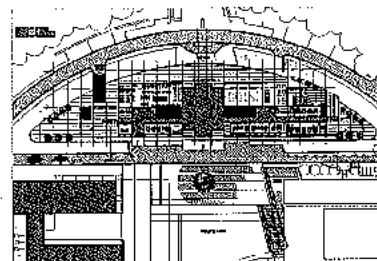
북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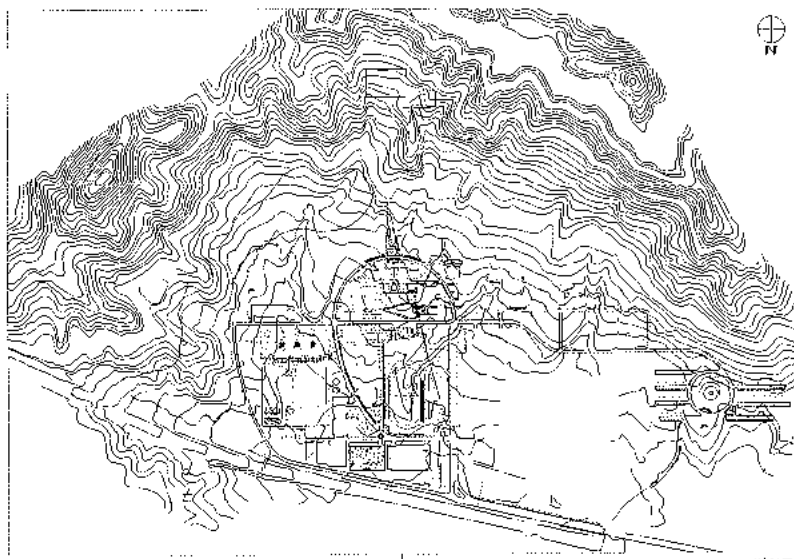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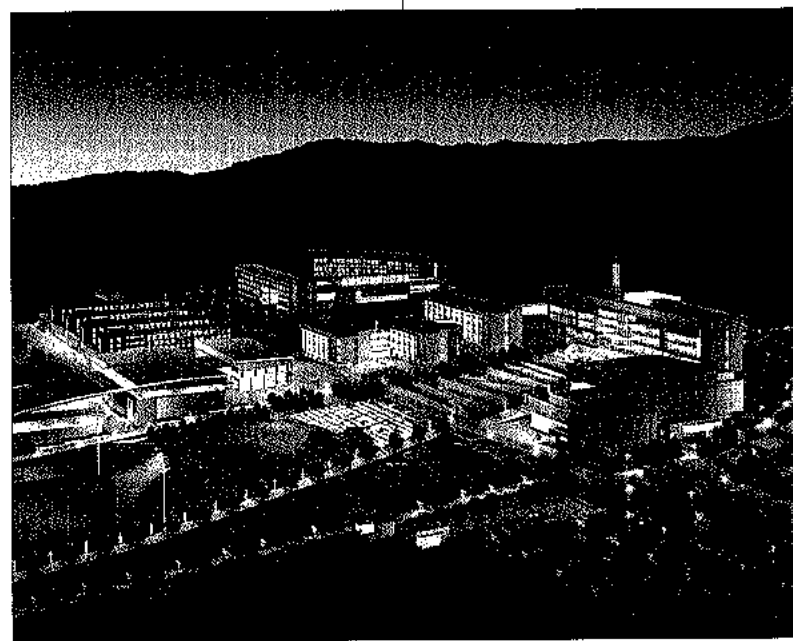
2층 평면도



본관동 1층 평면도



배치도



▶ 우수작 / 간삼건축(오동희) +
공간건축(강성인) + 대림산업·
품림산업·한진중공업

대지위치	충남 아산시 호서동 산4-52 일원
지역지구	준도시지역, 공공시설 용지
대지면적	173,886,551.00㎡
건축면적	34,758.60㎡
연면적	건축 : 93,143.21㎡ 목외시설 : 425,150.45㎡
조경면적	246,728.19㎡
건폐율	6.57%
용적률	16.54%
규모	지하 1층, 지상 5층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주차대수	지하 40대, 지상 1,511대
설계팀	남용희, 박훈석, 홍석기, 윤형석, 강동균, 장하영, 박운석, 윤재석, 박인평, 황윤경, 김진철, 이민선

종합 경찰 학교의 이전 신축공사는 단지 기존 경찰 교육시설들의 수용이 아닌 21세기 경찰위상의 정립과 변화와 발전에 대응하는 유기적 경찰학교의 상징적 이미지를 갖는다. 여기에는 정보화,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찰을 육성할 교육시설에 자연,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고려한 경찰 교육타운으로써의 충분한 시설을 제시를 필요로 했으므로 배치계획은 이것의 민족을 위해 연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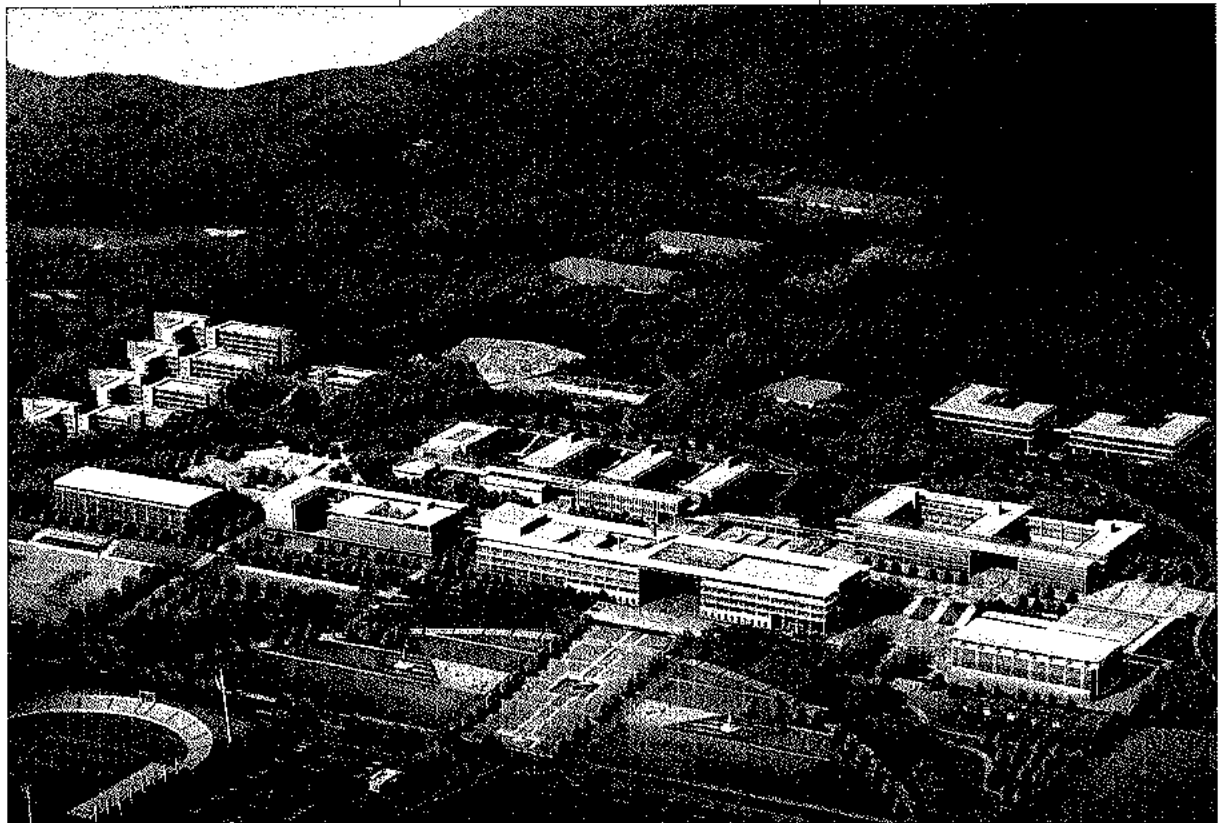
경찰의 상징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축상 배치를 따라 장차 2차 계획의 확장을 고려, 1차 계획은 기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영역에 선정하여 전체계획의 기본 틀을 구축했다. 기능성을 위해 집약적으로 구성된 주요시설 주변에 순환도로를 배치, 명료한 순환체계 구축을 도모하였고, 또한 보행안전성 및 쾌적함을 극대화시키는 campus mall의 구축과 지역주민과의 연대를 조성할 개방형시설이 제안되었다.

주진입도로를 주축(상징축)과 일치시켜 주진입시의 강한 방향성과 단지의 정면성을 부각함으로써 경찰종합학교의 위상을 드러내었고, 명료한 접근체계와 보행자 등

선과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순환도로망은 연계도로망에 의해 각 건물을 지원하여 각각의 영역과 시설들을 탄력적으로 연결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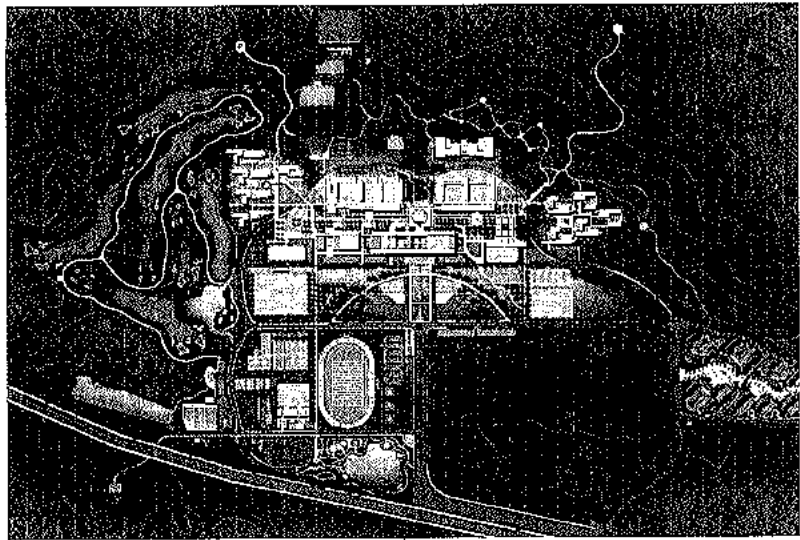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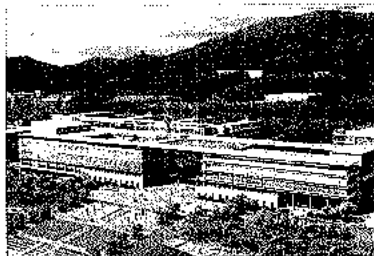
전용 광장을 중심으로 한 보행자 동선은 교육생의 생활을 담은 장소로서 각 시설로의 이동을 녹지와 휴게 공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연결하였다. 경찰교육의 특성을 고려한 집약적인 순환개념의 학생동선, 본관동에서 강의동, 식당동에의 최적 접근성을 도모한 교수동선, 체육관, 대강당, 운동장 등 개방Zone 위주의 방문자 및 지역주민 동선으로 구분해 각각의 특성을 살려 명료한 보행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계획하였다. 캠퍼스 코어 계획은 교육, 생활의 중심공간 그리고 다양한 활동과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수용하는 경찰교육원의 부각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남고북저형 경사면 대지의 불리함을 극복하여 조망, 일조, 그리고 기능성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의 위계 생성을 주목표로, Light filter system등을 적극적으로 채용하였다.

본관동은 주축과 보행자 전용가로의 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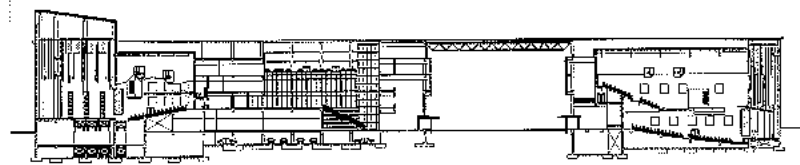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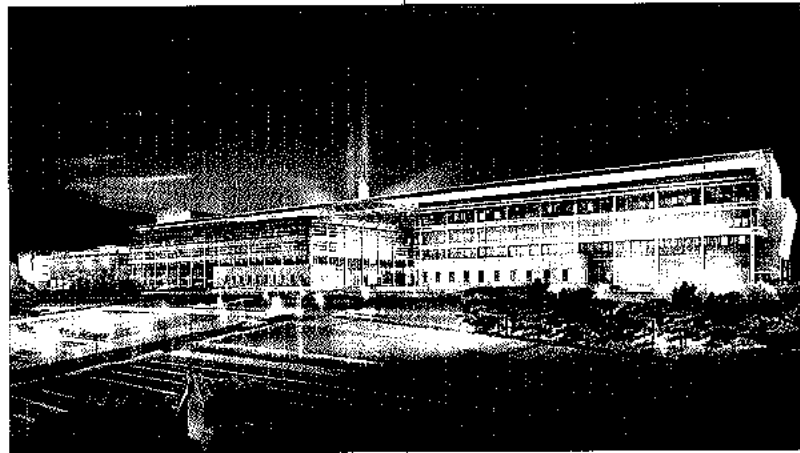


에 위치해 상징성과 기능상의 중심역할을 한다. 교육지원, 사무행정 기능과의 수직, 수평적 Zoning과 외부에서의 접근성, 인근시설과의 이동성이 기본 설계 방향이었다. 각종 행사에 대비하여 별도로 계획된 강당동을 잇는 지붕라인은 본관동의 주출입구와 대지 전체의 입구를 겸하도록 하여 경찰학교의 위상을 강조했다. 본관 내부의 소강당과 중정을 중심으로 순환 복도와 실들이 위요하도록 배치하고 층무 교무과 등의 주요실은 주 가로에 접하는 장변에 위치하도록 하여 위계성을 확립하였다. 중앙의 오픈 스페이스와 중정, 그리고 남측면의 Light Filter System으로 충분한 채광, 통풍을 확보해 복합의 물리함을 극복했다. 또한, 1개층의 수직중축이 기능토록 해 2단계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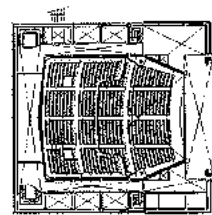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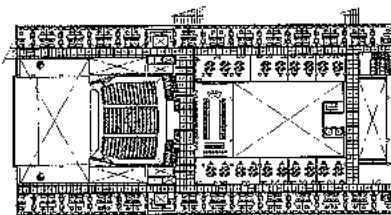
강의동은 강의실 세미나실 도서관의 각 동선 및 Mass가 전면 메인 통로에서 개별 진입하는 시스템계획으로 기능별 독립성을 부여하였다. 중정과 동서방향의 선형 중앙 복도의 아트리움은 Light filter system의 역할을 수행, 동 전체에 빛을 분배함으로써 언제나 밝고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러나 저층부는 외부 보행자로부터의 시선차단을 위해 회강암으로 마감하여 교육생의 면학분위기 조성에 힘썼다. 북측면의 프레임 구조와 남측면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를 노출시킴으로써 대공간을 형성한 체육관은 경찰의 힘을 표현한 구조미가 돋보인다. 강의동과 체육관으로의 접근성을 극대화하도록 배치된 생활관 등은 공간과 동선을 단순 집중화하여 프라이버시의 보장과 공동의식의 함양이라는 상반된 개념을 적절히 조화시켰다. 학생회관/식당동은 동시에 대규모의 이동이 예상되어지는 바 강의동, 본관으로의 동선의 연계와 이동의 편리함을 목표로 계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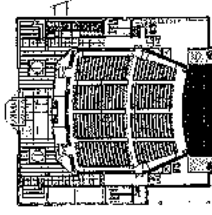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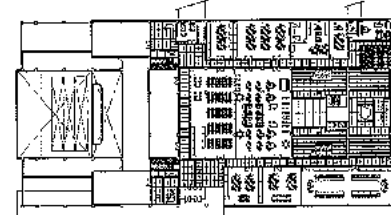
바치도



뒷따마도



3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제주4·3평화공원

Jeju 4·3 Peace Park

▶ 당선작 / (주)공간종합건축사
사무소 (이상림·박유진) +
양택훈 건축사사무소(양택훈)
+ (주)대경ENG(김대환)

대지위치 제주시 봉개동 산 53-5번지 외
4필지
부지면적 390,700㎡(120,000평)
주요시설 제1단계사업 - 상징조형물, 위령
제단, 추념광장, 필수부대시설
제2단계사업 - 4·3사료관, 4·3
문화센터, 전시 및 콘텐츠도입, 기
타부대시설

설계팀 송대설, 정현주, 최봉렬, 배관유,
곽승호, 허 혁, 마연희

4·3사건 희생자의 넋을 위령하고 유족 및
도민들의 아픈 상처를 달래는 평화, 인권을
상징하는 공간 조성의 취지를 담고 있는 이
번 계획은 부지면적 12만평에 위령공간 및
상징조형물, 필수 부대시설과 사료관, 문화
센터 등을 배치해 향후 위령제 등의 행사와
진상규명 및 조사 등 4·3사건에 관련된 전
반적인 활동이 총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
는 공간을 계획하는 것이다.

대지의 형상은 한라산을 향한 정방향으로
대지 중앙에 동인 도로에 의해 상·하 분리
되어 있으며 위령공간 조성 만큼이나 대지
의 연결 방법이 중요한 주안점이기도 하다.
배치는 먼저 전체 대지를 관통하는 수직 상
징축을 설정하여 주요 공간의 출발점으로
삼고, 이 축과 대치되는 시설배치축을 두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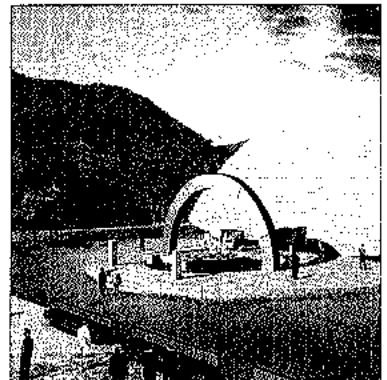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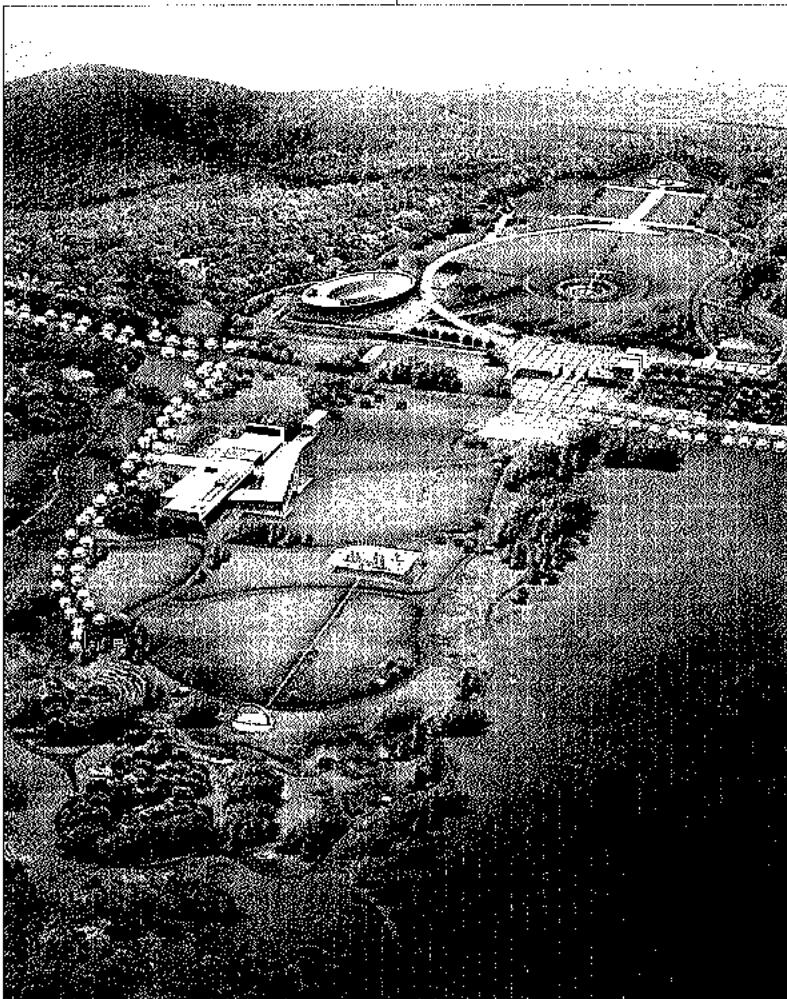
두 축간의 유기적인 수평적인 연결을 통해
방문객으로 하여금 전체 대지를 다양하게
체험하며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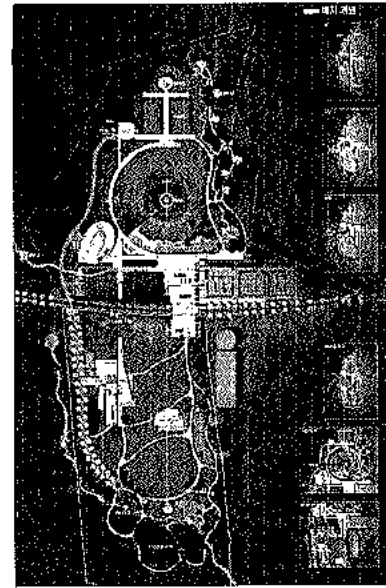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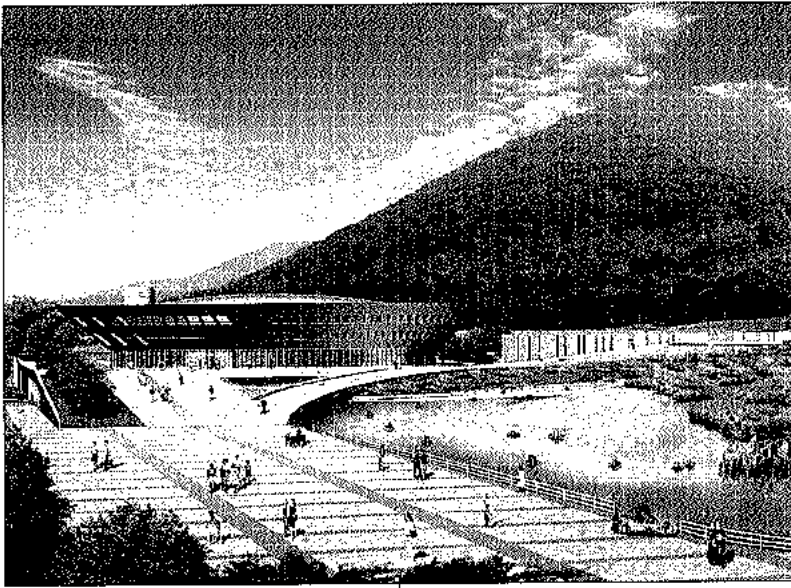
특히, 상부대지의 두 축에 걸쳐 위치한 위
령탑을 중심으로 한 환경의 곡선배치는 밝
혀진 과거의 의미와 묻혀진 미완의 시간을
각각 표현해 현재의 추념동선과 아울러 미
래를 위한 여백의 공간으로 두고자 했다.

그리고, 위령제동의 행사시 위령제단 등 추
념공간으로의 동선 과정은 제주섬의 자연
과 전통마을, 4·3의 기억, 각명비 등 제주
와 4·3사건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프로
그램을 느끼면서 이동하도록 하였고, 궁극
적으로 추념동선의 끝인 위령제단에서 추
념광장, 위령탑, 진입광장, 화합의 장, 상생
의 장으로 이어지는 상징축을 강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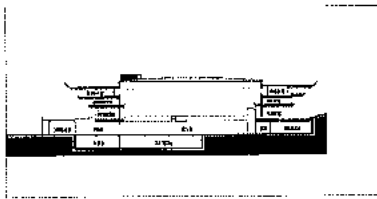
인위적으로 나뉘어진 두 대지는 과거, 위
령, 추념 등을 나타내는 상부 대지와 미래,
평화, 상생 등을 나타내는 하부대지로 개념
화 시키고 지하테마전시관을 통해 과거에
서 미래로의 전환이라는 시간의 연속성과
함께 동선의 연결을 지속적으로 이어주는
장치로 활용했으며, 결국엔 미래를 의미하
는 상생의 탑을 통해 제주 앞바다와 제주섬
의 시작을 상징하는 조천만세동산을 향하
는 시각적 절정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상징조형물은 4·3사건의 과거, 현
재, 미래를 나타내는 위령, 화해, 상생 등의
추상적 어휘와 함께 바람, 바다, 범선 등의
간접적인 요소, 제주의 여인과 같은 직접적
인 요소를 결합시켜 제주 4·3사건을 특정
화 시키기 보다는 보편화 시킬 수 있도록
하였고, 재료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제주
의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제주
고유의 지역성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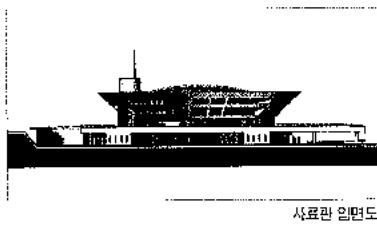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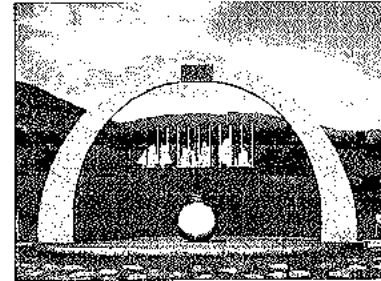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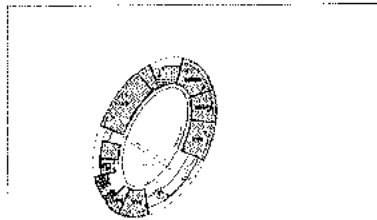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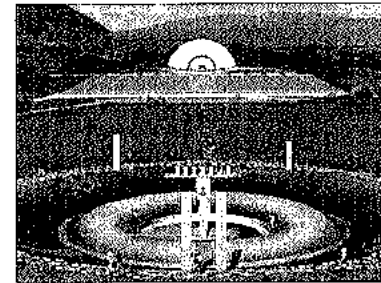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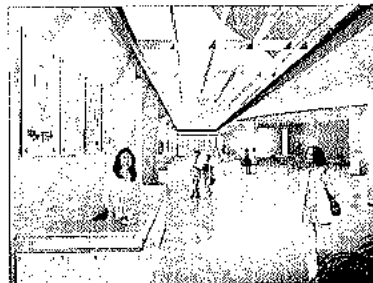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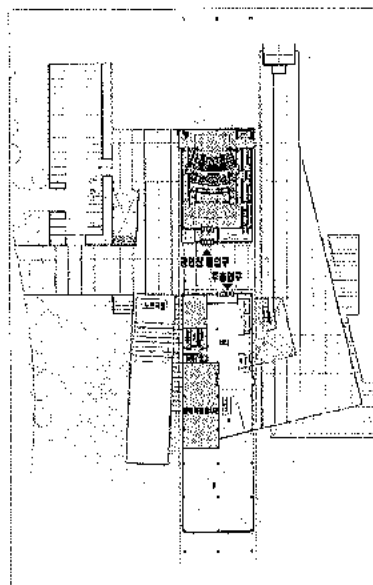
시료관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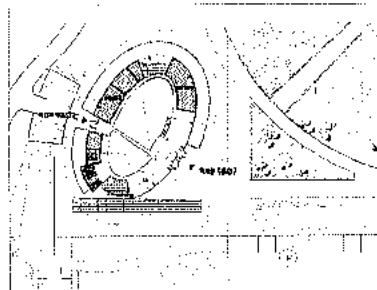
시료관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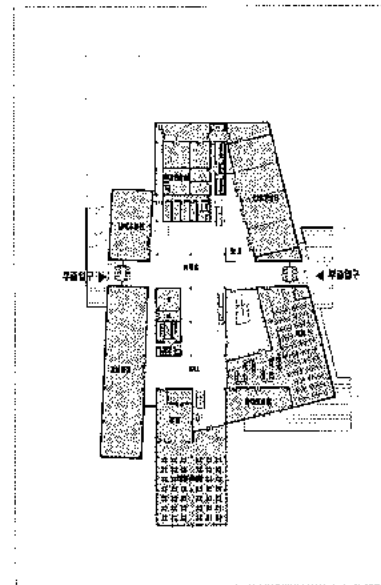
시료관 2층 평면도



문화센터 1층 평면도



시료관 1층 평면도



문화센터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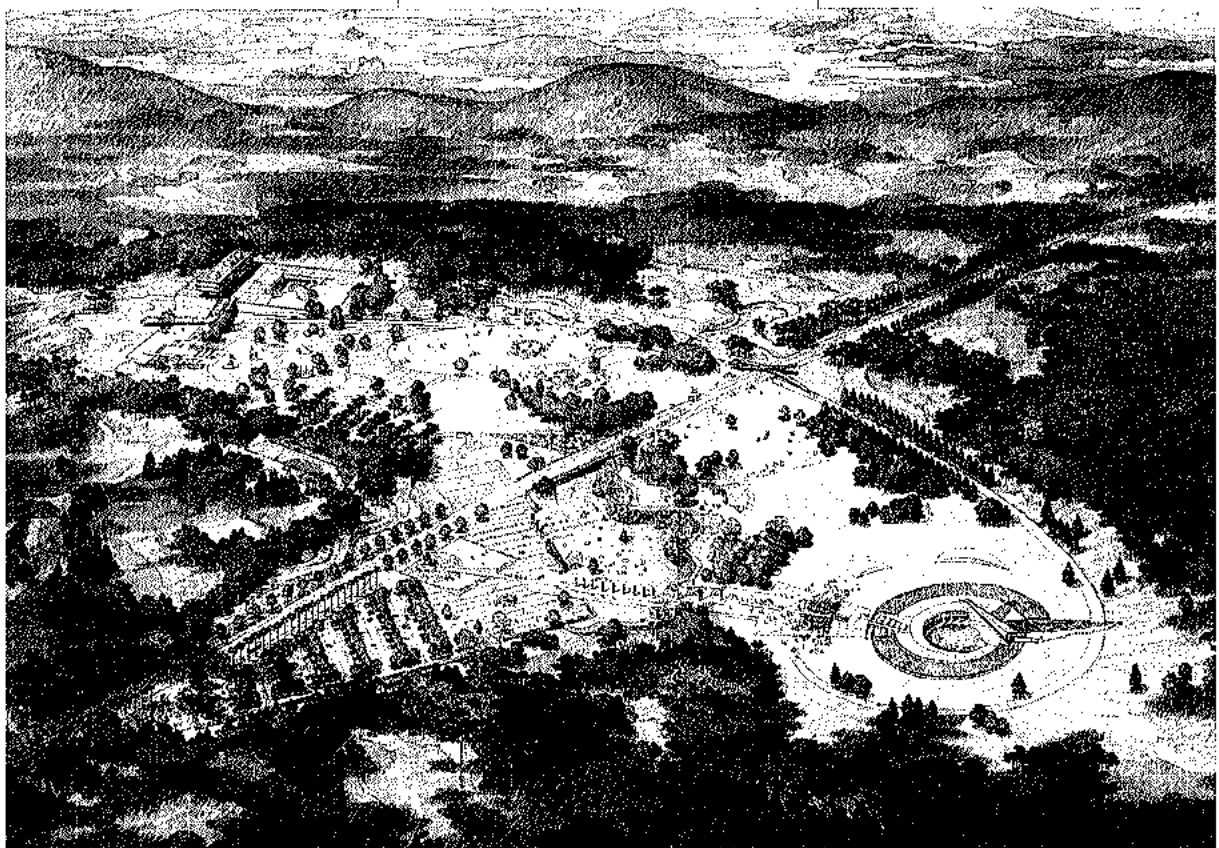
▶ 우수작 / (주)우대기술단(최신현)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이영희·정영균) + 아름다운
세상(이경순) + (주)비오이엔씨
(최재혁) + 으뜸건축(양창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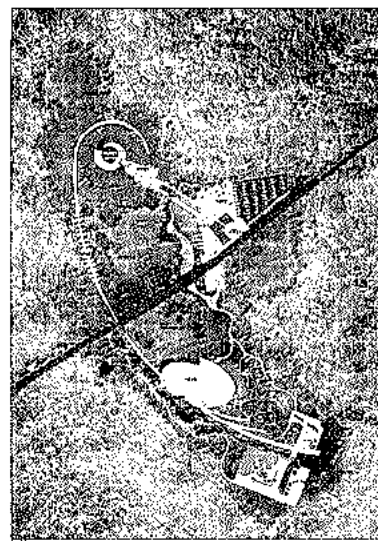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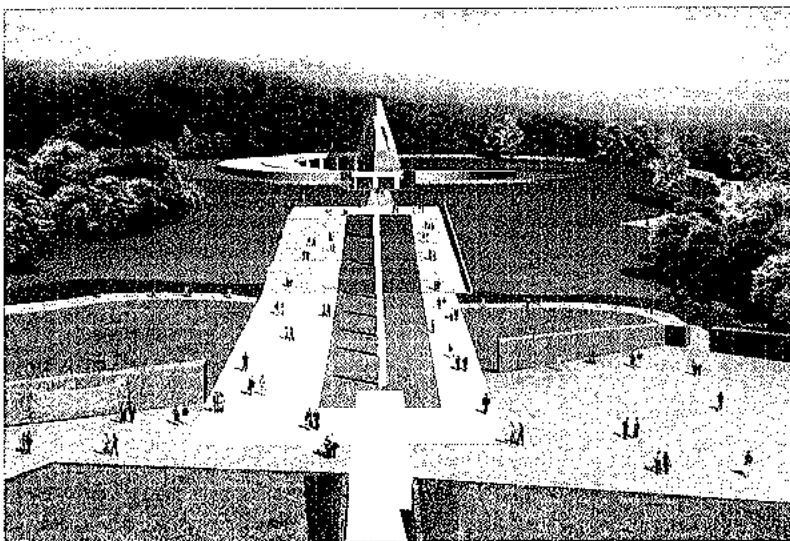
대지위치 제주시 봉개동 산 53-5번지 외
4필지
부지면적 390,700㎡ (120,000평)
주요시설 제1단계사업 - 상징조형물, 위령
재단, 추념광장, 필수부대시설
제2단계사업 - 4·3사료관,
4·3문화센터, 전시 및 콘텐츠
도입, 기타부대시설
설계팀 조경 - 우대기술단 : 권진욱,
신경아, 윤성웅
비오이엔씨 : 김재천, 황두진
건축 - 희림건축 : 조남승, 백봉주,
정낙일
오름건축 : 신희열
조형물 - 아름다운세상 : 최병국,
이경순

제주 4·3 평화공원 현상설계의 대상지
는 오름이 계획부지의 상단부에 위치하
며, 바다가 원경으로 전망되는 전형적인
제주 풍경을 가진 곳이다. 또한 현재 목장
용지로 사용하고 있어 초지가 조성되어
있고, 계획부지 내에는 자연형 건천이, 계
획부지의 경계부위에는 리기다 소나무가
군식되어져 있는 자연경관이 우선되는 곳
이다. 본 현상설계에서는 전체적인 대상
지 계획과 상징조형물, 위령재단, 추념광
장조성을 제 1단계 사업으로, 4·3사료
관, 4·3문화센터, 전시 및 콘텐츠도입,
기타부대시설 조성을 제 2단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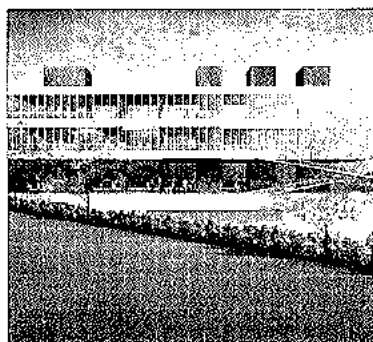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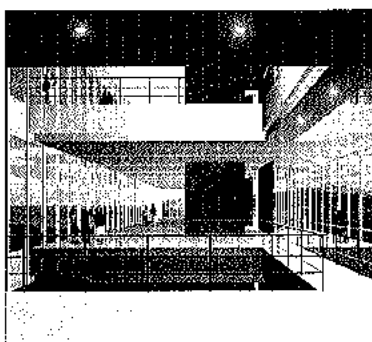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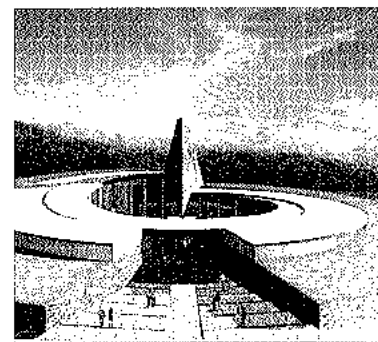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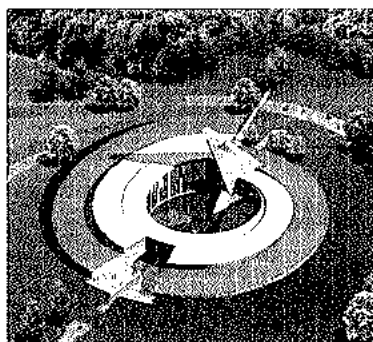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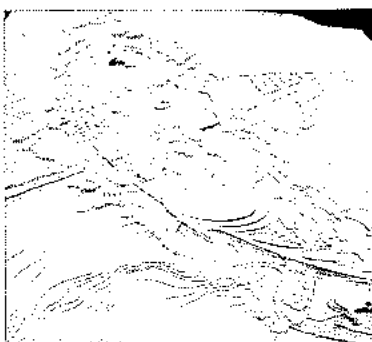
본 설계에서는 자연지형과 생태 존중, 상
징축의 설정, 자연환경의 연출, 시간 고
리의 형성, 시각 경관의 조절을 계획개념
및 방향으로 보았다. 또한, 희생자를 위
한 위령공간으로 4·3 항쟁의 진실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상징적 중심
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상징적인 위령 공
간 조성, 상생과 화합의 공간으로서 더

욱 공고한 도민 공동체 형성의 장으로 역
할함으로써 제주의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한 제주의 정체성 구현의 장, 세계적인
관심사인 4·3 항쟁의 진실규명과 명예
회복 노력을 상징함으로써 인권 신장과
평화 구현의 구심점이 되는 세계적 평
화·인권의 장, 전시, 교육을 위한 공간
은 물론 4·3 항쟁의 의미를 미술, 음악,
공연 등 전방위적 예술형식으로 수용·
표현함으로써 복합문화공간 및 새로운
형식의 관광 명소로서의 역할을 부여한
복합 문화 공간, 향후 진상될 진실규명,
명예회복에 따른 변화와 방전적인 시각
을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를 위한 미래를 위한 여백의 공간조성을
계획의 목표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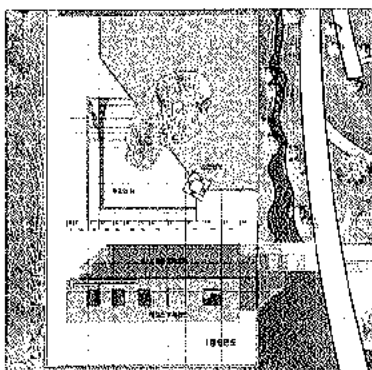




바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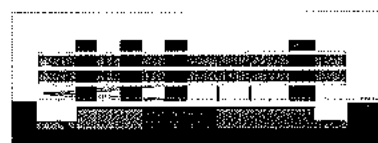
문화센터 2층 평면도



문화센터 1층 평면도



원단면도



총면도

▶ 우수작 / 조성룡도시건축(조성룡)
+ 조경설계서안(주)(정영선)

대지위치 제주도 봉개동 산 53-5번지 외 4필지
부지면적 396,700㎡(120,000평)
주요시설 1단계:추념광장, 위령제단, 상징조형물, (5개소), 건축시설(방문자 안내소, 화장실), 대지조성(눈물못과 바람의 언덕), 기반시설(주차장:소형64, 대형6), 공급처리시설(전기, 급수, 하수), 2단계:상징조형물(3개소), 건축시설(4.3사료관, 기념광장, 4.3문화센터, 휴게소), 대지조성(중산간초지관, 꽃자왈, 생태관찰원, 평화의 숲), 기반시설(주차장:소

형315, 대형7), 공급처리시설(전기, 급수, 하수)

종합계획 조성룡도시건축+조경설계서안 / johsungyong architect office+SEO-AHN TOTAL LANDSCAPE

조형물 안상수(Ahn sang-soo, 홍익대), 조덕현(Cho duck-hyun, 이화여대), 김용익(Kim yong-ik, 경원대)

건축 (주)건축사사무소조성룡도시건축(조성룡, 김정구, 정상철, 현해경, 이장건, 박창수, 백은정, 김경희)

조경 조경설계서안(주)(정영선, 김운희, 박승진, 정우건, 이상은)

모형 조준희, 정명훈, 유승호, 윤인아
사진 윤창진(미래포토)

그래픽 최훈(연장통)
CG 토돈아트

공간구성

망자들의 영혼이 깃드는 장소, 바로 거친 오름과 맞닿은 낮은 산기슭은, 4.3평화공원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의례공간이다. 이 공간은 제례의식의 긴 과정을 상징하듯, 느닷없이 나타나는 평면적 공간이 아닌, 점진적 시퀀스로 이루어지는 연속적 공간구성을 가진다. 상승하는 지형을 따라 「추념광장」-「위령제단」-「빛뜨르」로 구성되며, 이 공간들을 연결하는 「참배의 길」과 「상생의 들」은 공간과 공간사이에 공명을 위한 여백을 만듦으로써, 심도있는 체험을 가능케 한다.

시퀀스(sequence)

01 추념광장

4.3사료관을 돌아 나와 풀밭언덕을 오르면 바로 추념광장에 이르게 된다. 이곳은 산자의 영역에서 망자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중간지대에 해당한다. 여기에서는 넓은 초지 위에 산개되어 있는 수많은 산담과 돌무지들을 만나게 된다. 산담과 돌무지는 추념·기원·만남을 의미하면서 제주의 향토성을 강하게 표현하는 상징적 요소들이다. 200여 미터에 이르는 추념광장을 지나다보면 군데군데 서있는 팽나무들을 발견한다. 전통적으로 제주에서 마을의 정자목으로 심어져 온 팽나무는, 4.3의 역사와 관련하여 잃어버린 마을들을 상징한다. 또한 이 추념광장에는 제주의 15개 읍면을 상징하는 장소가 마련되어 공동체 신뢰회복을 위한 공간으로도 쓰여진다.

02 참배의 길(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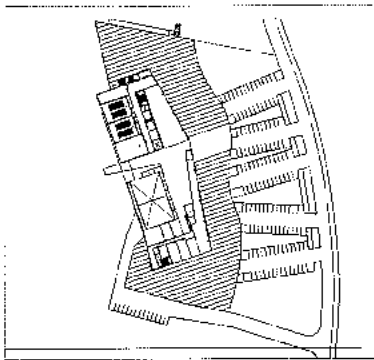
추념광장에서 풀밭을 건너 위령제단에 이르게 하는 참배의 길은, 추념광장에서의 여운을 음미하면서 위령제단에 이르기까지 마을을 가다듬고 추념의 마음을 모으는 전이적 공간이다. 지면에서 살짝 떠서 제단에 오르게 되는 이 길은, 매년 4월 위령제가 거행되는 날에 산자의 땅에 남은 유족들이 망자들의 위패를 들고 경건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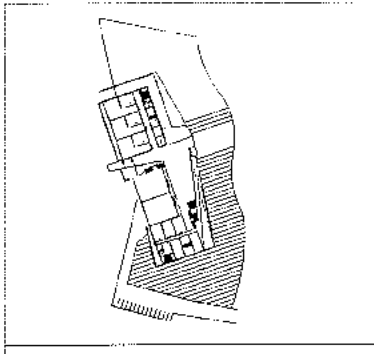
위령제단에 오르는 길이기도 하다.

03 위령제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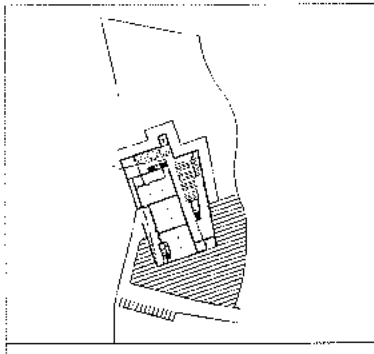
거친오름 아래 놓인 거대한 산담은 바로 이 위령제단이다. 참배의 길을 따라 막상 이 공간에 이르면, 클라이막스를 맞이할 어떤 기념비적 조형물도 발견할 수 없다. 다만 제단 너머로 막막히 펼쳐진 들판과 그 들판을 따라 점점이 이어지는 기둥들의 행렬 뿐. 이는 오랜 세월동안 지속되어 온 상처의 아픔을 인위적 기념물에 응집시키기 보다는, 상처를 품어주고 감싸주었던 대지에 흩어버리고 풀어헤침으로써, 땅 위에 아픔의 상처를 새겨 놓고 기억하게 하고자 하는 설계이념을 표현한 것이다.



컨벤션 2층 평면도



컨벤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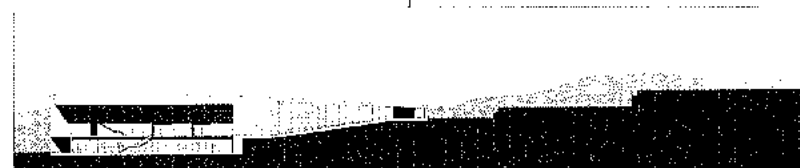
컨벤션 지하층 평면도



배치도



사료관단면



컨벤션단면

서울비즈니스센터

Seoul Business Center

▶ 당선작 / (주)삼우종합건축사 사무소(김형수·박호영)+(주)공간 종합건축사사무소(이상림)

대지위치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 부 지내 공공지원 업무용지1(C6)
지역지구	택지개발지구, 일반상업지역
대지면적	10,074.98㎡
건축면적	5,887.84㎡
인면적	66,586.72㎡
건폐율	58.44%
용적률	427.50%
규모	지하 3층, 지상 15층
구조	철골조,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주차대수	439대(지상 28대, 지하 461대)
주요외장	THK24 컬러복층유리, 알루미늄

설계팀

총 슈트, 더블 스킨 시스템
심우 - 유승호, 이 원, 김희영,
하상훈, 이상우
공간 - 정재욱, 권미정, 배연수,
차하나, 김경선, 김미수

상암동에서 또 한번의 기획을 얻었다.
항상 해오던 일련의 작업이지만 프로젝트
착수할 때의 기대감과 중압감은 건축가로
서 즐길 수 있는 몇가지 안되는 특권중 하
나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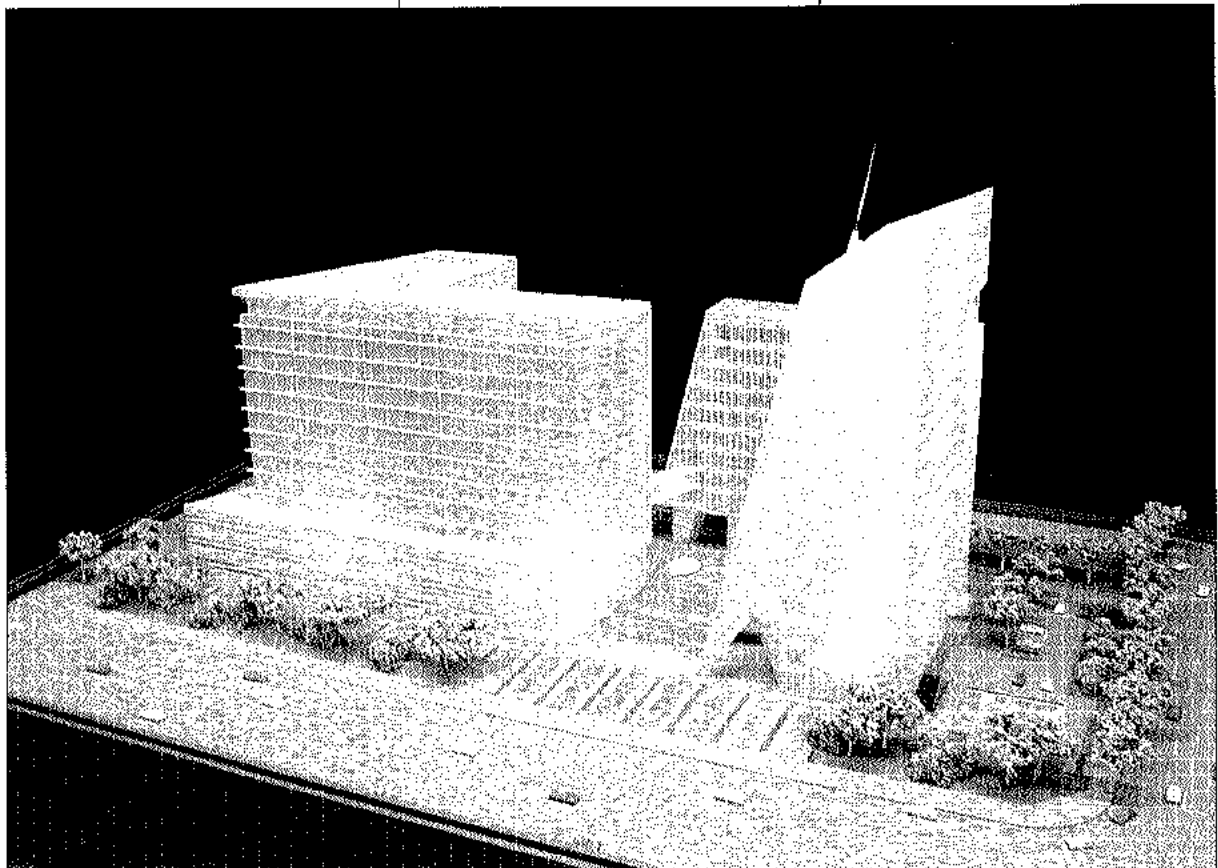
건축가는 항상 기능적이고 합리적이며 경
제성 있는 건물계획에 치중토록 건축주로부터
요구 되어지며 동시에 심미적이며
시각적으로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건축형
태를 추구하며 스스로의 희생을 요구한
다. 특히, 짧은 기간의 현상설계 단계는
이러한 과정의 압축적인 포맷을 보여주게
된다.

본 프로젝트에서도 예외없이 I.T. 산업의
거점이 될 DMC 단지내의 선도 프로젝트
(Leading Project)로서 요구되어지는
랜드마크적 상징성의 구현이라는 과제가

가능성과 합리성 그리고 경제성을 추구해
야 하는 근본 건립목적과 서로 상치될 수
도 있다는 가능성이 일찌감치 예견되었
다. 그렇다면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접 근 할 것 인 가? Information
Technology의 정의는 어떻게 건축적
Prototype이 가능한가? 미래 지식산업
의 발전방향에 대한 대응방안은? 대상부
지가 DMC단지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형태를 위한 논리적인 Metaphor의 가능
성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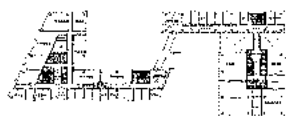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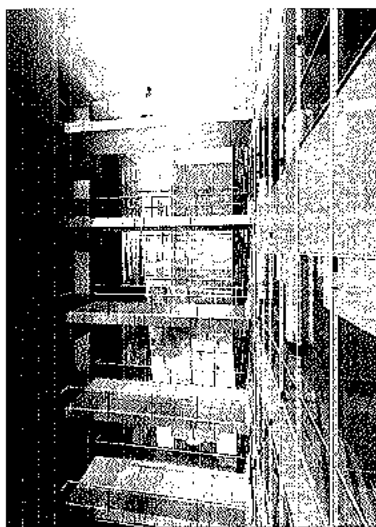
여러 가지의 가능성 가운데서 하나의 대
안을 선택하는 것도 쉽지 않으며, 이것이
기능과 형태의 부조화를 야기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은 과정이다. 하이테크 건
축가인 알슘 스토머의 말처럼 "왜 기능이
형태를 따르지 말아야 하는가?"라고까지
강하게 반문을 해보며 모든 작업과정을
변증법적인 논리로 풀어 나갔다.

결 국, 미래의 정보산업을 「교 류
(Communication)」라는 단어로 설정하
여 '공공(Public)과 개인(Private)의 교
류', 'Soft와 Hard의 결합'으로 전개해



보고, 건축적인 해법으로는 기능과 형태의 결합', 나아가 'DMC단지 전체와 SBC사옥의 결합성'까지를 의미하는 함축적인 단어인 「상호교류에 의한 결합 (Inter-Locking)」으로 최종 디자인 개념을 정의했으며 그에 따른 세부적인 디자인 요소의 도입으로 복잡한 프로그램의 해석과 더불어 이야기꺼리가 많은 건물로 구체화시킬 수 있었다.

짧은 기간에 많은 사고와 논리적인 배경을 전개해 본 시간이었으나 항상 그렇듯이 건축의 일회성(一回性)은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남긴다. 그러나 이야기의 큰 줄거리는 이제 정해졌고 그 범위내에서의 가능한 시도는 앞으로의 몫으로 남겨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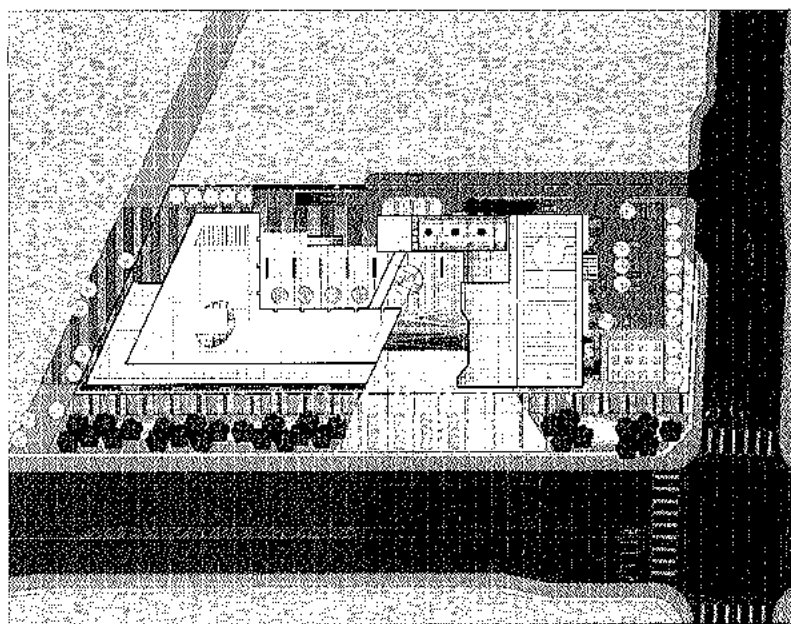
6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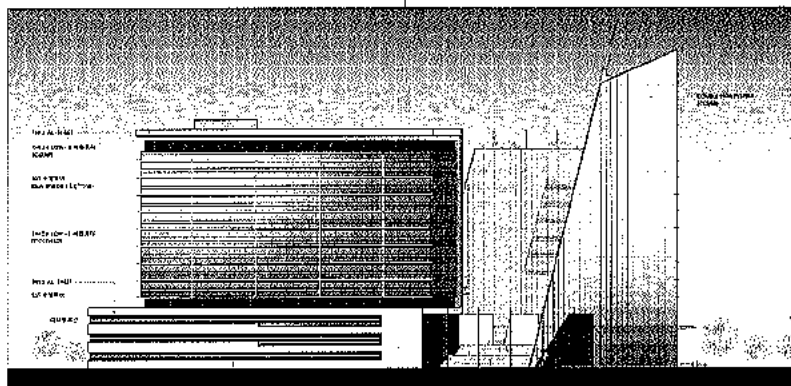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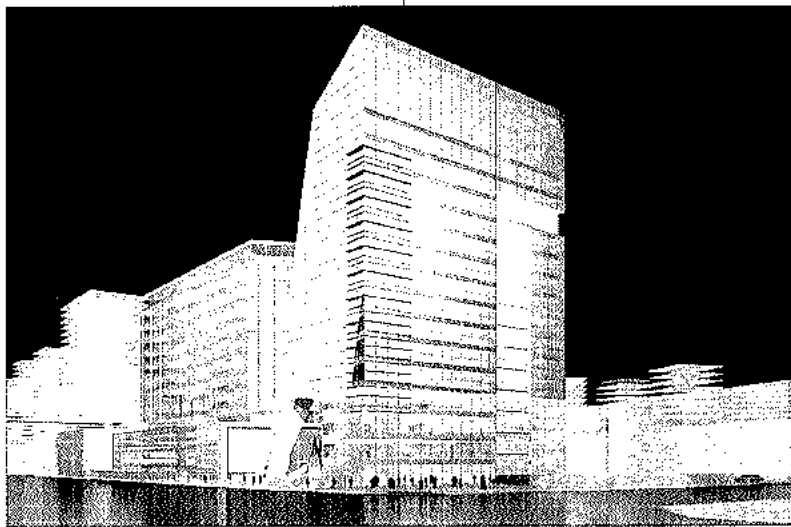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배치도



남측입면도

▶ 우수작 / (주)희림종합건축사
사무소(이영희·정영균)+(주)아키
플랜 종합건축사사무소(김우성)

대지위치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 부 지내 공공지원 업무용지1 (C6)
지역지구	택지개발지구, 일반상업지역
대지면적	10,075.00㎡
건축면적	5,863.38㎡
연면적	68,028.21㎡
건폐율	58.20%
용적률	442.80%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규모	지하 3층, 지상 16층
주차대수	516대(중형63대, 장애인17대 포함)
외부마감	THK24컬러록층유리, 스테인레스 스틸 샌드위치 패널, THK3 알루미늄 쉬트
실제총괄	희림 : 김두연, 아키텍플랜 : 박영석
설계팀	희림 : 박윤태, 김상원, 이영희, 조 일, 김정희, 류제희 아키텍플랜 : 김진수, 최수정, 최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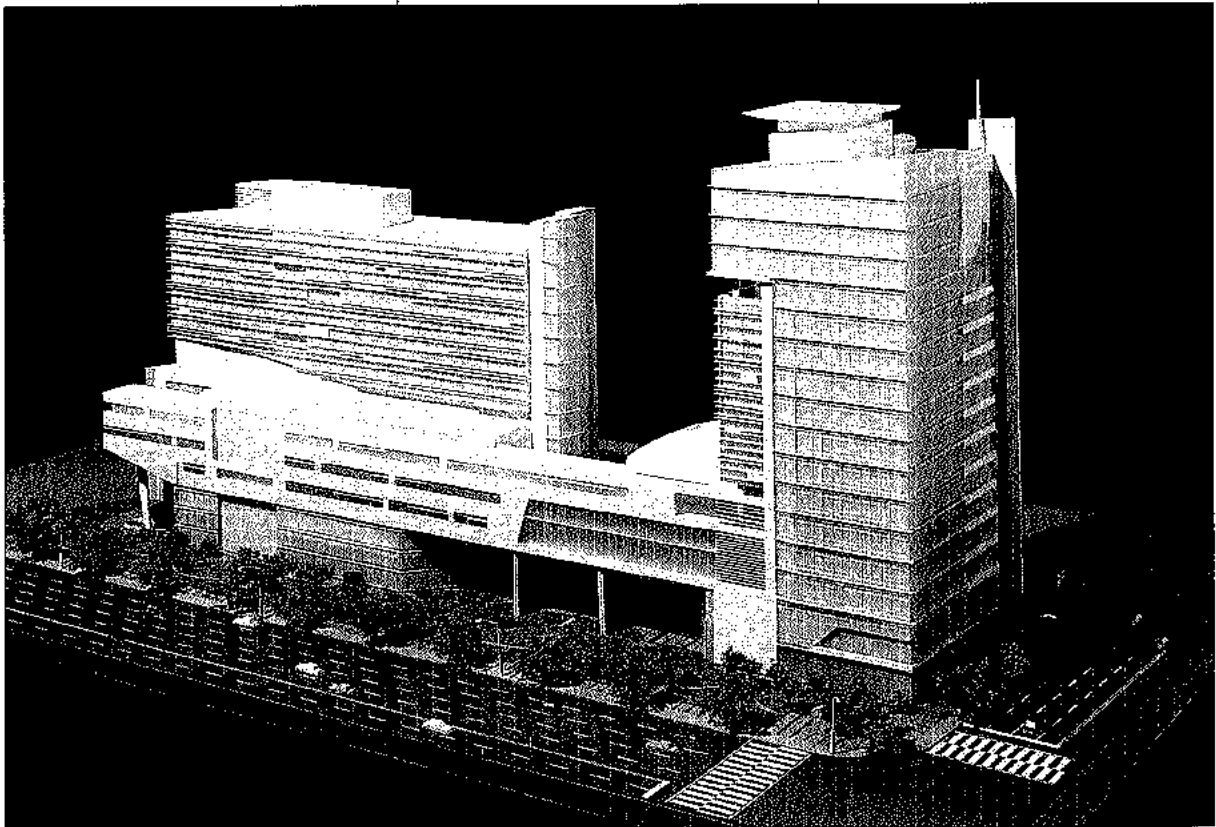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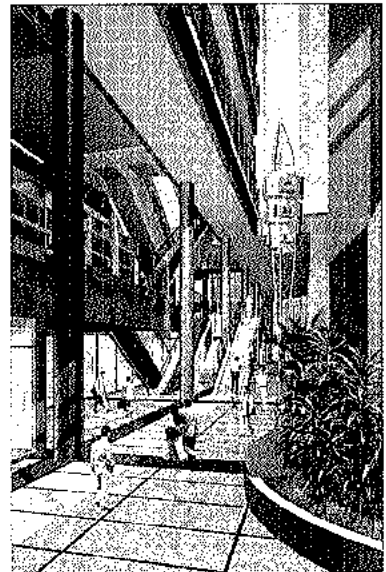
상암동 DMC지역 내에 위치한 서울 비즈
니스 센터(SBC)는 서울은 물론이고 인천
국제공항과 연계되어 국제적인 성격을 지
닌 건물로 계획되어야 한다는 취지 하에
계획이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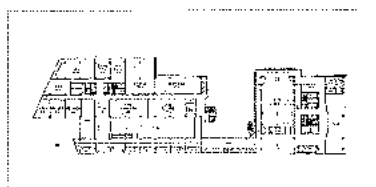
도시계획상 Center of DMC의 랜드마크
적 성격을 부여하기 위해 도시개발공사
사옥을 배치하여 도시질서를 위한 정면성
을 확보하였고, 도시축 및 가로축에 따라
건물을 배치하여 보행자의 접근을 우선적
으로 고려하였다. 또한 대지 전면부에 흐
르는 완충녹지를 건물의 내부로 적극 유
입하여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였다.

벤처 및 연구시설에 아트리움을 설치하여
각기 다른 기능의 연결고리 역할과 자연
채광을 적극 유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앙광장을 설치하여 도시개발공사와 벤
처 및 연구시설을 분리하였고 인접대지의
조망을 최대한 확보하였다. 또한 도시개
발공사와 임대사설의 시류리터를 고려하
여 분동으로 계획하되 도시개발공사의 저
층부에 대강당, 회의시설 및 식당을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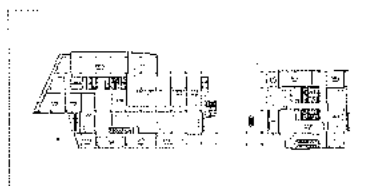
시켜 실의 이용효율이 극대화 되도록 계
획하였다.

DMC 지역내의 시설은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맞는 형태와 디자인으로 계획되어
져야 한다. 이에 앞으로 서울 비즈니스센
터는 21세기를 향한 DMC 지역의 새로
운 도약을 상징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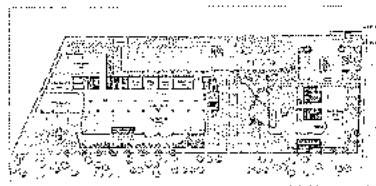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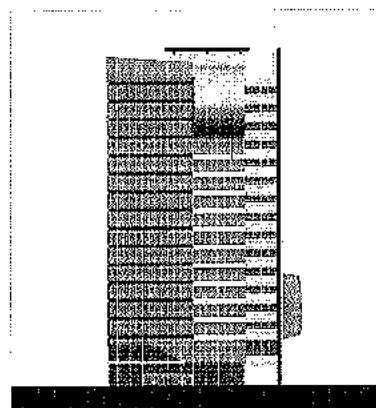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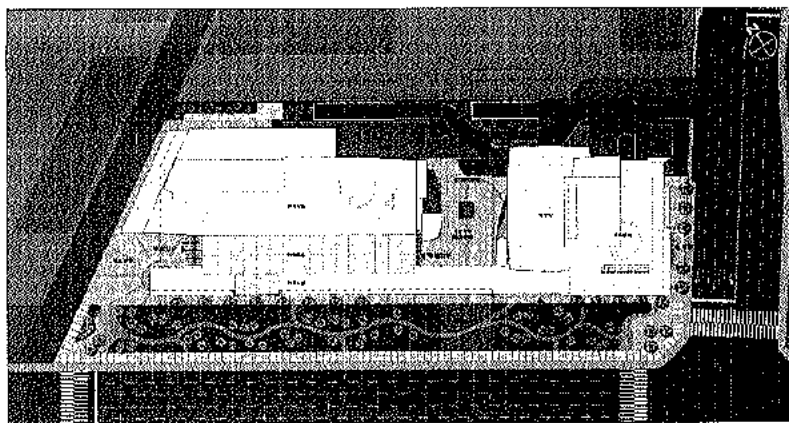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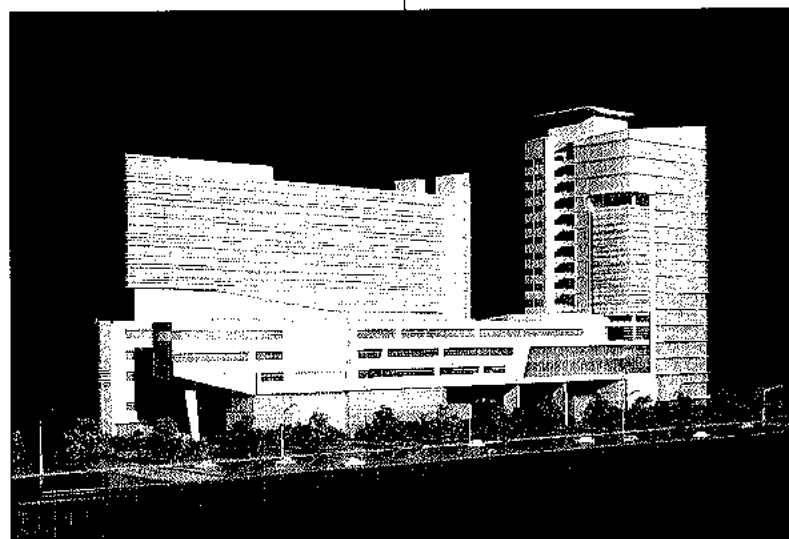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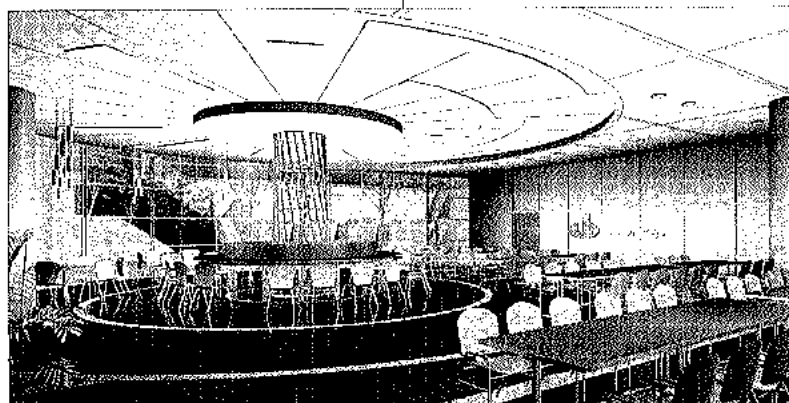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우측면도



배치도



정면도

중랑 청소년 수련관

Joongnang Youth Training Center

▶ 당선작 / (주)우리동인건축사 사무소(노윤경)

대지위치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241-2외 5필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일부일반주거지역, 일부개발제한지역, 일부군사시설보호지역
대지면적	8,356.00㎡
건축면적	1,375.17㎡
연면적	5,109.56㎡
건폐율	18.79%
용적률	37.85%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철골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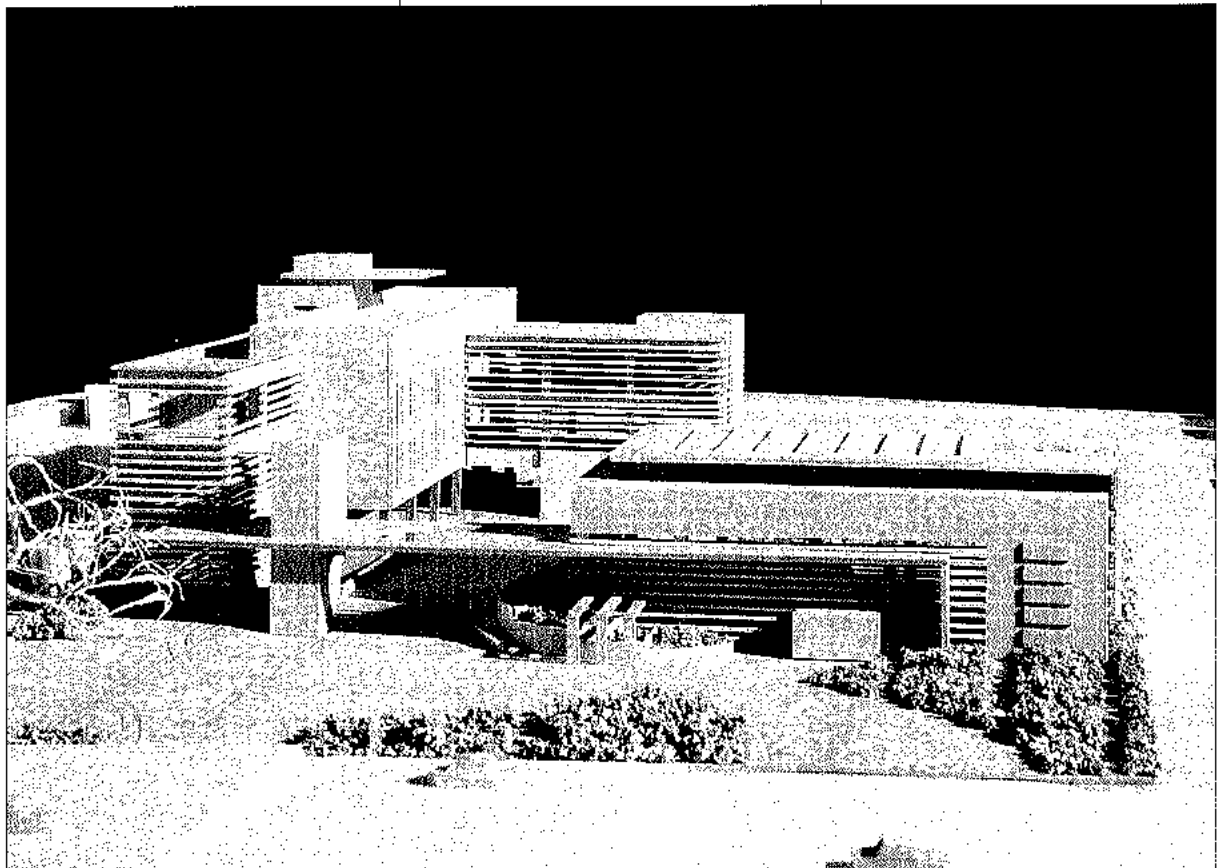
주차대수	27대
외부마감	압출성형시멘트패널, 알루미늄 쉬트, 동판, 컬러복층유리
설계팀	김두환, 김중섭, 최지호, 노경문, 최병용, 유정필, 장성근, 박미영, 류승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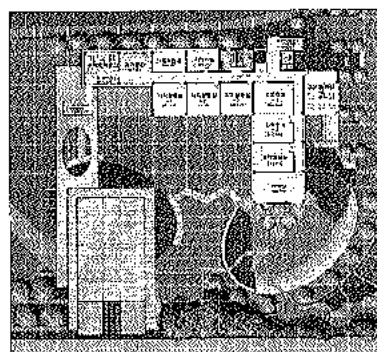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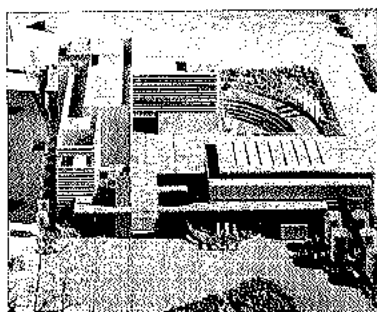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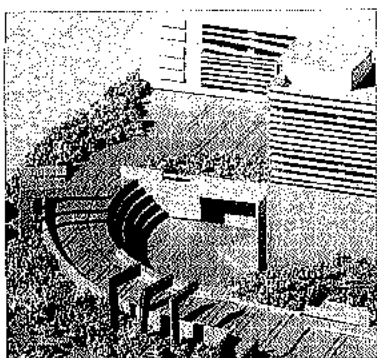
본 계획안 대상지는 서측의 일반 주거군과 동측의 자연녹지군은 청소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하듯 도시와 자연의 경계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축중인 송곡역사와 구룡산의 산세는 개발과 보존이라는 이중적 코드를 동시에 공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중적인 컨텍스트속에서 도시의 끝지점과 자연의 시작점이 어떻게 만나야 될 것인가? 또한, 이것들은 청소년의 행태를 담는 그릇으로서 어떻게 조합되어야 할 것인가?는 계획안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

주변의 나지막한 산세(구룡산)의 흐름이 옥내·외공간(알마당, 놀이마당, 수련의장등)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함으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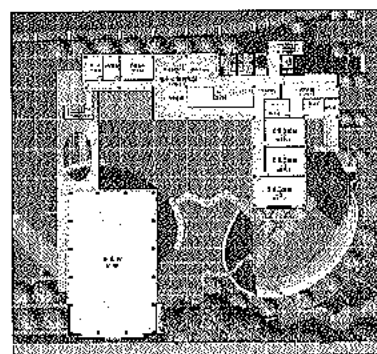
내·외부공간의 상호관입과 유기적 연결을 통하여 다양한 체험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역이 있는 거차길(중앙선)과 평행으로 긴 매스를 위치 시킴으로서 수련관의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청소년) 나름대로의 독립적인 영역을 갖도록 하였으며, 옥외공간이 소음으로부터 보호되도록 하였다. 20M도로 쪽으로는 커다란 옥외공간(전면진입광장)을 두어 송곡역사와의 전면공지가 부족함을 해소 하도록 하였으며, 지역 사회의 만남의 장소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체육관 및 소극장, 청소년 문화의집, 각종 프로그램실등은 청소년 문화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다양성에 부합하도록 가변성을 둠으로서, 필요에 따라 그들의 독특한 행태를 담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가변성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미래의 주역인 그들이 사회의 다양한 변화와 도전 속에서 그들 나름대로 의 꿈과 이상을 키워갈수 있는 장소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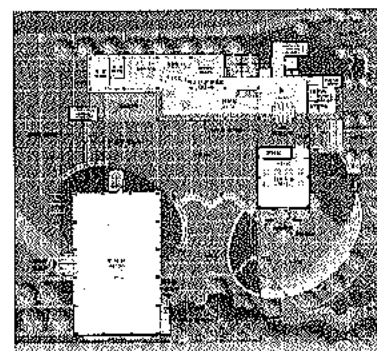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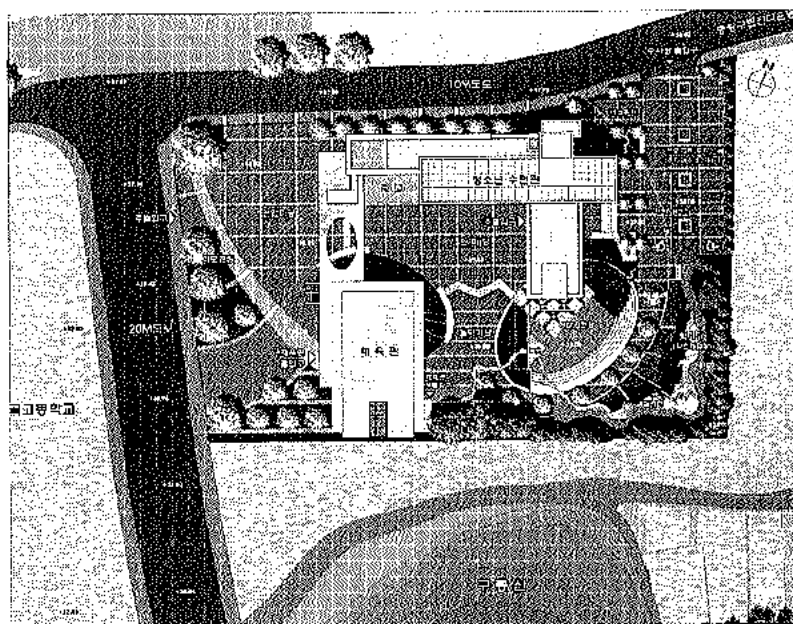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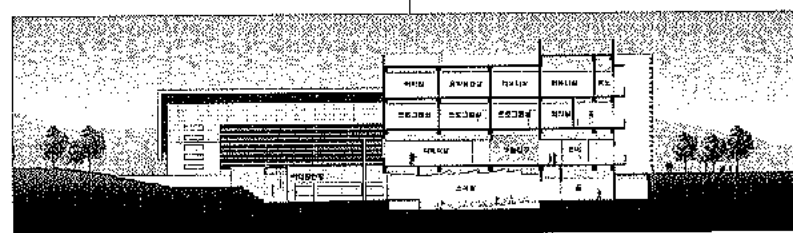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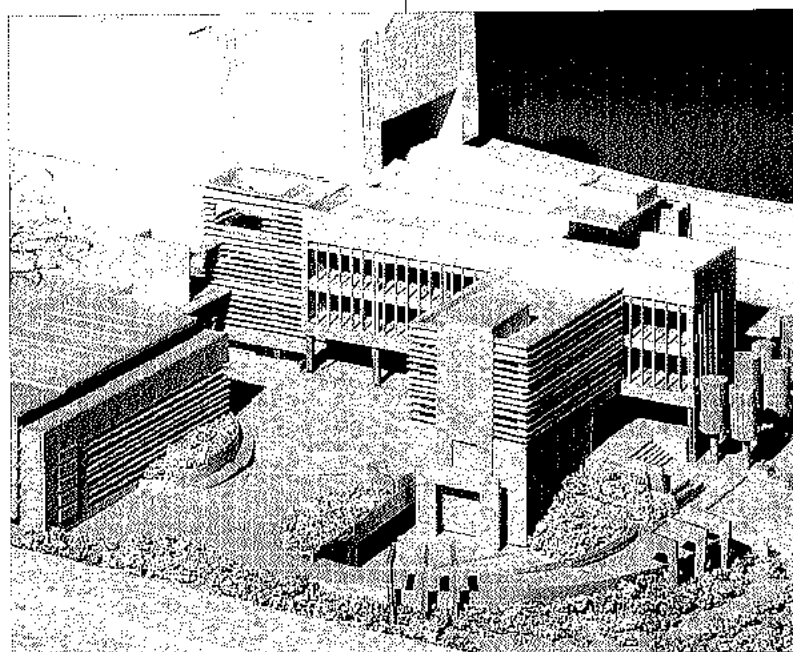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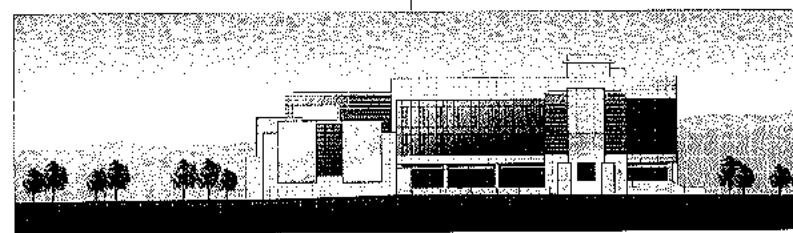
1층 평면도



배치도



단면도



단면도

서울산업대학교 어학원

Language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 당선작 / (주)이래종합건축사 사무소(이인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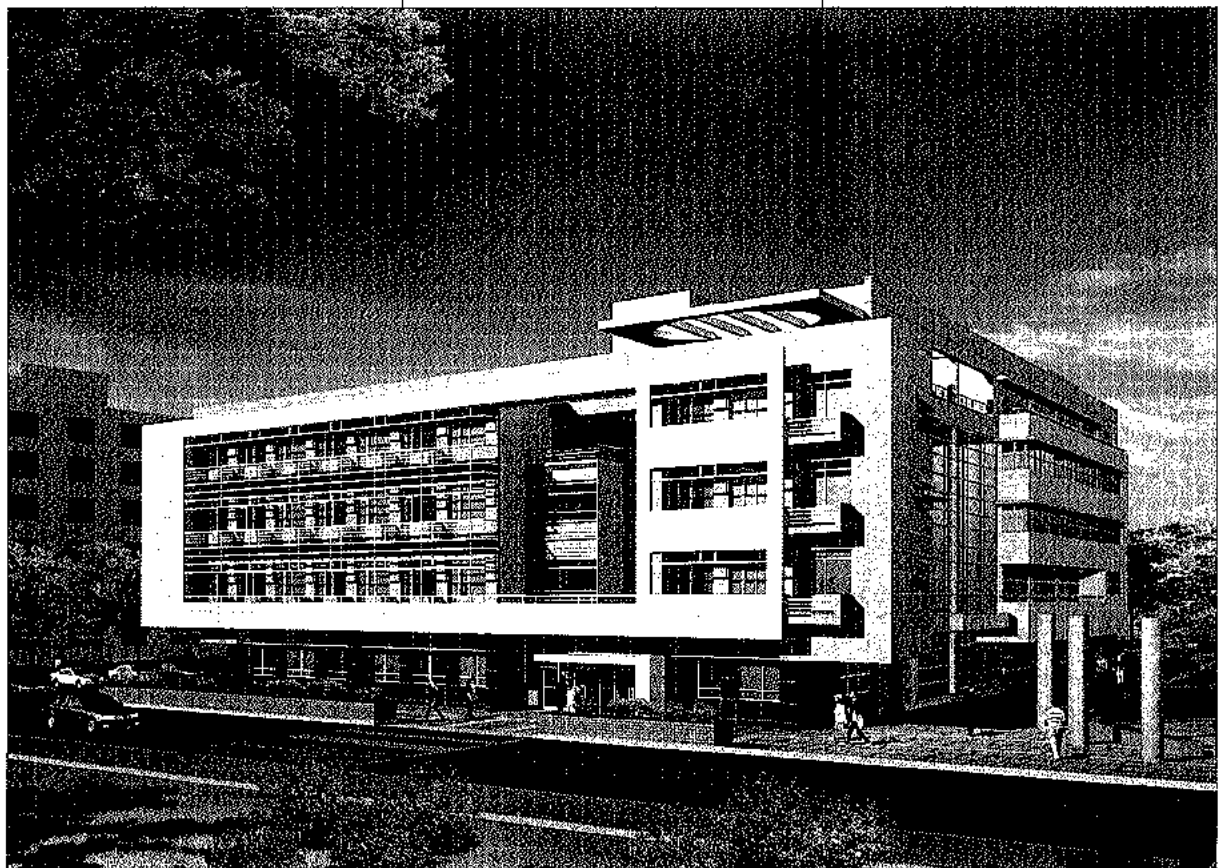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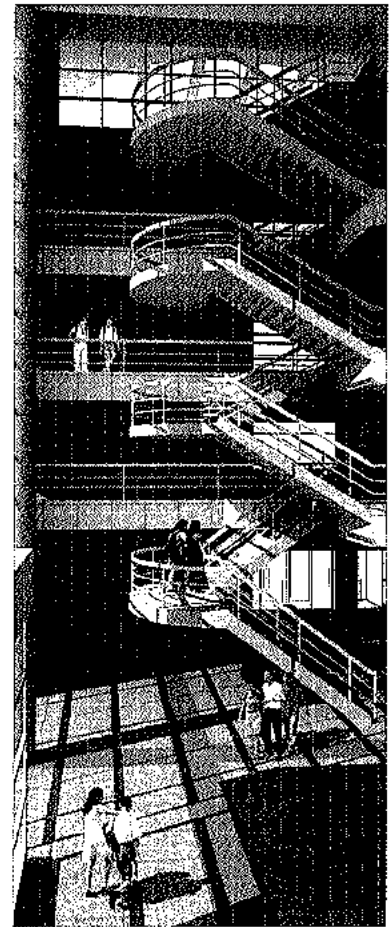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172 서 울산업대학교내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5,195.92㎡ (1,571.76평)
건축면적	1,539.08㎡ (465.57평)
연면적	6,793.71㎡ (2,055.10평)
건폐율	29.62%
용적률	125.09%
규모	지하 1층, 지상 5층
구조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주차대수	36대 (장애인용 3대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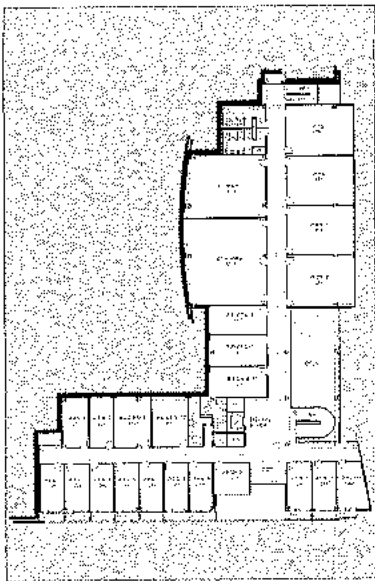
외부마감 알루미늄페널, 화강석, 컬러복층
유리

설계팀 정민희, 정일섭, 한경훈, 김형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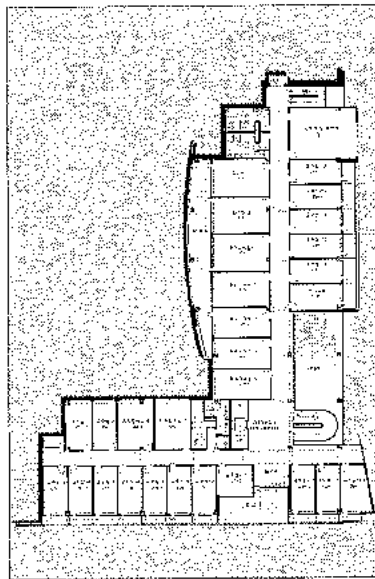
● 계획의 방향

- 대학의 이미지와 시대를 반영하는 조형
-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위한 건물배치와 시각적 개방을 고려한 마스계획
- 장래성장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 부지 이용
- 열린공간/휴식공간/녹지공간 확보로 자연환경과 친화적인 공간계획
- 합리적인 코아배치와 구조계획으로 융통성있는 실구획
- 에너지절약을 고려하여 발코니 및 루버 설치하고 기존수목을 보존하여 녹음수로 이용
- 외부로부터 이어지는 진입공간은 빛과 그림자 그리고 공간규모의 변화로 연출된 역동적 공간으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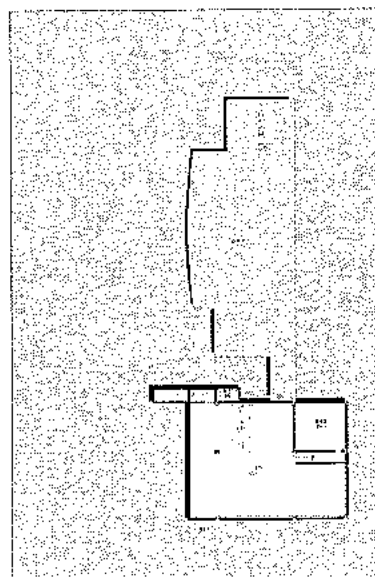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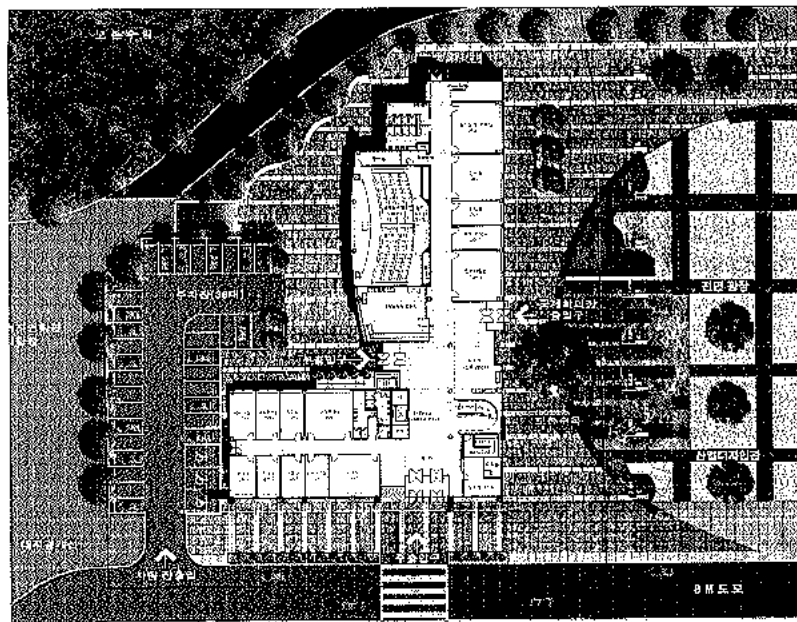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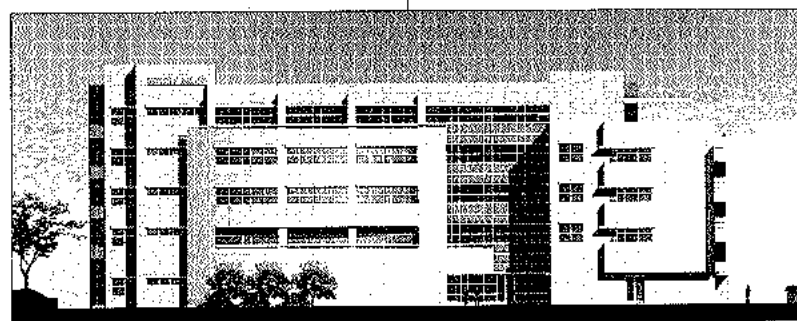
2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배치도



좌측면도



전면도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The Teachings of Confucius

마성호 / (주)엠피종합건축사사무소,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by Ma Sung-Ho

무서운 속도로 변하는 현실세계의 속도감은 어느 타분야를 막론하고, 그 속도를 느낄 수 있는 지금의 상황이다. 매년초에는 새로운 신년의 다짐과 목표의 설정, 더불어 한해를 구상하는 신선감으로 충만해진다. 하나, 바로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속에 한해를 돌이켜보며, 그 시간의 무심함을 다시한번 배우고 또 그 속 공간속에 우리가 있지 않았는가.

94년부터 불어닥친 건축계의 이슈들, 건축교육과 인증에 관한 무성한 논란과 제도에 관한 대비·규정들 그리고 그 변화 한가운데 서있는 우리 건축사들....., WTO 협정서명의 출발에서부터, 또는 뒤늦게 밝혀지기 시작한 서비스 무역의 국가간 완전 자유화 시점의 다가옴이 바로 우리를 그 시간속에 존재시키며 점점 많은 시점 공간을 점유시키고 있다. 굳이 다시 고집어 내지 않더라도 AGP, GATS, UIA 등의 협정에 대한 진행 과정들이 건축사의 자격, 건축 교육 그리고 건축 실무에 관련되는 쟁점들은 벌써 많은 변화를 주었고,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화에 대비하기 위한 자유 경쟁과 자율화라는 목표로 건축사법의 개정, 건축학 전공제의 학제 개편 등 소위 세계시장에서 경쟁국의 건축사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자질을 갖는 건축사를 양성하는 일이 변화된 제도속에 가장 큰 과제일 것이다.

시간의 변화와 세계의 변화속에 이미 기존의 질서와 원칙들은 재편되어 간다. 여기에 세계 시장이라는 큰틀속에 건축계라는 전문가 범주가 앞으로 현상화 되어질 경제적·문화적 논리의 특질이 어떤식으로 대응되어지리라는 것은 쉬운 예견은 아닐 것이다. 제도와 인증, 주관이나 주체 등 변화속의 선행 키워드가 우리 건축 문화에 대한 정체성 논의나, 건축시장의 주류나·비주류나 등에 관한 논의로 쟁점되는 집단의 논쟁보다, 더욱 변화속에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은 과연 어떤식의 교육과 배움의 자질을 갖느냐는, 그런 실제적인 본질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건축사들은 새로운 건축사들과의 조화속에 현실의 건축계를 구성한다. 변화의 중심에 있어야할 건축사들은 새로운 건축사를 어떤식으로 기대하며 그 조화를 가꾸어야하나, 학제는 5년제 대학의 출범으로 인해 커리큘럼의 질과 양이 강조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 대학 교육 또한 실무와의 연계 강화된 제도속에 많은 능력 있는 건축사들이 대학교육에도 참여하고 있다.

대학이라는 교육제도는 실무와의 연계 프로그램강화로 변화되는 사회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대비로 나타난다. 일반 학부 커리큘럼내에서 또는 워크샵이나, 건축사들의 건축학교 스튜디오, 전문대학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장치들에서 실무를 하는 건축사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건축사들의 대학 건축 교육의 참여가 과연 효율적이며, 실제 그 본질 가치에 적합한지에 관한 논의는 특성화 된 각 제도속에 평가를 맡기자. 그 평가는 수많은 변화시간속에 우리 제도들은 이미 몰입하며, 또한 새롭게 변하고 있을 것이니까. 그러나 교육은 제도와 장치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닐것이다. 교육은 학교에만 맡기고, 실무에서는 받아들이기만 할 수 없는 것은 어떤 분야에서건 아주 오래된 숙제이자 현실이다. 교육과 자질에 대한 문제가 변화되는 현실속에 대두된 이 미당에 실무 예비건축사들과 건축사들의 교육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배우기만하고 생각하여 자기것으로 소화하지 않으면, 얻음이 없고, 생각만하고 보편적인 학문을 배우지 않으면 위태로워 독단에 빠지기 쉽다.

지식과 사고의 경험에 대한 가르침은 참으로 큰 가르침일 것이다. 규범을 중시하면서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행동해야 한다는 화합과 자주성에도 그 교육의 가치가 있다. 경험에 의한 선례를 아무 의심없이 받아들이는 태도도 물론 문제가 있다. 경험적 선례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을 앞세울 때 독단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두가지를 어떻게 융화시키느냐가 가장 어려운 점이다.

어떤 제도와 장치를 만들어 실무 교육을 하자는 논의 이전에 실무로 이끌 예비 건축사들의 실무교육은 단순히 사무실 스템으로서의 역할 부여보다, 보다 구체적인 교육행태가 필요할 것이다. 일반적인 현장 학습법인 구안법, 역할학습, 견학학습, 발견학습, 실험학습 등 보다 효율적인 교수법이 실무역할과 병행되어야 할것이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실무 스템들은 하고 있는 일의 목적을 모르거나, 자신의 역할이 사무실에 얼마나 도움이 되며, 클라이언트에게 얼마나 감동시킬 수 있는지 못 느끼고, 자신이 한 일에 어떤 평가가 내려지는지 모르는 일이 있다. 실무학습은 별개의 교육체계가 아닐것이다. 실무역할의 교육책임은 우리 건축사에게 있다. 보다 자질있고 능력있는 경쟁력있는 건축사를 우리들이 원한다면, 내적 교육을 통한 실(實)건축사를 배출해야 되지 않을까.

다음 글을 다시 새겨본다.

“古之學者爲己, 今之學者爲人”

옛날의 학자들은 자신의 내면의 성취를 위한 학문을 하였는데, 지금의 학자들은 남의 눈을 의식한 학문을 한다. 圖

건축사 특별 검사원 제도 Architect's Special Examiner System

최찬환 / 서울시립대학교 건축도시조경학부 교수
by Choi Chan-Hwan

2002년 11월 27일 한국건축·도시법제학회에서는 현안의 문제가 되는 건축사 특별 검사원 제도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제도가 처음 제정될 당시 서울시 실무 담당자였던 정연진 과장(현 강남구청 과장)이 발제 하였으며 공무원, 건축사, 특별검사원, 교수 그리고 한국건축·도시법제학회 임원들이 참석하여 여러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를 긴급 점검하고 진단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여러 건축사가 관심을 가지고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필자 주)

특별 검사원 제도는 무엇인가?

건축허가(건축법 제8조 규정)된 건축물이 완공된 후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 감리자가 아닌 제3의 등록 건축사(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특별 검사원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한다. 특별 검사원 제도의 목적은 건축주, 건축사(설계, 공사감리), 시공자 간의 연결고리 때문에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됨으로서 발생하게 되는 불법 및 위법을 근절하고 건축 부조리를 척결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건축법 제23조)

위법 건축물의 발생과 연계된 건축 부조리 문제는 항상 정책적으로 시정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았고, 이를 겨냥한 여러 법 규제가 제도화되어 운영되기도 하였다.

몇 년전 설계자와 감리자를 분리하였던 “감리단”의 목적 역시 건축주와 설계자간의 발주 계약에 의한 고

객 관계인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이들 상호간의 유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도록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가 공사 감리를 못하고 다른 건축사가 공사 감리 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부조리 대책은 설계자가 공사 감리를 해야 하는 기본적 좋은 취지나 목적에 부합되지 않음으로서 또 다른 본질적인 많은 문제를 가지게 되어 이를 다시 환원하는 등 우여곡절과 함께 정책과 제도가 오락가락 반복 시행되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 즉, 설계와 공사 감리의 분리, 상설 점검반 운영, 다른 구청의 공무원이 합류하여 공동으로 조사확인 점검하는 교체 감리 제도 등이 시행되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특별감사원제도는 서울시에서 강력한 건축 부조리근절이라는 정책의지를 가지고 처음으로 도입 시행하게 되었으며, 허가 대상 중 특히 위법사항이 많은 2,000㎡이하의 소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건축법 제23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규정을 보면 허가권자가 건축사에게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허가권자의 법적 업무이며, 이는 공무원이 공무로 집행해야 하는 고유 업무이다. 그러나 공무원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과 함께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해본 결과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어 새로운 제도 도입을 하게 된 것이다.

“특별감사원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위법시공 발생률이 20~25%에 달했다는 것은 법 집행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정도로 위법이 만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제도시행 2년 후 위법시공 발생률이 4~8%(서울시 자료)로 종전에 비해 크게 줄어들고 있어 제도자체의 효과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도도입배경

건축분야에서 부조리는 건축주, 건축사, 시공사, 공무원 등의 관련자간의 오랫동안 젖어온 도덕성과 윤리의식의 부족, 호트러진 사회환경과 분위기 그리고 잘못된 행정관행, 복잡하고 비현실적인 여러 가지 규제와 절차가 함께 어우러진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건축주의 욕심, 이해 당사자간의 역할 분담과 확실한 실행의지의 결여, 견제와 균형의 상실, 인간관계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유착과 묵인 등이 문제의 큰 원인이 라고 진단되고 있다.

공무원의 상설 점검반을 운영해도 위법이 20~25%에 달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 도입과 시행을 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위법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공무원이 물증이 확연한 건축물이라는 고착된 구조물의 위법사항을 건축주라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끝까지 위법 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며, 과연 설계자와 감리자가 고객인 건축주로부터 계약에 의한 업무 수탁을 받고 고객을 상대로 위법 사항을 적극적으로 감시, 감독하고 이를 제지하며 최종적으로 행정기관에 사실을 보고 할 수 있겠는지? 이러한 여건에서 공사감리자가 위법 건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고 공사 감리만 잘 하면 위법 건축물이 없어질 수 있는지? 여러 가지 현실적 고민을 거쳐 새로운 제도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서울시에서 제도 시행을 위해 1차 여론 수렴을 거쳤는데 대상자는 상·하위직 공무원, 시공업자는 건설업 소지자 및 미소지자로 구분하였고, 건축사는 설계 전문, 감리전문 그리고 행정허가 중심으로 성격을 나누고 규모의 대·중·소를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의 여러 의견을 수렴한 후 2차로 공동 분모를 추출하여 외국사례를 참조한 후 24가지 안으로 최종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특별 감사원 제도를 도입한 것이며, 서울시가 건교부에 건의하여 제도 확되어 시행되고 있다.

시공과정에서 위법 건축물이 발생되고 있으며 감리가 제대로 감리를 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그것이 건축주·설계자·시공사 사이의 부조리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제3의 건축사는 희망자를 모집한 후 구청에서 1차 심사를 거치고 시에서 별도로 위원을 위촉한 후 다시 심사되 명단은 비공개로 원칙으로 하며, 건축시험회에서 자율결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위탁하였다.

특검제의 운영

상설점검을 통한 검사방식에서도 일부 구청에서는 위법건축물의 비율이 45%나 되어 기존 제도 역할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특별 감사원 제도는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끝까지 사용 승인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정책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게 되었다. 특별 감사원 제도의 시행에 따라 준공검사 과정에서 공무원이 배제됨으로서 공무원과 건축주 사이의 유착이나 금품 수수 등의 근절효과가 있어 공무원의 비리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는 별도의 효과도 있었다.

사용검사의 사실 행위는 감리자가 하고 공무원은 감리자의 제출서류에 따라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는 증명서 발급행위를 맡음으로써 건축물 위법의 모든 책

임을 감리자가 지도를 되어있는 현행규정도 공무원 보호 장치라고 할 수 있다. 특별 감사원 제도의 시행은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 틀림없고, 특히 공무원의 검사업무 배제와 제3자 대행, 감리자의 역할 한계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러나 특별 감사원 제도의 비리가 적발될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하게 되어 행정처분이 아닌 형사고발로 엄중하게 문책하고 있다. 특검제가 시작된 후 위법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어 건축주와 시공자가 준법정신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감리자의 입지나 위상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여하튼 특검제 도입 이후 4%까지 위법건축물의 비율이 축소되었다는 것은 효과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별 감사원 제도의 운영상 감사원에 대한 비밀보장을 위한 명단 비공개, 운번제, 순한제 등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별검사 처리시간은 24시간 이내로 되어있고, 구청의 지정요구, 그 다음으로 협회에서는 감사원 지정 절차를 거치면 실제로 8시간 정도이고, 현장조사검사시간은 4시간도 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시간부족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특검제의 특성상 시간을 지체하게 되면 부조리가 일어날 수 있고, 신속한 조사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는 논리가 있으나 절대 시간의 부족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것 같다.

검사수당에 관해서는 법규에 건축허가 수수료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경우 검사비가 건당 900원~1200원 수준에 불과해 현실성이 전혀 없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특검기술자 1일 인건비에 해당하는 14만원(2001년도 기준 금액)정도를 지불하고 있으나 업무내용이나 책임 그리고 작업량에 비해 검사비가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내용이 많으며, 그것도 약4개월이 지연되어 지급되고 있다는 불만이 있다. 법적으로 규정된 터무니없는 금액에 비하면 행정 재량으로 특단의 조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수당지급에 관한 부분은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법령, 규정, 조례로 별도 수당을 마련할 것을 건설교통부 및 국회 건교위에까지 요청하였으나 실패하였다고 한다.

경기도를 살펴보면 각 지방 자치단체별로 운영방법이나 비용이 다르고 시행 초기단계에 상당한 혼선이 있다. 서울시에서는 특별교부금이라는 예산을 통해 구청에 소요예산을 지원하였으나, 이것 자체가 특별교부금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계속 시행을 하는데 한계가 있고, 2003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어 제도의 존폐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예산의 뒷받침

이 없으면 시행이 어렵게 되고 꼭 해야할 일이나 비용부담이 문제가 된다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행정비용으로 보고 건축허가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또는 특별 감사원 제도가 공사 감리를 법적으로 확인해주는 절차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감리비에서 비용 부담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어떠한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법규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현재 조사비용은 1회로 한정되어 있으며, 재조사에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는 등의 비현실적인 문제 역시 개선해야 한다.

비용부담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제도시행을 위한 초기 단계에서는 정책적 관점에서 서울시가 특별교부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원칙적으로 구청에서는 종전에서와 같이 공무원의 준공검사를 요청하기 때문에 제도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더욱더 검사비를 부담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다. 이 제도는 허가권자인 구청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나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의 불신, 비리 만연의 구조적 문제를 단절시키겠다는 정책결정에 의해 타율적으로 시행한 것이어서 존립기반이 약하고 예산의 뒷받침이 없다는 점에서 존폐가 불투명하다. 서울시에서는 제도적으로 계속되기 어려운 반면 경기도는 새로 시작하고 있으며 건교부는 법규개정으로 건축사대행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나 건축허가수수료의 일부를 검사비로 지불할 수 있다는 현실성이 전혀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실정이다.

특검제 운영의 문제

특검제는 그야말로 일상화 된 것이 아닌 특수하고 특별하며 한시적인 경우에 국한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제도 개선에 의해 보완되어야 하는 원칙에는 어긋나 있다. 또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민간 건축사에게 대행하도록 하면서 감사원과 피검사자가 모두 건축사라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감사원의 소속감이 결여되어 있으며, 신분과 업무수행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또 특검제가 공사 감리의 법적 확인 절차라고 하면 감리자의 업무수행에 직접 연관되고 위법에 대한 감리자의 책임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위법의 원인 행위가 건축주의 이익을 높이려는 건축주의 집요한 요구나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건축주가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시공자의 위법행위도 마찬가지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힘없는 업무수탁자가 항상 희생되고 위법

의 근원적 방지는 어렵다.

검사원의 성향과 자질 그리고 업무처리의 내용에 관한 문제이다.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경우 형평성 시비와 함께 객관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개선방향

검사 및 확인업무의 구체적인 매뉴얼을 작성하고 현장조사 기준을 체크 리스트로 작성하여 객관화 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검제에서 지적한 사항이 곧 바로 감리자의 행정처벌로 이어지는 것을 지양한다.

또한 현장에서 발행하는 사소한 변경사항 (신고사항이나 일괄변경사항 등)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주·시공자에게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불이행시 당사자를 처벌하도록 유예기간을 마련하여 일방적으로 감리 건축사를 대상으로 행정처벌이 남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현장 상황의 특수성이나 불가피성에 대한 충분한 배려와 조정을 통해 현지 실정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특별 검사원의 훈련, 교육이 뒤따라야 한다.

특별 검사원 제도는 공무원의 당해 업무를 위탁 대행하는 것이어서 한시적으로 운용하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요 비용을 현실화하여 지급되는 것이 필요하다. 건축주가 건축허가 수수료의 형태로 부담하는 방식이나 감리비에서 부담하는 방식 등 수익자가 부담하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축 부조리 문제는 허가권자와 공무원, 건축 관계인의 건축진반에 대한 의식전환과 의지 그리고 사회환경으로 해결될 문제이지 업무관계로 형성된 인간관계를 부조리의 연결 고리로 생각하여 이를 차단하는 것은 일시적인 해결방안은 되겠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또한 공무원이 해야 할 공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하고 같은 건축사가 수검자가 되는 현재의 체계는 상호분쟁의 소지를 가지게 될 뿐 아니라 낮은 수수료와 형사책임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사의 위상이나 신변에도 큰 문제가 되는 일임으로 깊이 재고하고 검토되어야 한다.

특별 검사원 제도가 결코 행정편의나 건축사의 사회봉사라는 것으로 걸 포장되어 많은 문제점을 잉태한 채 이대로 계속될 수 없다는 생각이다. 그것은 특별 검사원 제도가 행정편의에 의한 일반적인 발상이며, 공무원이나 건축사가 자발적으로 동기 유발한 것이 아니다. 또

한 법적·제도적으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이 전혀 되어있지 않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낫은 일 그리고 위험부담이 있는 현장에 관한 일을 건축사가 도맡아 하고 공무원은 사용검사 교부필증 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단순히 업무대행에 불과하다. 권한의 위임이나 민간 이양이 법적·구조적으로 불가하다고 볼 때 현행 특검제는 건축사가 공무원의 현장 조사 검사 확인업무를 맡아 공무원을 보조해 주는 조력자에 불과하며, 소량의 검사수당이 미끼가 되어 엄청난 책임을 지고 때로는 신분상 처벌까지도 감내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물론 건축사의 사명감, 그리고 사회봉사에 차원에서 자원 봉사하는 좋은 마음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건축사와 공무원과의 역할관계, 건축사 상호간의 검사자와 수검자 위치에서 마찰과 갈등으로 발생하는 상호불신, 그리고 건축사가 민원행정의 혼탁한 과정에 노출되어야 하고, 이를 부닥쳐야 한다면 건축사의 긍지와 자존심을 크게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며, 사회적 위상이 크게 손상될 가능성이 크다. 

건축계소식 / 99

세무안내 / 104

2002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명단 / 105

건축계소식 archi-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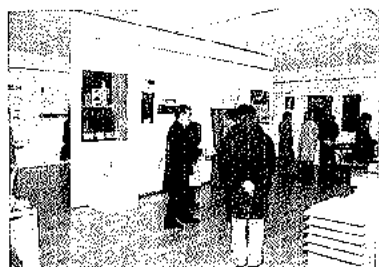
2002년도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468명 합격, 9.8% 합격률

건교부는 지난 9월 실시한 올해 건축사 자격시험의 합격예정자 명단을 11월 27일 발표했다. 이번 시험에는 총 4천 9백 76명이 응시한 결과 468명이 합격해 9.4%의 합격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합격률 13.1%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합격자예정자 중 여성합격자는 총 57명으로 합격예정자의 12.2%를 차지했다. 최종합격자명단은 이들 합격예정자에 대한 학력, 경력 등 서류심사를 거쳐 내년 1월 24일 관보, 건교부(www.moct.go.kr)와 우리협회(www.kira.or.kr)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2002건축설계교수협의회 작품전

우리협회 1층 전시장에서



올해 초 창립된 건축설계교수협의회가 주최하는 전시회가 지난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우리협회 1층 전시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전시회는 「건축설계의 경계를 넘어(Architecture Design Boundary Beyond Campus)」라는 주제로 12월 14일 오후 3시에 심포지엄도 함께 개최됐다. 문의: 011-324-1482, 02-320-1482

고려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착공

설계는 삼우설계에서

고려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이 개교 100주년인 오는 2005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 10월 11일 기공식을 가졌다. 건축면적 1,387평, 연면적 6,968평의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지어질 이 건물은 지난 3월 준공된 중앙광장과 함께 고려대학교 캠퍼스 종합 마스터플랜의 하나로 추진되는 두 번째 사업이다. 내부에는 상설전시실과 국보급 문화재를 수장하는 향온향습기능 수장고 그리고 문화정보센터로 구성되는 박물관과 정보검색실, 멀티미디어 열람실 및 강의실, 그룹연구실, 디지털 카페 등을 포함하는 디지털 도서관으로 크게 이루어진다. 시공은 삼성건설에서 맡는다.

「늘푸른 환경조경설계공모전」 결과 발표

대상에 '광화문르네상스'



(제)늘푸른과 (사)한국조경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3회 '늘푸른 환경조경설계 공모전'의 결과가 발표됐다. 올해로 3회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쾌적한 도시 환경 모색을 위한 '전개(展開)'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는 도시 환경이 하나의 네트워크 시스템이라면 각각의 개별 공간들이 전체 도시의 부분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상징하고 자연친화적, 문화적,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도시환경을 요구한 것이다. '그린네트워크', '문화네트워크', '네트워크미디어' 세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공모전의 심사결과 대상(환경부장관상)에는 조웅철, 김철현, 아문석(경희대 디자인전공)씨의 '광화문르네상스'(문화네트워크), 최우수상(서울특별시장상)에는 김진태, 김경환, 이은기, 김정훈(고려대 원예학과)씨의 '제5대 문명의 발상지'(네트워크미디어), 최우수상(한국조경학회 회장상)에는 김혜진, 정해령(서울시립대, 전남대 조경학)씨의 'Mobile Space'(문화네트워크), 최우수상(대한주택공사 사장상)에는 이상수, 이인기, 김지선, 공희란(서울시립대 건축학)씨의 '틈'(그린네트워크)이 각각 수상했다. 이외에 우수상 3점, 특선 6점, 입선 25점이 선정됐다.

부산시 금정구청 주최, 「靜·方·形」건축전시회

금정구청 구민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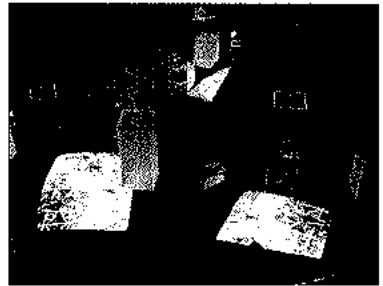
부산 금정구청 하가민원과 주최로 건축 전시회가 열렸다. 「靜·方·形」을 주제로 인제대 우산구 교수와 건축사진가 이인미 씨가 참여한 이번 전시회는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20일까지 부산 금정구청 구민홀에서 있었다. 이번 전시는 자연 속에서 자연스러움과 도시 속에서 자연스러움이 서로 다른 기준들에 의해 혼재되어 있는 도시라는 공간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삶의 모습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 보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내용

도시 백업상 (Instrument Shelter in The City) / 도시는 블랙박스이다. 복잡한 암호들로 잔뜩 채워져 있어서 도저히 풀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블랙박스이다. 왜 사람들은 저렇게 비뚤어 움직이는 것일까? 왜 간판들의 글씨는 저렇게 큰 것일까? 왜 부산대 앞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일까? 왜 저렇게 높은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는 것일까? 의문은 계속된다. 매일 변하고 있는 도시는 왜 그렇게 변해가는 것일까? 누가 이 도시를 저렇게 변화시키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이 도시에서 편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일까? 여기서 제안하는 도시 백업상은 도시의 일상을 관측하기 위한 상자이다.

흰 천으로 둘러싸인 도시 백업상은 건물의 벽이나, 시장의 모퉁이, 복잡한 대학로의 한 가운데, 공원 등 어디든 설치될 수 있다. 온 도시에 난무하는 간판, 소음, 이미지들로부터 잠시 벗어나기 위해 마련된 중성적인 공간이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마치 스스로 백업상 속의 온도계, 가압계, 습도계인양 외부의 도시로부터 상자 속에 들어오는 자극들을 측정한다. 도시 백업상은 도시의 일상공간으로부터 잠시 멀어지기 위한 장소이다. 하지만 그것은 도시로부터 절연된 공간이

아니라 짧은 순간이나마 도시에 대해 사유하도록 초대하는 공간이다. / 우산구(인제대 교수)



우산구/ 도시의 백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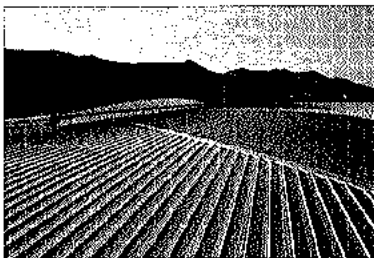
PAUSE - 금정구의 건축(The Architecture of Geumjeong-gu) /

내가 잡아둔 렌즈 속의 순간들은 이 도시를 이루고 있는 조각들이다. 도시의 조각에는 건축이 있다. 나는 건축물에서 이런저런 조각들을 찾아 사진 안에 붙잡아 둔다. 내 마음이 바뀌어 가는 것처럼, 건축도 처음의 모습을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세월이 남긴 흔적 때문만이 아니라 그 안의 채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덧칠해지고 덧입혀져가면서 처음의 모습을 찾아볼 수도 없을 만큼 변해가기도 한다. 우리가 그 모습이 좋든가 혹은 싫든가 하는 것 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잡아둔 건축의 조각은 지금의 모습에서는 끼워 맞추어 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늘 안에 들어가 있는 건축이고, 맴도는 도시이다.

사진으로 찾아내고 남겨진 말쑥한 건축과 편하게 내버려둔 것 같은 우리의 생활은 언제나 함께한다. 도시와 함께 아직도 남아있는 변하지 않는 풍경들이 정겨운 것은, 절대로 결코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이 아니다. 그렇다고 자고 나면 미술처럼 한순간에 바뀌어 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것은 아마 아주 조금씩 무디어져 질어지는 때때로와 느꼈듯 말듯 자라나는 그 무엇 때문일 것이다. 그 무엇을 알기 위해 나는 사진작업을 한다.

그 건축물들로는 오론대 가는 길에 있는 금정구청, 금정문화회관, 금정세무서 등과 부산대 주변의 거리에는 부산대 인문관, 윤죽정, 다움원룸 등이 있다. 금샘로 길에는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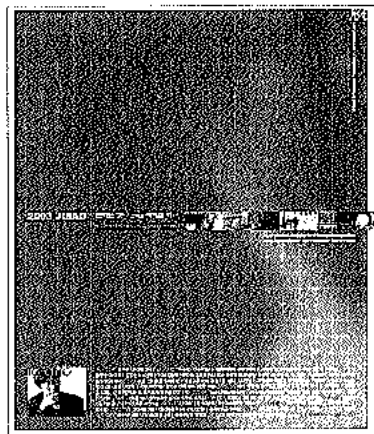
산동 주택, 두구동주택 등이 있고 서동 주변의 복잡한 길에는 동일 복지원, 서동레스토랑 등이 서 있다. 마지막으로 금정경기장을 담아낸다. 그 사진 속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와 쉬고 소비하는 상업건축물, 학교, 체육시설 등이 있다. / 이인미(건축사진가)



이인미/pause

「지산학생건축공모전 2003」 일정 발표

2002년 12월 27일까지 접수,
2003년 3월 6일 작품제출



2003년도 지산학생건축공모전 일정이 발표됐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변하는 것-What is Changing/How to Take'로 빠르게 변하는 지금의 시대에 새로운 것들과 조우하기 위해서는 변하는 것에 대한 수용과 지켜질 바에 대한 예지적 견지는 필수적이며, 이 둘에 대한 복합적이고 공존적 사유체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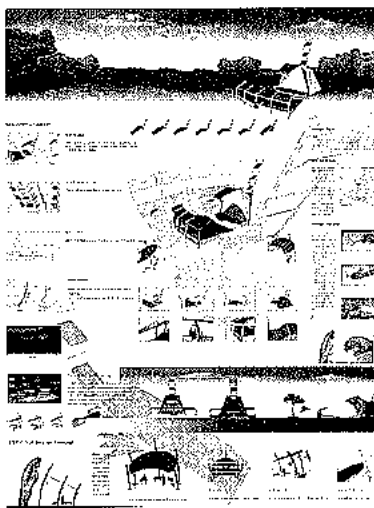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으로 2003년 지산학생건축공모전은 변하는 것에 주목하여 건축 속에서 이를 작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번 공모전의 코디네이터는 현택수(경일대)교수가 맡았으며, 심사는 도요 이토, 공철, 김석철, 김영준, 김종영(계명대교수), 김준성, 서해림, 심영섭(호서대교수), 유걸, 이동언(부산대교수), 최무혁(경북대교수)씨가 맡을 예정이다.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생, 외국인 등 응모 가능하며, 접수는 2002년 12월 27일까지, 작품제출은 2003년 3월 6일까지이다.

문의: 053-744-7349

www.jisansf.com

「제2회 태양광발전 환경 디자인 공모전」 결과 발표

최우수상에 'First Departure
of Civilization'



최우수상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주최로 열린 제2회 태양광발전환경디자인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은 곽윤선, 김훈주(건양대학교 건축학과)씨의 「First Departure of Civilization」이 선정됐

다. '21세기 환경디자인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와 태양광 발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공모전은 대학(원)생들에게 첨단에너지 기술을 적용한 설계 기법을 교육하고 국내에서의 태양광발전 시스템 보급과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됐다. 38개 대학에서 119개 팀이 접수하여 최종 65개 작품이 참가한 이번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외에 우수상 2점, 장려상 10점,佳作 4점 등이 선정됐다. 심사는 유호천(울산대 건축공학과 교수), 김종일(M.A건축사사무소), 박인학(월간 인테리어 대표), 서승직(인하대 건축공학과 교수), 송진수(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옥용연(에너지관리공단), 최경실(이화여대 실내디자인학과 교수)씨 등이 참여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건축과 국제학생교류전

- 일시: 2002년 12월 9일부터

2003년 1월 17일까지

- 장소: 영국, London

metropolitan university

- 문의: 02-958-2770,

uarch@knu.ac.kr

제11회 건축사진아카데미

2003년 2월 4일~4월 29일

청암건축사진아카데미(대표임정의)에서 제11회 건축사진아카데미 강좌를 2003년 2월 4일부터 4월 29일까지 16주간 개최하며, 건축실제 실무자들을 위해 건축사진의 이론과 실기위주의 일정은 카메라의 기초부터 모형촬영, 고건축촬영, 현대건축물촬영, 흑백사진 작업과 테크닉에 이르기까지 실제 응용을 목적으로 실기위주의 강의로 건축답사를 함께 실시, 지도한다. 이번 강좌는 그동안 12주로 진행하여 왔던 것을 많은 회원들의 아쉬움으로 4주간 증설하여 더욱 알찬 실기위주의 답사와 실습으로 진행한다.

- 기간 : 2003년 2월 4일~4월 29일 (16회)
- 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8시 30분
- 장소 : 청암건축사진연구소(서울 광진구 구의동 206-2호)

지구단위계획 교육 성료



서울시건축사회는 지구단위계획의 이해, 주민제안서 작성 등 실무 위주의 '지구단위계획 작성요령 교육'을 지난 2일부터 5일간 협회 강당에서 실시. 서울시건축사회는 이러한 교육들을 앞으로 진행될 건축사 상호인증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등 교육 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 참가인원 : 12명내외
- 참가비용 : 40만원 (학생은 3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입금후 이름과 연락처를 이메일로 보내면 됨
- 외환은행 024-18-29934-0 임정의
- 이메일 : imfoto@hanmail.net
- 접수마감 : 2003년 1월 30일까지
- 문의전화 : 02-444-7088

[일정 내용]

- 1- 2월 4일/ 건축을 보는 눈
 - 2- 2월 11일/ 건축사진의 작업과정
 - 3- 2월 18일/ 빛과 공간의 이해
 - 4- 2월 22일/ 건축물 촬영실습 (토요일 오후 3시~8시)
 - 5- 2월 25일/ 건축사진의 표현과 테크닉
 - 6- 3월 4일/ 각종건축물의 촬영방법
 - 7- 3월 11일/ 각종 모형촬영 이론과 테크닉
 - 8- 3월 18일/ 각종 모형촬영 실습촬영
 - 9- 3월 22일~23일/ 1차 건축답사 촬영실기 (1박2일)
 - 10- 3월 25일/ 디지털카메라의 표현과 테크닉
 - 11- 4월 1일/ 흑백사진의 표현과 테크닉 실습-1
 - 12- 4월 8일/ 흑백사진의 표현과 테크닉 실습-2
 - 13- 4월 15일/ 건축전시와 홍보미디어의 활용
 - 14- 4월 22일/ 프레젠테이션의 작업과정
 - 15- 4월 26일~27일/ 2차 건축답사 촬영실기(1박2일)
 - 16- 4월 29일/ 포트폴리오제작 및 수업
- * 3/1, 3/22-23, 4/26-27 건축답사 장소는 추후결정
- * 이론강의는 강남사무소(서울 서초구 잠원동36-14호) 지하철 7호선 논현역에서 1분거리
- * 실습장소는 강북사무소(서울 광진구 구의동 206-2호) 지하철 2호선 강변역에서 5분거리
- * 찾아오는 길
- www.freechal.com/imfoto
(건축과사진) 카페 참고.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 강남구건축사회(02)7-3071 · 강동구건축사회(02)8-7475 · 강북구건축사회(02)3-2030 · 강서구건축사회(02)6-6999 · 관악구건축사회(02)7-4844 · 광진구건축사회(02)4-5244 · 구로구건축사회(02)4-5828 · 금천구건축사회(02)8-1588 · 노원구건축사회(02)7-1100 · 도봉구건축사회(02)8-8720 · 등대면구건축사회(02)7-6052 · 등각구건축사회(02)8-153026 · 마포구건축사회(02)3-6781 · 서대문구건축사회(02)8-5552 · 서초구건축사회(02)4-6100 · 성동구건축사회(02)2-5855 · 성북구건축사회(02)2-5117 · 송파구건축사회(02)4-9158 · 양천구건축사회(02)4-8040 · 영등포구건축사회(02)2-2143 · 용산구건축사회(02)7-6037 · 용평구건축사회(02)8-1463 · 중구건축사회(02)2-3914 · 중구건축사회(02)2-5749 · 중랑구건축사회(02)3-5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363-5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9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6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6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평택건축사회(02)684-5845 · 구리지역건축사회(031)963-2337 · 부천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7967~9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연천건축사회(031)40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098 · 의정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5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포천지역건축사회(031)657-6143 · 오산건축사회(031)375-8648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파주시지역건축사회(031)767-222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2-0126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1-9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3)833-5062 · 영월지역건축사회(03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3-7220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 청주시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3-5386 · 충주지역건축사회(043)651-1537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62-4088
- 공주시지역건축사회(041)55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4-3367 · 태백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81-420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41)833-2735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 군산시지역건축사회(063)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완산지역건축사회(063)952-3798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85-9944 · 364-7567
- 목포지역건축사회(061)1272-3349 · 순창지역건축사회(0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52-7025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 경산시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시지역건축사회(054)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 · 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2-6688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3-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5-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0244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4-5560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4-3256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44-6029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5-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김해지역건축사회(055)324-6844 · 마산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2 · 사천지역건축사회(055)833-9770 · 안산지역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시지역건축사회(055)741-8403 · 진해지역건축사회(055)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5)883-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3-5501

「2002 케네스 F. 브라운 아태문화 및 건축설계상」공모

2003년 1월 31일까지 등록

하와이대 건축대학원에서 제4차 케네스 F. 브라운 건축설계상(2002 Kenneth F. Brown Asia Pacific Culture and Architecture Design Award)을 공모한다. 이 프로그램은 아시아건축사지역협의회(ARCASIA)와 협력하여 진행되며, 아태지역에서 뛰어난 현대건축물을 찾기 위한 것으로 아태지역에서 인간 환경을 위한 촉매로서 건축을 제시한 지난 10년간 시공된 프로젝트를 찾는다. 전체 상금 규모는 미화 25,000불이며, 수상자는 2003년 4월 하와이대 건축대학원에서 '아태지역에서 거주 가능한 커뮤니티의 창조'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5차 아태건축 국제심포지엄에서 연사로 초청을 받는다. 대상 프로그램은 아시아대륙이나 태평양 지역에 위치하며 1992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완성된 모든 건축물이 해당된다. 심사기준은 인공, 문화, 자연환경에 가장 민감하고 창의적이며 비판적으로 반응한 설계에 초점을 두며 컨텍스트에 가장 의미있는 기여를 한 건축 프로젝트를 선정한다. 등록기한은 2003년 1월 31일이고, 작품 제출기한은 2003년 3월 7일이며, 2003년 3월 15일 심사를 거쳐 2003년 4월 10일 수상작이 발표될 예정이다. 참가비는 미화 100불이다.

문의: <http://web1.arch.hawaii.edu>, 전화: (808)956-3515 fax: (808)956-7778

e-mail: kbda@hawaii.edu 홈페이지: www.arch.hawaii.edu

Erskine Award 2003(triennial)

- 주최: 스웨덴 건축사협회(Swedish Association of Architects)

- 제출마감: 2003년 1월 31일

- 발표: 2003년 가을

- 상금: US\$ 10,000

- 문의

전화: +46-8-5055 7743 fax: +46-8-5055 7705

e-mail: pm.sallstorm@arkitekt.se

홈페이지: www.arkitekt/erskinestiftelsen

제7회 베오그라드 건축전(triennial)

(The seventh Belgrade triennial of world architecture)

- 행사기간: 2003년 7월 27일 ~ 8월 30일

- 문의

전화: 381 11 311 7045 fax: 381 11 141-426

2003 Benedictus Awards

- 작품대상: 강화유리(laminated glass)로 외관을 시공한 1998년 이후의 완공 건축물

- 작품마감: 2003년 2월 14일

- 심사부문: 상업시설, 교육시설, 정부기관, 산업시설, 오락시설, 주거시설

- 문의

전화: (33 1) 45 24 36 88 fax: (33 1) 45 24 02 78

e-mail: uia@uia-architectes.org

홈페이지: www.dupontbenedictus.com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안내

매년 1월은 근로소득세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달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각 회사의 연말정산업무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난 해와 달라진 세법 규정과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을 안내하고, 다음에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와 알아두면 유익한 사례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자료제공 및 문의
국세청 납세홍보과(02-397-1397)
E-mail : ho25400@nts.go.kr

■ 소득세율 인하

2001년		
과세표준금액	세율	누진공제
1천만원 이하	10%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0%	100만원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30%	500만원
8천만원 초과	40%	1,300만원
2002년		
1천만원 이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8%	90만원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27%	450만원
8천만원 초과	36%	1,170만원

■ 근로소득공제 확대

2001년		근로소득공제금액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전 액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500만원 + 500만원 초과 금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900만원 + 1,500만원 초과 금액의 10%
4,500만원 초과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 금액의 5%
2002년		전 액
500만원 이하		500만원 + 500만원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초과금액의 45%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95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175만원 +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4,500만원 초과		1,325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 경로우대·장애인 공제 확대

2001년	2002년
· 장애인·경로우대자에 대한 추가공제 · 대상자 : 장애인 및 65세이상 부양가족 · 공제액 : 연 50만원	공제액 : 연 100만원

■ 보장성보험료 공제대상 확대

2001년	2002년
· 보장성 보험료 공제대상 · 생명·상해보험 · 손해보험 ·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공제	「교원·군인·경찰·소방·지방행정공제회의 보장성공제」도 공제대상에 포함

■ 의료비 공제대상 확대

2001년	2002년
· 공제대상 의료비 · 진찰,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구입비용 ·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포함) 및 보청기 구입비용도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에 포함 *단, 안경·콘택트렌즈의 경우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

■ 대학생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 확대

2001년	2002년
· 공제대상 교육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신학대학 등 포함)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일명 "사이버 대학"을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추가하여 원격대학생 교육비 공제 가능

■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제도 신설

2001년	2002년
(신설)	·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 공제대상 교육기관 : 사회복지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 실시기관으로 인정받은 비영리 법인(국외 교육기관 포함) · 공제한도 : 1인당 연 150만원

■ 연금보험료공제 확대

2001년	2002년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 제외) 및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납부액의 5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납부액의 10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근로소득세공제 한도 및 대상 조정

2001년	2002년
· 근로소득세액 공제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 45% ·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 22만5천원 +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공제한도 ⇒ 60만원 · 근로소득에서 인정상여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 공제율 ⇒ "차 뺀" · 공제한도 ⇒ 40만원 · 인정상여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 기부금의 범위 조정

2001년	2002년
· 사립학교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 시설비·교육비·연구비 ⇒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 · 장학금 ⇒ 근로소득금액의 10% 범위내에서 소득공제	· 사립학교 등에 지출하는 시설비·교육비·연구비 외에 장학금에 대하여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의 10%한도내에서 공제되는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추가